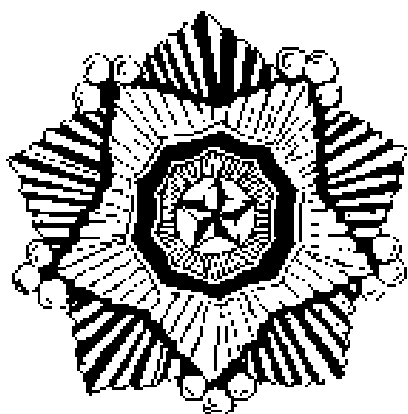




3

주체 92(2003)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2(2003)년 제3호

(루계 제 665 호)

## 차례

불 타는 창작적열정을 안고 선군문학창작의 붓대를 달리자 .....	4
그리움의 봄 .....	5
력사의 메아리 .....	6
녀성 .....	13
수령님 추억속에 .....	14
영원히 푸르를 조선의 나무여 .....	14
선군혁명문학은 주체사실주의문학발전의 높은 단계이다 .....	15
명언해설 .....	19
우리의것 .....	20
세기를 이어 살고 있는 주인공들 .....	21
오늘을 추억하리라 .....	32
봄의 물방울 .....	32

두사람의 대화 .....	33
산 화석 .....	48
래일 .....	61
붓을 총대로!.....	62
혁명의 필봉을 멸적의 총창으로 버리어...	63
아들아, 네 탄창속에 재워 져 있다.....	63
해 후 .....	64
보내는 마음 .....	71
통일과 너인 .....	72
안해와 부엌 .....	75
이런 소설을 더 많이 실어 주십시오 .....	75
남조선의 진보적시인 김남주와 그의 통일시 .....	76
주체 91(2002)년 《조선문학축전상》 당선작품 .....	80

## 불 타는 창작적열정을 안고 선군문학창작의 붓대를 달리자

지금 온 나라의 군대와 인민은 새 세기의 세번째해의 보람찬 진군을 기운차게 다그치고 있다. 새해를 맞으며 발표된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은 우리 인민들의 심장을 필승의 신심과 불 타는 애국의 열정으로 세차게 높뛰게 하고 있다. 이 위대한 시대의 의지에 박동을 맞추며 우리 작가들은 선군혁명문학창작의 붓대를 기세 좋게 달리며 문학운동의 불길을 힘 있게 지펴 올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의 정신상태와 기세는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민의 양양된 혁명적열의와 일심단결된 위력을 용케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문학예술 부문이 맡고있는 몫은 매우 큼니다.》**

우리 선군혁명문학은 회세의 선군령장, 전설적위인의 선군정치를 사상정서적으로 안반침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선군혁명동지로서 우리 작가들의 최대의 보람과 긍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우리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훌륭히 창작해 내는데 있다.

올해공동사설은 대단한 공격전을 벌려 공화국창건 55돐이 되는 이 해에 선군의 기치 따라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칠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고 있다.

우리 작가들은 당의 전투적 호소에 창작으로 힘 있게 호응하여야 한다. 공화국창건 55돐이 되는 뜻 깊은 올해에 우리는 문학형상을 통하여 선군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성대

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강력한 사상정서적무기를 안겨 주어야 한다.

창작은 열정의 산물이며 실력전의 산아이다. 작가는 심장의 열도를 다하여 창작적열정을 불 태우며 실력전을 벌려 나가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천출 위인상을 숭고하게 형상하는데 모든 창작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절세의 애국자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끊임 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진두에서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련된 령도밑에 이룩되고있는 놀라운 전변들은 우리 작가들에게 부강조국의 래일에 대한 커다란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며 위대성형상창조에도 힘있게 고무하고 있다.

강성대국을 건설하여 우리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높이 떨치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의지이다. 일찌기 룡남산마루에 메아리친 위대한 령사의 맹세가 조국땅위에 찬란한 현실로 펼쳐 지고 있다. 우리는 불 타는 애국의 열정과 창작적열정으로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웅대한 전략적구상과 애국의 뜻을 작품형상에 전면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창조에서 미할실천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심고리는 전설적위인으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창조에 초점을 돌리는것이다. 아직 인류정치가사가 체험해보지 못한 선군정치의 위대한 령사를 전면적으로 창조하시여 미증유의 세기적기적을 이룩하

고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은 전설적위인, 천출선군 령장이시다. 위인의 실재한 투쟁업적을 전설화하여 창조할데 대한 시대적과제는 전설적영웅을 모시고 살며 창작하는 우리 작가들에게만 부여된 최대의 특전이고 행운이며 숭고한 력사적임무이다. 모든 사색과 탐구를 다 쏟아 부어 천출명장의 전설적형상창조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나가자.

오늘 우리 작가들의 창작전투는 첨예한 계급투쟁, 제국주의자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이다.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더욱 로골화되고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는것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는것이 우리 인민의 전투적기질이듯이 반제계급투쟁의 날을 서술 푸르게 버려 붓을 달리는것은 선군혁명문학창작의 기수들인 우리 작가들의 고유한 기질이다. 우리는 전승 50돐이 되는 뜻 깊은 올해에 사생결단의 각오로 펼쳐 일어나 조국수호의 결전장에서 창작의 붓을 달리던 1950년대의 종군작가들의 창작본새와 류례없이 간고한 《고난의 행군》시기에 창조된 1990년대의 창작기풍으로 선군문학작품창작에 총 돌진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집중해야 할 형상의 초점은 혁명적군인정신을 체현한 새로운 혁신적성격을 창조하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며 장군님의 명령지시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을 지니고 영웅적인 희생성을 발휘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문학형상의 화폭에 우뚝 세워 놓아야 할 시대의 전형적성격의 핵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은 그 어떤 난관도 뚫고 기어이 승리를 이룩해 나가게 하는 가장 위력한 무기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이 나



래치는 곳에는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혁명적군인 정신을 체현한 혁신적인 성격을 창조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수령결사옹위를 사업과 생활의 드림 없는 좌우명으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일해나가도록 힘 있게 고무하여야 한다.

우리가 점령해야 할 창작적 목표는 매우 방대하고 아름답

다. 가는 앞길에는 시련과 난관이 있다.

우리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신념과 의지, 배짱을 가지고 대담한 창작전투를 벌린다면 점령 못할 창작의 요새란 있을 수 없다는 필승의 신심을 가지고 붓을 달려야 한다.

창작지도일군들은 작전을 대담하게 하고 작가들의 창작을 힘 있게 떠밀어 주며 일단 제

기한 창작과제는 높은 사상에 술적수준에서 완성하고야 마는 완전한 기질을 소유하여야 한다.

위대한 선군시대에는 위대한 선군문학을 낳는다.

모두다 선군시대에 살며 창작하는 최상의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뜻 깊은 올해의 창작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켜 나가자.

## 그리움의 봄

안윤식

얼음장미를 흐르던  
맑은 시내물에 송이구름이 뜨고  
해 묵은 버들잎 두세개 동동  
떠내려 가는것을  
살 오른 버들개지가 한들한들  
바래주면 봄입니까

해빛 따사로워 대지를 애무하는 부드러운 바람이  
무엇인가 자꾸 소곤댁니다  
봄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가  
아마도 묻는것 같아요  
겨울 가면 봄 오는줄 왜 모르겠습니까

누군가 부는 호드기소리에  
애모쁜 그라움이 실렸습니다  
그 소리에 우리 마을 발전소  
전기 흐르는 물소리가 여물어 지고  
병사들의 식탁에 봄향기 풍겨 줄  
냉이며 왕달래가 파랗습니다

종다리는 들하늘에 은방울 굴리고  
간밤 가느다란 비에  
함함히 머리 감은 앞그루 보리는  
어느새 이삭 실은 배가 불룩해 집니다  
봄순이는 오후오후 애기메기들을  
살뜰히도 양어장에 놓아 줍니다

팔손의 우리 집 할아버지  
여물콩 두손에 받쳐 부림소를 먹이며  
봄에 반겨 늦장 부리면  
가을에 낱알을 섬으로 잃는다고  
이래라 저래라  
괜한 잔소리가 많아 집니다

누가 그걸 모르랴만  
농산분조장 새로 맞은 손주며느리  
다소곳이 머리 숙이고  
복스런 얼굴에 방그레 웃음 담는 봄  
봄은 아마도 기쁨이고  
기쁨끝에 더해 지는것이 그리움인가 봐요

움 틈 싹이 푸르려 지듯이...

아, 사회주의선경마을은 과일꽃속에 묻히고  
햇풀 뜯는 염소들의 방울소리는  
산자락을 유정히 감싸고 돕니다  
제풀에 놀란 봄뽕이  
앞산에서 꺼경- 뒤산에서 꺼경-  
짹을 부르는 소리에 질어 가는 봄

록수야  
청산을 두고 쉬이 간다 자랑 말아...  
어느 세월의 시입니까  
우리 마을 보배로운 시내물은  
전기내고 물고기 살 지우고 곡식 자래우고  
선군세월의 무르익은 봄을 읊조리며  
새 세기 무릉도원을 못 떠나  
물파발에 흘러 들어 하늘을 담았거니

누가 말했던가요  
봄도 한철 꽃도 한철이라고  
그렇게 말한이는 오세요 아무때든  
겨울에도 파란 오이 부루썽 자시고  
메기탕에 담도 흘릴테니  
웃음꽃 절로 피고 봄노래 절로 날겁니다

정말이지  
계절의 봄은 왔다가 속절없이 가도  
설한풍 몰아 쳐도 잃지 않을 이 봄은  
아마도 이 봄은  
야전복 입으신 장군님의 끝 모를 사랑의 품에서  
웁 트고 자라고 꽃 피여  
선군의 길 따라 오는것이 아닙니까!

아, 우리 마을에 다시 오시면  
십년은 더 젊어 지실 우리 장군님  
오늘도 어느 최전연고지에서  
야전복자락을 날리십니까  
못견디게 간절한 마음  
날마다 더해만 가는 그리움  
꿈결에도 새벽까지가 울어요...

## 력사의 메아리

박두일

승냥이가 날고기를 먹는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그런데 공영은 독립운동을 한다는 자기가 마적들의 줍도적질이 눈에 거슬린다 하여 리성을 잃고 헤덤비었으니 일은 참 망랑하게 되었다.

도정찰부로 호송되어 가던 김형직선생님께서 황씨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탈출하긴 하였으나 심한 동상을 입고 압록강 얼음판우를 배밀이로 건너 오셨다는 청천벽력파도 같은 소식을 듣고 토로즈마일로 달려 갔을 때에도 이처럼 분별없이 헤덤비지는 않았다.

더우기 선생님께서 중병이 든 몸으로 무송에서 독립군 중대장을 하고 있는 최문식을 찾아 떠나려 했을 때에는 사색이 되어 필쩍 뛰며 다소 고집을 부리긴 하였으나 리성까지 잃지는 않았다.

최문식은 공영의 어릴적친구이다.

《벽동독립청년단》시절부터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함께 자란 그들은 독립군생활을 시작할 때까지만 하여도 동고동락하며 짬만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앉아 독립조선의 래일을 그려 보곤 하였다.

정말 꿈 많은 시절이었다.

공영은 김형직선생님을 처음 만나뵈던 그때 일이 잊혀 지지 않았다.

송암 오동진이가 공영의 집에 왔다가 떠난지 보름째 되는 날이었다.

공영은 아침 일찍 최문식리와 함께 대동리 청년들을 만날 일이 있어 집을 나섰다 달빛을 지고 마을 길에 들어 섰는데 조직원청년이 전하는 말이 평남도 대동군 고평면에서 손님 한분이 공영을 찾아 왔다가 다리칩도 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 삼정리로 떠나갔다는 것이었다.

공영은 대뜸 그분이 송암이 말하던 김형직선생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최문식리와 함께 발길을 돌려 세웠다.

그들이 마을길을 벗어 나 달미천가에 이르렀을 때였다. 맞은편 개버들숲사이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얼른거렸다. 공영은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상대방쪽을 조심히 살피는데 먼저 그쪽에서 《공영군이 아니요?》하는 목소리가 우렁우렁 들려 왔다.

공영과 최문식은 환희에 넘쳐 선생님을 부르며 징검다리가 놓여 있는 여울물쪽으로 달려 내려갔다. 그런데 김형직선생님께서 정갱이치는 찬물속에 서슴없이 들어 서시여 이쪽을 향해 건너 오시는 것이 아닌가. 공영과 최문식은 아연해 진 눈

길로 마주 보고는 약속이나 한듯 침버덩 물에 뛰어들었다. 달빛이 거울처럼 고르롭던 수면에 물보라가 일었다.

달려 가고 달려 오고... 달밤임지라 서로 얼굴을 푹푹히 바라볼수는 없었으나 모두가 초면이라는 것을 잊고 마치 오래동안 떨어져 저 그리워 하던 친지들을 만난것처럼 물가운데서 뜨겁게 포옹하였다. 공영은 그 밤에 벌써 김형직선생님의 인품에 완전히 매혹되고 말았다.

목 마르게 갈망하던 민중해방의 진로가 트이고 새로운 신심과 열정이 넘쳐 나던 나날들, 공영은 선생님을 처음 만나뵈던 조약돌 많은 달미천가에서 최문식리와 결의형제를 맺고 영원히 선생님을 따라 한길을 걸을것을 맹약하였었다.

그런 최문식리가 변질되다니... 공영은 생각할수록 분했다.

그들의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한것은 청수동회의가 있던 이후 민족주의운동을 공산주의운동으로 방향전환시킬데 대한 새로운 논의가 분분하던 때부터였다.

압록강을 건너 무송에 있는 독립군에 파견되어 온 그들은 한동안 손발이 맞아 돌아갔다.

그런데 최문식리가 정의부직속 독립중대를 맡은 다음부터 그들은 서로 리론상문제에서 립장을 달리하게 되었다. 마침내 여러차례의 맹렬한 갑론을박이 벌어 졌는데 해결책은 고사하고 옛정까지 어성버성하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한동안 그들은 만나서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달포전에 최문식리가 먼저 공영을 찾아왔다. 그는 군자금이나 모아 들이면서 공리공담만 일삼는 정의부의 행실을 더는 보고만 있지 못하겠다며 민족주의자들과 갈라 저 당장 왜놈과 싸울수 있게 군대를 개편해 가지고 본격적인 독립투쟁을 하자고 떠들어댔다.

공영은 아무리 말해 주어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의 최문식에게 짜증이 났으나 인내성 있게 선생님도 모르게 그런 분별 없는 행동은 하지 말라고 진심으로 타일려 주었다. 그러나 최문식은 끝까지 웅고집을 버리지 않고 자기 중대를 데리고 정의부의 울타리를 뛰쳐 나왔다.

그날 공영은 성이 독같이 올라 최문식에게 《이놈아, 갈라 지겠으면 너 혼자 갈것이지 배은망덕하게 선생님께서 공들여 쌓은 연합을 왜 허물려 드느냐?》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절교를 선언하였다.

최문식이라도 만만치 않았다.

《좋다! 나도 절교이다. 그러나 누가 옳았는가 하는것은 두고 보자!》

최문식의 행동은 그러지 않아도 어수선하던 독립군의 분열을 가속화시켜 사태는 엄중해 졌다.

보수적인 민족주의자들은 갓 싹 트기 시작한 공산주의운동을 음모로 양으로 방해하며 진보적인 청년들을 모해하고 폭행까지 가하여 독립군은 사분오열의 운명에 직면하였다.

자피구자수림속에서는 두파로 갈라 진 독립군 병사들이 서로 맞짱질을 하여 수많은 사상자까지 내었다.

사태는 생각했던것보다도 더 험악해 졌다.

최문식은 그때야 비로소 어리석었던 자신을 통탄하며 고민과 번민의 나날을 보내다가 끝끝내 선생님을 뵈을 면목이 없다면서 자충을 시도하기까지 했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병석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몹시 가슴 아파 하시며 자리를 걷고 일어나시었다.

공영은 선생님의 병환이 넘려되어 최문식이와 같은 늙은 영영 있어 버리자고 말씀 드렸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침통하신 안색으로 공영을 바라보시며 절절하게 말씀하시었다.

《공영군!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룡혈포를 얻는 것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한다지만 나는 동지를 밀천으로 조선독립을 이룩하자고 하오.

최문식이가 어떤 사람이요. 좋을 때는 같이 가고 나쁠 때는 쉽게 버린다면 누가 우리와 함께 빼앗긴 나라를 되찾자고 하겠소.

도산 안창호는 산업을 진흥시키고 교육을 발전시켜 독립을 이룩하자고 하고 리동휘는 돌이면 돌, 셋이면 셋이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개인테로의 방법으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자고 하는 이때 그라고 왜 마음의 동요가 없겠소.

결함은 신념이 흔들린 최문식에게만 있는것이 아니라 그를 제때에 깨우쳐 주지 못한 우리에게도 있소.》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한동안 마음을 진정 시키는듯 방안을 거니시다가 한결 가라앉으신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좋은 동지는 하늘에서 떨어 지는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 나는것도 아니요.

동지를 위해 죽을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 좋은 동지를 얻을수 있소.

공영군, 우리 동지를 위해 목숨도 바칠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공영은 경솔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 귀뿌리가 화끈 달아 오르고 눈시울이 뜨거웠지만 선생님께서 길 떠나시는것만은 양보할수 없었다.

《선생님,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최문식을 꼭 옳은 길로 돌려 세우고 오겠으니 선생님께서는 부디 병치료에 전념하여 주십시

오.》

공영은 사정하듯 선생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으며 앞길을 막아 나섰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따뜻한 눈길로 공영을 바라보시며 타이르듯 조용조용 말씀하시었다.

《최문식의 이번 일은 지금 처한 전반적인 독립군의 실태이기도 하오.

조선독립을 이룩하자면 독립운동단체들의 단일전선으로의 통합과 반일애국세력의 단결을 촉진시켜야겠는데 지금 이것을 통일적으로 령도할수 있는 정치단체가 없소.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하나로 통합된 조직을 내오자고 하오.

이번 길이 최문식을 위해 가는 길이라고만 생각지 마오. 이번 길은 장차 더 많은 동지들을 묶어 세우기 위하여 가는 의의 깊은 결사이기도 한 거요.》

공영은 더는 선생님의 의사를 변경시킬수 없다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무송에서 연락을 가지고 온 박진영과 함께 자진하여 선생님의 호위를 맡아 나섰다. 그런데 무송시가에 가닿지도 못하고 일을 그르치고 말았으니 정말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원래 만강은 어느 지역보다 마적들의 행패가 유별한 고장이었다. 게다가 왜놈들이 반일세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비적단들에 침투하여 상충을 조종하거나 토비들을 길러 내어 왜벌복국의 뜻을 품고 나선 독립운동자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있었다.

골목이 길면 개가 사납다고 만강에서 제일으속한 짜리푼에 동지를 튼 호적대장 평동양은 산동출신으로서 오래동안의 토비활동으로 유명해진 놈이었다. 이놈의 부대는 최근년간 더 악착해져 찍하면 행인들을 붙들어 놓고 돈이나 물건들을 빼앗기도 하였고 생트집을 걸어 귀를 베거나 목을 자르는 잔인한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한때 만강일대에서 활동한 공영은 배심이 든든하였다.

그것은 언제인가 공영이 길우에서 미처 날뛰는 적토마를 한주먹으로 때려 눕혀 평동양의 환심까지 산적이 있었기때문이었다.

그때 평동양은 장사 같은 공영을 탐내어 부두령자리를 주겠으니 자기 부하가 되라고 하였었다.

그런것을 뿌리치고 나오긴 하였으나 패장들도 공영을 허술히 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길에는 여름철에도 늘 개털조끼를 입고다니는 구의라는 놈과 맞닥들려 일을 그르치게 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공영이 만강을 떠나간후 이놈은 부두령자리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놈은 일행이 나타나자 바람으로 공영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엄하게도 김형직선생님에게까지 총구를

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지껄여 댔다. 공영은 울화가 치밀어 올라 불이 번쩍나게 한주먹 먹인 다음 그놈의 총대를 거머쥐고 와지끈 분질러 버리고 말았다.

악에 받친 놈은 패당들을 몰고 이리떼처럼 달려들었다. 공영은 그제야 아차 하고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으나 일은 이미 었지른 물이었다.

여느때 같으면 성난 호랑이처럼 날고 펄 공영이었지만 김형직선생님에게 화가 미칠가 보아 평동양이 거처하고 있는 싸리골막바지까지 두손을 묶이운채 고스란히 끌리어 왔다.

구의놈은 터진 불을 쏴어 만지며 이를 부득부득 같았으나 선생님에게만은 몸가짐새가 달라서인지 아니면 무슨 속궁냥이 있어서인지 삶의 눈만 흘길뿐 망탕 대하지 않았다.

평동양은 곰털가죽을 뒤집어 쓰고 앉아 구의놈의 씨별임소리를 듣고 나서 길게 탄 머리채를 버덩이로 질근질근 씹으며 미친개 눈질하듯 공영을 아니꼬운 눈길로 훑어 보았다.

그러고나서 평동양은 줄개들에게 자기들끼리 쓰는 은어로 한동안 수군거리었다. 가끔 《로추취》(끌어 내가라), 《쉬조바》라는 말마디가 들려왔다.

원래 중국말로 《쉬조》는 잠 자라는 말인데 비적들은 죽는다는 말을 《쉬조바》라고 했다.

그런데 가끔 살기 띤 구의놈의 말마디에서 왜놈령사관이라는 소리까지 흘러 나왔다.

지난 날 마적들과 접촉한 기회가 있어 이놈들의 말마디들을 적지 않게 알아 들은 공영은 신경을 곤두세웠다.

자기 한몸만이라면 걱정할 필요도 없었으나 김형직선생님의 신변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이 시각 공영의 마음은 활시위처럼 팽팽하여 졌다.

해질무렵 평동양은 수하줄개들을 이끌고 마을로 로략질하러 내려간 뒤에서 마적소굴에는 구의놈을 비롯한 일부 잔당들만 남아 경비임무를 수행하고있었다.

공영은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속에 파고들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김형직선생님께서 병환에 로독까지 겹쳐 들어 고열이 나면서 자주 정신을 잃곤 하시는것이 문제였다.

비록 탈출한다 쳐도 지금상태에서는 선생님의 건강에 대하여 마음 놓을수 없었다.

공영은 속이 바질바질 타들었다.

(두번 다시 자그마한 실수도 있어서는 안된다. 이 놈들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제 선생님몸에서 열만 내리면 그때 가서 회계를 단단히 하자.)

공영은 두주먹을 으스러지게 꽉 틀어 쥐었다.

×

누군가가 뿔아 던진 장끼털오리 같은 노을빛이

뽕죽봉마루에서 사라져 버리자 숲에는 어둠이 덮쳐 들었다.

푸르딩한 하늘에 얼어 붙은 초생달은 마치 물속에 잠겨 한쪽면두리가 녹아 버린 얼음조각같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다.

바람소리가 들려 왔다. 우- 우- 가독령을 넘어 불어 오는 《마귀할미》바람은 전설에서 듣던바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불어대는것이 마치 어떤 거인의 숨결처럼 느껴 졌다.

달빛이 희미한 창밖에서는 또다시 한몽치의 눈보라를 몰고 달려 든 바람이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사스레나무우듬지를 부어안고 아우성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따금 성애가 달라붙은 출입문썸으로 새여들 어온 바람이 뿌연게 타고 있는 등불빛을 흔들여 벽과 천정에 어룡어룡한 알지 못할 문양을 그리고있었다.

건너방에서는 초저녁부터 투전놀이에 미친 경비병놈들이 소란스럽게 고아대고 있고 출입문 결에서는 돼지 같은 구의놈이 총대를 끼고 앉아 눈알을 희번뜩거리며 꾸룩꾸룩 약담배를 빨고 있었다.

공영은 눈길이 구의놈과 부딪칠 때마다 뺨이 곱들거려 이썸으로 침을 짖 갈기고나서 벽에 등을 기대인채 돌아 앉고 말았다.

천정에서 흙이 푸실푸실 흘러 내렸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아직 의식이 없었으나 박진영이가 결에서 송골송골 내뿜기 시작한 땀방울을 조심조심 닦아 내고 있는 품이 열이 내리기 시작한것 같았다.

공영은 조바심이 나는 마음을 달래며 병색이 짙은 선생님의 안색을 근심어린 눈길로 지켜 보았다.

평양감옥을 나서신 김형직선생님께서 파괴된 조선국민회 조직을 복구하시려고 벽동땅에 오시였을 때에도 이처럼 병색이 짙으시였다.

선생님께서서는 그날 자신의 병약한 신변을 두고 걱정하는 조직책임자들과 함께 동주성 옛 성터가 있는 완월루에 오르시였다.

푸른 달빛이 잎 떨어 진 버들가지에서 애처롭게 떨고 있던 그 밤.

무너진 성벽밑에서는 보금자리를 찾아 헤매는 못 새들의 울음소리가 처량하였고 산기슭을 적시며 흐르는 압록강의 검푸른 물우에서는 배사공의 구슬픈 노래소리가 한적한 북변의 정서를 자아냈다.

예로부터 명산대천으로 유명하던 벽동땅은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교두보로 전락되어 나날이 황폐화되어 갔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그 옛날 변강방위를 말아 나섰던 장수들이 휴식의 한때를 즐기며 달구경을 했다는 완월루를 돌아 보시며 우리 인민이 창조



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에 대하여, 로씨야에서 사회주의 10월혁명과 레닌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날 최문식은 선생님에게 우리도 독립군을 데리고 연해주에 들어 가 그들의 방조를 받으며 조선군대를 창건하여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자고 말씀드렸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최문식의 제의를 받으시자 빙그레 웃으시며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고 있는 그의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시였다.

《지난 날 석가모니가 들어 와 조선의 석가가 되어준것이 아니라 조선이 <석가모니의 조선>이 되었고 공자가 들어 왔을 때에는 조선이 또 <공자의 조선>이 되었으며 왜놈이 들어 온 지금은 조선이 일본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만국평화회의에 갔던 리준렬사가 무엇을 보여 주었습니까.

그런데도 리승만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미국에 우리 나라를 말아달라는 청탁서를 내자고 하고있습니다.

물론 남에게서 좋은 경험을 배우는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에게 의존하고 남의것을 덮어놓고 믿는것은 유해로운 사상입니다.

우리는 조선국민회를 내오기전부터 나라의 독립을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이룩할것을 결심하고 <지원>의 사상을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얼굴을 붉히고 서서 머리를 굽적거리는 최문식의 어깨우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고 잠시 동안을 두셨다가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독립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내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가 되듯이 뇌심 초사 인민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애국심을 하나로 묶어 세우는 여기에 래일의 진정한 독립조선이 있습니다.》

강기슭에서부터 립동의 찬 기운이 굵을 따라 흘러 들었다.

공영은 이 밤길을 걸어 의주로 떠나시려는 김형직선생님께 며칠간 머무르며 몸조리를 하고 떠나실것을 간청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공영의 걱정을 덜어 주려는듯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명랑해 진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다문박식하기로 소문난 공영군이 숭실중학교 시절부터 이 김형직이가 한다하는 운동선수였다는 것만은 모르는구만.》

공영은 선생님께서 청을 받아 들이려 하지 않자 피땀 좋은 생각이 떠올라 누가 더 건강한가를 씨름 한판으로 결정짓되 만약 선생님이 지면 공영의 의견을 따르고 이기시면 떠나가도 붙잡지

않겠노라고 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어이없다는듯이 소리내여 웃으시였다.

《그런 불공평한 내기가 어디 있소. 공영군이 지면 노래를 불러야지.》

공영은 노래 부르는것을 딱 질색하였다.

그것은 어렸을 때 《야광》이라는 귀신때문에 망신을 톡톡히 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옛일을 자꾸 들추어 놓기때문이었다.

일설에 《야광》이라는 귀신이 설달 그믐날 밤 인가에 내려 와 잠 자는 아이들의 신발을 일일이 신어 보고 제 발에 맞는 신발은 신고 가는데 그렇게 되면 신발일자가 눈섭과 머리칼이 늙은이들 처럼 새하얗게 쏜다고 하여 벽동아이들은 이것이 두려워 이날에는 모두 한집에 모여 앉아 신발을 감춘 다음 안팎을 초볼로 대낮처럼 밝히고 밤을 새우곤 하였다.

공영도 어느해인가 채를 가지고 밤샘하려 이웃 집으로 갔다.

그것은 채를 벽이나 섬돌어간에 걸어 두면 《야광》귀신이 채구멍을 세다가 못다 세여 신발 신기를 잊어 버리고 첫닭이 울면 달아난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공영은 졸음을 참다 못해 눈에 찌리코 찡이를 휘여 걸고 겁 먹은 얼굴로 앉아 있는 동네아이들을 위해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날이 밝자 덕이 오히려 허물이 되었다. 동네아이들은 공영의 목청이 수줍청인데 《야광》귀신도 무서워 산에서 내려 오지 못했다고 하면서 놀려 댔다.

소문은 이웃마을에까지 퍼져 다음해부터 밤생을 할때에는 공영을 청해 가겠다고 야단을 쳤다.

그때 얼마나 창피스러웠던지 그다음부터 공영은 노래라면 천길을 뛰며 질겁했었다.

송암 오동진이가 공영의 집에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배를 그러안고 웃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 그러나 공영은 승산이 뻔한 씨름을 두고 노래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평북일판에서 공영은 손 꼽히는 씨름 선수였기때문이었다.

《좋수다. 내기를 합시다.》

공영은 자기의 계약이 들어 맞는것이 기뻐서 벌썩 웃으며 웃도리를 벗어 던지고 바지가랭이를 올려 붙인다음 풀판에 뛰여 들었다.

최문식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영의 편에서 응원했다.

공영은 처음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배지기를 뚫으나 평양감옥에서 쇠약해 지신 선생님의 체중이 두팔에 실리는 순간 가슴이 쓰리고 아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선생님의 건강부터 회복시켜야 한다.)

공영의 결심은 바위처럼 굳어 졌다.

두번째 배지기를 뗄 때였다.

《올라 간다!》

공영은 산이 떠나가게 소래기를 치며 두팔을 번쩍들어 올렸으나 안걸이에 걸려 그만 제 힘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와하- 사람들의 폭소가 터졌다.

공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 나 받으려는 소처럼 씨근덕거리며 선생님의 허리를 붙안았다.

《개관입니다. 다시 합시다.》

《한번이라고 하지 않았소.》

《내가 언제 그런 말을... 선생님! 딱 한번만 더...》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머리를 젖히시고 유쾌하게 웃으시며 손을 내저으시었다.

공영은 인사불성이 되어 덤벼 졌다.

억지를 부려서라도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이때처럼 강하게 공영을 지배한적은 없었다.

그러나 두번째 경기에서도 역시 공영은 용한번 싸보지 못하고 넘어지고말았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땀이 축축히 내뻘 공영의 잔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시면서 병조판서감이긴 하지만 내기에서 졌으니 노래를 하라고, 《야광》귀신만 들어 본 노래를 오늘에야 듣게 되었다고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공영은 노래만은 정말 못 부르겠다고 사정을 하였으나 인츰 생각을 고쳐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학도가》를 불렀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목청이 참 유순해서 좋다시며 제일먼저 박수를 쳐주시었다.

공영은 흥이 나 청하지도 않은 《팔도수박회》를 보여준다는 맨주먹으로 바위를 부시고 밭길질로 키높이 자란 소나무의 술방울들을 차버리었다.

경탄이 터지고 박수소리가 요란하였다.

공영은 능청스러운 얼굴로 시치미를 떼고 구경한 값은 안 받겠으니 대신 선생님께서 하루밤만이라도 쉬여 가라고 생떼질을 썼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그러한 공영을 정 넘친 눈길로 바라보시며 휴식대신 시 한수를 읊겠다고 하시었다.

구름속에서 잠 자던 달도 자기의 자태를 드러냈고 바람도 숨을 죽인듯 했다.

달 밝은 완월루에 높이 올라서  
동주성 바라보니 감개 깊어라  
북변강 배사공의 구슬픈 저 노래  
구봉산기슭에 메아리치네

네 모습 예로부터 아름다워서

길손의 시흥을 불러 뿔뿔만  
왜놈의 학정아래 눈물 지으니  
달빛도 산천도 빛을 잃었네

굶주리는 민중아 슬퍼 말어라  
짓밟힌 동포야 일어 나가라  
판가리싸움에 이 몸 바치니  
사나이 총검이 분노에 운다

무도한 왜적들을 쳐물리치고  
동주성 완월루에 다시 올라서  
목청껏 독립만세 높이 부르자  
무산민중 새 사회 세워 나가자

아지랑이 피는 봄동산에 불어 오는 혼풍과도 같이 완월루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선생님의 시구절은 공영의 가슴속에 격랑을 일으키며 산악 같은 힘을 안겨 주었다.

공영은 존경과 경모로 한껏 달아 오른 가슴에 두손을 모아 잡고 선생님을 우러렸다.

《선생님, 정말 나라가 독립되는 날 우리 벽동 땅에 오시겠습니까?》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작별을 서러워 하는 공영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시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공영이 있는 곳이면 이 세상 한끝에라도 찾아가겠소.》

공영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공공 갑자기 그만 하며 물기어린 두눈을 습벅이었다.

...

(그런데 내가 오늘 무슨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실 없는 분노는 엄청난 후과를 낳는다고 선생님께서 늘 가르쳐 주시었는데 그 말씀을 명심하지 않고 타산이 없이 경계망동하며 선생님을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나는 최문식이보다 못한 놈이다.)

공영은 자기자신이 끝없이 저주스러웠다.

화투의 어장과 마장을 불러대던 놈들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갑자기 미친개처럼 달라붙어 싸움질을 벌렸다.

걸상이 자빠지는 소리가 나고 그릇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개자식, 고기를 처먹었으면 똥이 뻘뻘귀에까지 눈독을 들어? 이놈! 이놈, 죽어 봐라.》

약담배에 취해 졸고 있던 구의놈이 표독스러운 눈길로 채찍을 들고 일어 섰다.

이어 사이문 건너편에서 채찍 휘두르는 소리가 나고 줄개들의 아우성소리가 울려 나왔다.

공영은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번쩍 들고 박진영을 바라보며 선생님을 모시고 빨리 빠져 나가라고 눈짓을 했다.

박진영은 공영의 의도를 알아 차리고 서두르기

시작하였다.

공영은 있는 힘을 다하여 두팔에 힘을 주었으나 두손을 묶은 바줄은 살가죽을 파고 들며 뼈까지 부스러뜨리는것 같았다.

박진영이가 달려 왔다.

공영은 노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 보며 엄하게 말하였다.

《시간이 없소. 빨리! 선생님을 모시고 팔도구쪽으로 가요.

그리고 무송쪽은 당분간 단념하도록 선생님께 말씀드려주요.》

박진영은 눈물을 머금고 돌아 섰다.

공영은 다시 두팔에 힘을 주었다.

한번... 또 한번...

박진영이가 선생님을 등에 업고 출입문을 금방 벗어났을 때였다.

사이문이 확 열리며 아직 분이 삭지 않아 씨근덕 거리는 구의놈의 사나운 물결이 드러났다.

놈은 대번에 눈이 둥그래 졌다.

《도망 간다! 서라!》

순간 초인간적인 힘이 솟아 올랐다.

구렁이처럼 공영의 손목을 휘감았던 바줄이 더는 장사같은 그의 힘을 이겨 내지 못하고 툭 끊어져나갔다.

구의놈은 총알에 설맞은 메돼지처럼 공영에게로 달려들었다.

공영은 살창속을 벗어 난 호랑이처럼 구의놈을 이마로 받아 넘기고 배허벅아래를 모두발로 힘껏 걷어쳤다.

발끝에서 무엇이 터져 나가는 소리가 났다.

공영은 썩은 나무통처럼 나자빠지는 구의놈을 밀어 제끼고 사이문을 살같이 날아 넘으며 등불을 손칼로 쳐버리었다.

아비규환을 이룬 캄캄한 방안에서는 한동안 혼잡함이 일어 났다.

아우성소리, 비명소리...

한편 출입문을 빠져 나온 박진영은 어지러운 소음이 들려 오는 뒤를 돌아 보며 끝안을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바람이 불어 왔다.

차거운 눈보라는 박진영의 자취를 흔적도 없이 쓸어갔다.

총소리가 울리었다.

박진영은 걸음을 주춤 멈추었으나 이를 악물고 다시 찌리꼴찌기의 소로길을 내달리기 시작하였다.

×

공영이가 맨주먹으로 아홉놈을 쳐갈기고 경비막사를 뛰쳐 나왔을 때 총소리가 울렸다.

여기저기 남아있던 잔당들이 쥐새끼처럼 소굴에서 쏘아 나왔다.

공영은 어둠속에 잠긴 소로길쪽을 돌아 보고나서 반대편 룡선으로 방향을 잡았다.

《공영이 여기 있다! 똬질 놈은 여기로 오라!》

귀뿌리를 스치며 총알이 날아 왔다.

총소리, 고함소리...

공영은 사방에서 달려 드는 놈들을 하나하나 세어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고나서 바위산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이마가 몹시 쓰리고 아팠다.

조심히 상처자리를 더듬어 보니 두곳에나 손톱에 긁힌 자리가 길게 났다.

《개자식, 화냥년들처럼 굼기까지 했구나...젠장, 하필이면 흥측하게 얼굴을 굼히울건 뭐람. 선생님 보시면 또 걱정하겠는데... 쫓쫓.》

공영은 상처가 쓰리고 아팠으나 방금전에 죽는 시늉을 하던 구의놈의 물결이 생각나 피식 웃고 말았다.

공영은 이짚으로 침을 짖 갈기고나서 놈들이 들으라고 잡관목들을 와락와락 헤치며 달리기 시작하였다.

고개를 넘고 숲을 헤치며 나지막한 둔덕에 이르렀을 때였다.

너렁청한 공지에 나서니 발밑에 아득한 벼랑이 놓여있었다.

공영은 당황해 진 눈길로 사방을 둘러 보았으나 빠져 나갈곳이 없었다.

지나온 산골이에서 총소리가 울려 오고 숲 가까이에서 놈들의 인척기가 들려 왔다.

공영은 발밑에서 굵은 나무토막을 집어 들었다.

차츰 마음이 가라앉았다.

공영은 선생님이 가시는 팔도구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다.

저 별처럼 한생을 살자던 자신이었다.

달미천, 완월루, 팔도구와 무송...

캄캄하던 인생길에 빛을 주고 열정을 주며 불변 궤도에 세워주신 크나큰 사랑속에서 희열에 넘쳐 살아본 나날들이었다.

(선생님은 무사하실가? 혹시 지금쯤 내 걱정을 하고 계실지도 몰라... 내가 여기서 싸우다 쓰러지면 선생님은 우실거야.

건강도 좋지 못하신데 내 일때문에 몸져 앓아 누우시면 어쩐다?...)

왜서인지 코마루가 시큰해 오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선생님! 부디 건강하시여 조선독립을 이룩해 주십시오.)

갑자기 사위가 고요해 졌다.

공영은 정신을 가다듬고 주위를 살펴 보았다.

총소리도 고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놈들이 혹시 선생님께로?)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고자누룩한 정적은 불길한 예감이 공영의 피부속에 갈마들게 하였다.

후두둑 심장이 뛰고 피가 꺼꾸로 솟구쳐 올랐다.

《이놈들아!》

공영은 정신없이 소리치며 산굽이를 되짚어 내리기 시작하였다.

숲을 벗어 나니 캄캄하던 마적소굴에서 화광이 충천하였다.

공영은 부지불식간에 일어 난 사태앞에서 한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이때였다.

바위틈에서 검은 형체가 뛰쳐 나오며 반갑게 소리쳤다.

《공영군!》

박진영이었다.

공영은 몇달만에 다시 만난것처럼 반가웠으나 언제 그럴 경황이 없었다.

《선생님께서 어디 계시오?》

공영이 다그쳐대는 말에 박진영은 어깨가 처져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프직프직 그간 있는 일을 자초지종 이야기하였다.

...

박진영이가 김형직선생님을 등에 업고 찌리꼴 안을 벗어나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 의식을 차리시였다.

박진영의 급한 정황설명을 다 듣고나신 선생님께서는 이윽도록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결연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나를 생각하는 동무들의 마음을 왜 모르겠소.

나는 독립운동의 길에 나설 때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원수들에게 맞아 죽을수도 있다는 각오를 가지였소. 최문식이 어떤 동무요.

그는 온 가족을 왜놈들때문에 잃은 사람ियो.

하나밖에 없는 누이동생마저 왜놈의 칼밑에 쓰러졌을 때 울부짖던 그날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전을 울리는것 같소.

지금 우리 인민들의 처지는 누구나 최문식의 가정과 다를바 없소.

그런데 내가 몸이 아프고 정황이 급하다고 잠시나마 그런 동무를 외면할수 있겠소.

그는 지금 자신을 위우치며 그 어느 때보다 동지들을 그리워하고있을게요.

우리는 이 길에서 백번 쓰러졌다 다시 일어난다해도 기어이 최문식에게 가야 하오.

진영군, 동지에 대한 믿음은 시작도 신념이고 끝도 신념이 있어야 하오.》

《선생님.》

박진영은 솟구쳐 오르는 걱정을 억누르며 선생님의 언문을 달아오른 가슴으로 더 억세게 감싸안았다.

《진영군! 처음 평동양에게 끌려 왔을 때 놈들

의 말을 들으니 구의놈이 왜놈들과 결탁하여 우리들을 팔아 먹으려고 하는것 같소. 그 마적들을 한갓 좀도적으로만 생각하는 공영에게 이제 무슨 일이 있겠는지 모르겠소.

마을에 내려 갔던 놈들이 돌아 서기전에 이곳을 벗어 나야 하오.

빨리 가서 공영의 행처를 찾아 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돌아 오오.》

너무도 절절한 선생님의 말씀은 박진영의 심금을 울리였으나 그는 움켜 쥔 주먹으로 눈굽을 닦으며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못 가겠습니다. 공영군은 우리가 다 잘못되여도 선생님만은 꼭 무사해야 한다면 민족의 운명이, 나라의 독립이 선생님을 보위하는데 달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박진영을 쉽게 떠나보낼수 없는것이 안타까우시여 천나무에 의지하여 몸을 일으키신 다음 총소리가 콩 튀듯 하는 바위산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였다.

...

박진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였소.

<공영이 없으면 김형직이도 없고 동무들이 없으면 나라의 독립도 못하오.> 그러시면서 자신은 가독령너머 골짜기에서 기다릴테니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자꾸 등을 떠미는통에... 그런데 내가 선생님과 헤어져 바위산으로 오를 때 마적소굴에 불이 달리기 시작하는것이 아니겠소. 불길은 바람을 타고 삼시간에 골안을 불 바다로 만들었소.

나는 불길속에서 피륙 해불을 드신 선생님의 모습을 알아 보는 순간 비로소 선생님의 의도를 알아 차리고 산아래로 마구 달려 갔으나 선생님은 이미 찾을길 없었소.》

《에이!》

공영은 주먹이 터지게 나무통을 쳤다.

나무가지우에 쌓여 있던 눈이 사태처럼 공영의 머리우에 쏟아져내렸다.

(꽃속에서 꽃향기를 모른다고 선생님의 뜨거운 사랑속에서 그이의 원대한 지원의 뜻을 배우면서도 투정많은 철부지처럼 살았으니 이 죄를 무엇으로 씻는단 말인가.)

공영은 시샘 많은 아낙네들처럼 최문식이와 너무도 쉽게 절교를 선포한 자신이 더없이 부끄러웠다.

공영은 선생님께서 태평양과 대서양의 무한한 물은 산곡간의 적은 물이 회합함이라고 하셨지만 그 물도 자기가 안길 바다라는 크나큰 품이 없다면 시궁창의 물처럼 썩어 버리고 말것이라고 생각 하였다.

(그래, 나는 그 바다를 찾아 지칠줄 모르고 흐르는 시내물처럼 살아도 죽어도 영원히 김형직선

생님의 충신으로 살리라.)

불쑥 김형직선생님이 더욱 그림고 뵈고 싶어 졌다.

공영은 박진영과 함께 김형직선생님께서 기다리시겠다고 약속한 가독령너머 골짜기를 향하여 발걸음을 다그쳤다.

서로 말 한마디 없었으나 마음속으로는 오로지 선생님의 안녕만을 애 타게 바라고 바랐다.

미명속에 샷갓처럼 생긴 동쪽산마루가 거만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이 가독령을 넘어 골안으로 한참 내리고 있을 때였다.

가문비나무숲에서 나무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텅... 텅...

박진영은 걸음을 멈추고 긴장해 진 얼굴로 공영을 돌아 보았다.

순간 공영의 가슴속에서는 육감이 가져다 주는 세찬 울림이 심장에 메아리쳐 왔다.

(선생님이 무사하시구나. 선생님!)

공영은 어린 시절 눈에 묻힌 길을 헛갈릴가봐 캄캄한 밤 호랑이가 나온다는 고개마루에 서서 아들을 부르고 부르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공영은 정신없이 그 부름소리가 울려 나오는 골짜기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발밑에서 마른 삭정이가 부러지는 소리가 숲의 정적을 깨치고 방금 단잠에서 깨어난 산새들이 사방에서 날개들을 쳤으나 공영은 전혀 그 모든 것을 의식하지 못하였다.

무엇이 앞길을 가로 막았다.

진대나무통이었다.

공영은 에돌아 가는 길을 찾을념도 하지 않고 단숨에 뛰어 넘었다.

《선생님!》

박진영의 부름소리가 뒤전에서 들려 왔다.

눈길을 들어 산뒀을 살펴 보니 산기슭에 흰 두루마기를 단정하게 입으신 김형직선생님께서 한 손에 나무지팡이를 짚고 서계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무릎까지 빠지는 솟눈길을 헤치며 골짜기를 가로 질러 오신다.

공영은 두팔을 내저으며 선생님을 목청껏 불렀으나 웬일인지 소리가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두다리만은 생각이 미치지 않아도 전장을 달리는 말발굽과도 같이 공영의 온몸과 뒀을 실어 가고 있었다.

갑자기 눈앞에서 무수한 별찌가 흩어 졌다.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흰 장막이 눈앞을 가리웠다.

공영은 자기가 지금 나무그루터기에 걸려 눈속에 넘어 진채 허우적거린다는것을 모르고 있었다.

오직 그의 마음은 김형직선생님에게로만 달리고 있었던것이다.

《선생님!》

드디어 뜨거운 용암을 뿜어 올리듯 가슴속에서 끓어 넘치던 걱정이 분화구를 터치며 울려 나왔다.

《공영군!》

정겨운 부름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무수한 산발너머로 멀리멀리 메아리쳐 가는듯 했다.

달 밝은 달미천가에서부터 귀에 익힌 목소리였다.

아니, 그때보다 더 박동이 높은 심장만이 감수할수 있는 동지를 부르는 위대한 사랑의 메아리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지팡이를 버리시고 두팔을 한껏 벌리신다.

공영은 헉헉 흐느끼며 그리움에 한껏 단 온몸을 김형직선생님의 품에 맡겨 버렸다.

《선생님!》

공영은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달려 올 최문식을 생각했다.

아니, 그 부르심 따라 독립성전에 떨쳐 나설 단합된 민족의 래일을 보고 있었다.

김형직선생님의 안광에 함뿔 밝은 미소가 어리였다.

새날이 밝아 오고 있었다.

백두산쪽에서부터 시작된 려명은 련련히 뻗어간 산발들을 주홍색으로 물 들이며 이 땅에 드리워 있던 어둠을 몰아 내고 있었다.

## 세계성구속담

### 여성

눈물은 녀자의 웅변술이다.(프랑스)

말을 늘어 놓는것이 주부가 아니라 음식을 끓이는것이 주부다.(로씨야)

마을안에 부지런한 아낙네가 있으면 온 동리 처녀들이 모두 일찍 일어 난다.(중국)

세상에는 미덕을 갖춘 녀인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다.(아랍)

한 아낙네가 두집의 밥을 먹지 말라.(중국)

아낙네 열이 모이면 재판정과 같다.(인디아)

아름답기는 하나 덕이 없는 련인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술과 같다.(도이쉴란드)

## 수령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버지는 한생을 나라를 위해 살을 저미고 뼈를 깎다가 돌아갔다. 거둬되는 악형과 동상으로 몸에 치명상을 입었을 때에도 굴함을 모르고 민중을 찾아가고 동지들을 찾아가던 아버지였다. 힘이 진하면 지팡이를 짚고 배가 고프면 생논을 움켜 삼키면서도 뒤를 돌아보거나 주춤거리지 않고 곧장 앞으로만 걸어가던 아버지였다.

우리 아버지는 한평생 어느 당파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추구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나라의 광복과 근로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한몸을 서슴없이 바치였다. 아버지에게는 물욕도 없었고 사리 사욕도 없었다. 돈이 생기면 자식들에게 사랑을 사먹이고 싶어도 꼭 참고 한푼두푼 모아서 풍금을 사다가 학교에 기부하였다. 자기를 생각하기에 앞서 겨레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기에 앞서 조국을 먼저 생각하며 찬바람을 맞받아 일생을 쉬임없이 걸어간 아버지였다. 인간으로서도 청렴하게 살았고 혁명가로서도 결백하게 살았다.》

## 영원히 푸르를 조선의 나무여

문용철

봄을 맞은 만경봉

푸르려 설레이는

한그루 소나무줄기우에 손 짚고

내 지금 섰노라

푸른 소나무

조용히 불러만 보아도

가슴 뜨거이 어려 오는

김형직선생님의 한생이여

아지우에 푸르른 저 잎새

쭈뼌이 모아 쥐면

《지원》의 글발을 써가시던

그날의 붓필이 될듯-

설레이며 잠 못드는

저 술바람소리는

양춘을 부르던

푸른 소나무의 노래런듯

선생님의 한생과 더불어

세월은 돌기돌기

년륜을 감았어도

《지원》의 그 넋은

불굴하는 이 나라의 모습속에

살아 고동치고 있나니

보아라

시련의 눈보라를 헤치고

강성대국으로 일떠서는

내 조국의 기상은

눈서리에 파묻혀도 새봄을 부르는

푸른 소나무의 그 기상

저 해빛 밝은 교정에선

우리의 어린것들이

푸른 소나무의 노래 부르며

애국과 신념의 애슬포기로

키돋움해 자라고

전선산발

병사들의 고지마다

두자루의 권총으로 시작된

천만 총검들이

선군의 숲이 되어

푸르려 설레이나니

아, 찬란한 선군태양의 빛발아래

푸르른 소나무여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너는 영원한

조선의 기상으로 푸르려 설레이리라



## 선군혁명문학은 주체사실주의문학발전의 높은 단계이다

방형찬

선군시대는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펼쳐진 혁명의 새 시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체의 선군 사상을 밝혀 주시고 선군령도로 혁명의 새 시대, 선군시대를 펼쳐 놓으시었다. 우리는 오늘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총대철학이 구현된 선군정치와 진리성과 독창성, 거대한 생활력이 발휘되고 있는 선군시대에 살며 투쟁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문학예술은 격동하는 시대의 역사적흐름을 힘있게 선도함으로써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그 어떤 문학도 자기 시대를 뛰어 넘을수는 없다. 역사발전의 매 시대는 문학예술앞에 그에 맞는 요구를 제기한다. 문학예술은 마땅히 시대와 함께 전진하여야 하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선도하여야 한다. 시대의 전진에 앞장서 나가며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투쟁을 선도하는 문학예술이라야 생활의 참된 교과서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키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19세기 빠리콤문문학은 로동계급의 계급적해방을 선도하는것으로써 해당 시대를 노래했고 20세기 초 로씨야의 10월혁명문학은 사회주의혁명을 선도하면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출현과 전파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시대는 끊임없이 전진하며 그에 따라 문학에 대한 시대적요구가 부단히 변화되는것은 누구도 막을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다.

항일혁명문학을 시원으로 하고 있는 우리 주체문학은 선군시대를 맞이하여 주체사실주의문학의 새로운 단계에 올라 선 새형의 문학, 선군혁명문학으로 발전하였다. 선군혁명문학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와 산물이며 선군정치의 무기이다.

지금까지의 문학사에서 선군혁명문학처럼 자기의 사명에 대한 투철한 자각, 혁명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조국과 민족에 대한 한 없는 사랑,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충만된 문학은 찾아 볼수 없다.

우리 민족사상 처음으로 되는 가장 비통한 대국상으로 하여 하늘도 땅도 산천초목도 비분에 떨고 오열로 몸부림치던 주체83(1994)년 7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오늘도 우리 인민들과 함께 계신다는 가슴 뜨거운 말씀을 하시었다.

인민들은 피눈물을 삼키며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에로 분연히 일떠섰으며 백두산장군께서 높이 추켜 드신 선군혁명의 기치 따라 력사의 새 시대를 향하여 힘찬 진군을 개시하였다.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로 우리 혁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을 헤아리시며 선군혁명문학이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무궁토록 칭송하는 수령영생문학으로 첫 걸음을 떼도록 이끌어 주시었다.

우리 작가들은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를 창작하여 피눈물속에 웅근 한해를 보낸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수령영생 문학의 참모습을 보여주었다.

가사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그리고 《높이 들자 붉은기》를 비롯한 수령영생시가들과 추모설화집 《하늘도 울고 땅도 운다》, 추모시집에 이어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영생》이 창작발표되어 수령영생문학의 새장을 펼치었다.

수령영생문학의 출현은 주체사실주의문학발전에서 특출한 지위를 차지하는 가장 귀중한 문학적성과이다. 그것은 수령영생문학이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으로 되는 수령형상창조의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 선 문학이며 주체사실주의의 높은 단계로 되는 선군혁명문학의 사상미학적기초를 밝혀 주는 문학이기때문이다.

수령영생문학의 본질적특징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요구를 최상의 높이에서 훌륭히 구현하였다는데 있다. 수령영생문학은 보다 단수가 높고 철학성이 있으며 폭 넓은 구성과 주체적대가 확고히 선 문학이며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수령형상창조의 고유한 생리에 맞게 최상의 경지에서 훌륭히 구현한 문학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를 아주 잘 썼다고, 시인이 담이 크고 사상이 결백하며 정서가 풍부하다고 하시면서 수령영생문학의 본보기작품으로 내세워 주시었다.

수령영생문학은 선군혁명문학의 시원으로, 원줄기로 되며 그 개화발전의 전망을 제시하는 리정표로 된다. 그것은 선군시대가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

해나가는것을 지상의 요구로 내세우고 있는 시대이기때문이다.

수령영생문학을 기본으로 하는 선군혁명문학은 서사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와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 그리고 추모작품집 《영원한 태양》, 추모시집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아동문학추모작품집 《영원히 함께 계세요》를 비롯한 영생주체의 작품들과 함께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인 《붉은 산줄기》, 《개선》, 《푸른 산악》, 《열병광장》, 《번영의 길》 등 수령형상작품들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을 천세 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훌륭히 반영하였다.

선군혁명문학이 이룩한 이와 같은 성과는 수령영생문학이 주체사실주의문학의 어제와 오늘은 물론 래일까지 영원히 대표하는 우리 당의 문학, 태양민족의 문학이라는것을 남김없이 확인하고 있다.

선군혁명문학은 선군혁명령도로 불멸의 로고를 바쳐 가시는 천출명장 백두산장군의 숭엄한 영상을 끝없이 흠모하는 전 인민적감정에 대한 진실한 반영을 최상의 파제로 내세우고 있는 문학이다.

그러므로 선군혁명문학은 《고난의 행군》의 나날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를 비롯한 여러 시가작품들을 창작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선군혁명을 진두에서 이끌어 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전 인민적송배심과 열렬한 흠모의 감정을 진실하게 노래하였다. 이어서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화 같은 흠모의 정을 담아 련시 《전선길에 해가 솟는다》, 송년시 《눈이 내린다》, 《잊을수 없어라 1998년이며》, 서정시 《철령》, 장시 《우리의 령도자》, 시 《10월의 환희》, 가사 《흰 눈 덮인 고향집》, 《2월은 봄입니다》,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을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선군시대의 영웅적현실은 소설가들의 창작적사색의 세계에 드세찬 격랑을 불러 일으켰다. 소설가들은 창작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날을 맞으며 전례없이 짧은 기간내에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인 《력사의 대화》, 《전환》, 《서해전역》, 《비약의 나래》, 《총검을 들고》, 《강계정신》, 《별의 세계》, 《계승자》 등을 창작발표하여 선군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경애하는장군님의 위대한 영상을 서사적화폭속에 정중히 모시었다. 선군혁명문학이 백두산장군의 위대한 형상을 창조하는 사업을 줄기차게 발전시켜 나간것은 주체문학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대한 빛나는 구현이었으며 백두산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계승완성의 합법칙적과정에 대한 사실주의적반영의 필연적귀결이었다.

선군혁명문학은 주체사실주의문학발전의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 선 문학이다.

그것은 선군혁명문학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가장 투철하게 구현하고 있는 문학이기때문이다.

선군혁명문학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직접적이며 집중적인 발현으로 되는 혁명적군인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는 문학이며 혁명적군인정신이 충만된 문학이다.

선군혁명문학은 새 시대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인간문제를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해결함으로써 주체사실주의의 높은 경지를 개척하였다.

주체의 선군사상이 밝혀 주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회적문제, 인간문제는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기 위한 투쟁문제이다. 그러므로 선군혁명문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문제, 특히 지배와 예속을 강요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의 정치군사적대결전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문제로 보고 거기에 형상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문제는 곧 나라와 민족의 운명문제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문제는 선군혁명문학이 제기하고 있는 기본문제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국주의자들의 오만과 전횡이 살판치고 있는 오늘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앞에 나서는 초미의 문제이기도 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는 불멸의 공적을 이룩하시여 온 세상의 경탄을 불러 일으키시었다.

선군혁명문학은 준엄한 력사의 대하를 체험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문제를 기본문제로 제기하고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조국도 민족도 있고 우리 식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상을 천명하였다. 이것은 주체사실주의문학의 높은 경지에 올라 선 선군혁명문학의 철학적심오성을 담보하고 있다.

선군혁명문학이 주체사실주의문학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로 되는것은 또한 자주적인간전형창조에서 제기되는 주체사실주의의 미학적요구를 가장 원숙하게 구현하고 있는것과 관련된다.

해당 력사적단계에서 어떤 인간을 형상의 중심에 내세우는가 그리고 어떻게 형상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문학의 사상에술적가치평가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문학이 인간과 그의 생활을 그리는 인간학이기때문이다.

선군혁명문학은 혁명적군인정신을 체현하고있는 인간을 형상의 중심에 세우고 시대의 전형으로 그리고 있다. 선군시대의 주인공들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 선 사람들이며 세기를 주름 잡는 비

약의 폭풍을 일으켜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창조와 혁신을 일으키는 영웅적 인간들이다. 이러한 인간들의 본질적인 특징은 집단주의적생명관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살며 투쟁한다는데 있다.

개인의 생명과 사회와 집단의 운명과의 호상관계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는가 하는것은 사회정치생활에서도 초미의 문제일뿐아니라 문학의 형상창조에서는 언제나 초점으로 되는 문제이다.

부르조아문학에서는 개인의 생명을 우위에 놓고 절대화하면서 그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를 합리화한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에서는 개인의 생명을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는데 아름다움이 있다고 보고 형상하지만 주체사실주의문학에서는 사회정치적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해명에 기초하여 개인의 생명보다 집단의 생명이너 귀중하다는 집단주의적생명관을 내세운다.

주체사실주의의 높은 단계에 올라 선 선군혁명문학은 사회정치적생명체에 영원히 자기 운명을 맡기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싸우는 인간들을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의 체현자로 형상한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총검을 들고》는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들이며 안변청년발전소년전사들인 인민군전사들의 형상을 시대의 전형으로 훌륭히 창조하였다.

선군혁명문학은 집단주의적생명관의 체현자들을 형상의 중심에 세웠을뿐아니라 그 형상화과정에서도 주체사실주의문학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하였다.

주체사실주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현실을 보고 그리는 창작방법이다. 선군혁명문학은 환경과 성격과의 호상관계에서 환경을 지배하고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인간성격창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환경을 지배하고 개척한다는것은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며 자기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맞게 새 생활을 창조하여 나간다는 의미이다.

선군혁명문학은 사상적으로 위력하고 창조적능력으로 하여 힘있는 사회적인간, 시대의 영웅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생활창조의 측면에 초점을 집중하여 형상한다.

종래의 사실주의문학에서는 환경과 성격의 통일을 중시하면서 많은 경우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인간에 대한 객관적묘사에서 진실성구현의 방도를 찾았었다. 물론 환경과 성격과의 통일에서 성격의 능동적작용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환경과 성격의 통일에 대한 객관적인 반영은 언제나 견지해 온 원칙이었다.

그러나 주체사실주의의 높은 단계에 올라선 선군혁명문학은 인간성격의 자주적본성과 창조성, 의식성의 위력을 중시하며 자기의 운명개척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진실하게 그리는데

형상의 초점을 두고 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총검을 들고》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담력을 심장으로 받들어 나가는 군인들의 형상을 이채롭게 창조하고 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강계정신》, 《비약의 나래》 그리고 비전향장기수들을 원형으로 하고 있는 장편소설들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정치적생명의 귀중함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환경의 지배력앞에 희생적으로 도전하여 마침내 승리하고 환경의 지배자, 자기 운명개척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인간들이다. 이러한 인간형상들은 선군혁명문학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데서 결정적요인은 사상의식이라는 정의를 인물형상창조에서 훌륭히 구현하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 준다. 이것은 인간전형창조에서 이룩한 선군혁명문학의 귀중한 성과이다.

선군혁명문학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정서적으로 안받침하기 위한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대한 충실성으로 하여 주체사실주의의 높은 단계에 올라 설수 있었다.

선군정치를 정서적으로 안받침하는데서 혁명적인 시가문학은 다른 문학형태들보다 특출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가문학은 해당 시대의 정서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주도적인것을 서정화하여 시적으로 일반화함으로써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선도하며 고무추동한다.

시대의 생활정서는 시대의 세계관에 기초한다. 시대의 세계관은 시대정신을 규제하며 시대의 지향과 요구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선군시대의 정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신념, 담력과 배짱으로 약동하는 백두산의 정서로 상징된다. 백두산의 정서, 그것은 백두대산줄기를 거느리는 조종의 산 백두산을 우러르며 장구한 세월 귀중히 간직해 온 민족고유의 숭엄한 정서이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백두령봉에서 높이 추켜 드신 주체혁명의 기치, 붉은기의 정서이며 그 어떤 풍랑과 퇴성벽력에도 끄떡하지 않고 천리수해우에 숭엄하게 솟아 누리를 굽어 보는 백두산마냥 긍지와 자부심으로 세계에 빛을 뿌리는 주체조선의 정서이다. 한마디로 백두산의 정서는 백두산3대장군의 사상과 담력, 기상으로 충만된 선군시대의 혁명정서이다.

시대의 기본정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내용들에 반영되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생활의 다양성과 풍부성으로 하여 조건 지어 지는 합법칙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그 모든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내용들은 하나같이 시대의 지향과 요구에 대한 정서적안받침이라는 뚜렷한 목적으로 일관되어 있다. 선군시대의 기본정서도 다양한 생활내용들로 표현되는데 그 모든것은 선군정치에 대한

정서적안받침이라는 뚜렷한 지향에서는 언제나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가사 《우리 집은 군인가정》, 《우리는 맹세한다》, 《대흥단 삼천리》, 시조 《강원땅의 새 노래》, 서사시 《력사의 숨길》, 《조국이며 청년들을 자랑하라》를 비롯한 선군시대의 시가문학은 군대와 인민들의 주도적감정을 풍부하고 다양한 생활내용에 의거하여 개성적으로 노래함으로써 선군정치를 정서적으로 안받침하는데 이바지한 쇠소리나는 명작들인것이다.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만 믿고 오늘의 난관을 뚫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고 행복한 생활을 창조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선군혁명의 영웅적현실을 체험하며 간직하였으며 그 신념을 노래한 가사 《우리는 잊지 않으리》, 《승리의 길》을 기념비적명작으로 창작하였다. 특히 가사에서 노래한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구절은 선군정치가 곧 승리의 길이라는 신념에 대한 시적 표현으로서 시대와 인간, 력사와 미래와의 련관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혁명적 인생관을 새롭게 가다듬게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혁명의 나날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는 시대의 혁명적인생관을 밝혀주시였으며 강성대국건설이라는 빛나는 전망을 혁명의 앞길에 펼쳐 놓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혁명적인생관은 전체 군대와 인민의 인생관으로 되었으며 그에 기초한 시대의 정서는 백두산의 정서로 승화되어 거세차게 파도쳐 나갔다.

선군혁명시대의 정서를 담고 있으면서도 전통적인 민족고유의 형식을 결합시킨 가사 《강성부흥아리랑》의 출현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한 우리 인민들을 끝없이 격동시키였다. 《강성부흥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멋과 시대의 맛을 흥취나게 노래함으로써 선군정치를 정서적으로 안받침하는데서 특출한 기여를 한 명작이다.

선군혁명시대의 정서 《강성부흥아리랑》의 정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심고 가꾸어 주신 정서이다. 시대가 공감하고 인민이 환호하는 우리의 시가문학은 선군시대를 선도하며 선군정치를 정서적으로 안받침하는 군가와 같다. 이 땅에서 설움의 아리랑, 눈물의 아리랑은 영원히 막을 내리고 《강성부흥아리랑》, 《군민아리랑》, 《통일아리랑》이 개화만발하는것은 선군혁명문학발전의 합법칙적인 과정이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의 선군사상에 기초하고 아리랑민족의 고유한 정서로 충만되어 있는것이 선군혁명문학의 본성이고 선군정치를 정서적으로 안받침하는것이 선군혁명문학의 근본사명과

임무이라는것을 보여 준다. 동시에 그것은 선군혁명문학이 개척한 주체사실주의의 새로운 경지를 확인한다.

선군혁명문학은 선군정치가 구현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문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선군혁명문학은 생활소재와 주제령역에서 한계가 없으며 선군시대에 창조된 문학 전체를 포괄한다.

선군혁명문학은 오늘날아니라 우리 혁명의 미래까지 대표하는 문학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학의 력사는 시대에 따라서 출현하는 이러저러한 문학사조들의 교체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선군혁명문학은 시대와 함께 출현하고 조락하는 문학사조들과는 구별되는 특출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선군혁명문학은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전 력사적과정에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문학이다. 그것은 선군혁명문학의 지도사상인 주체의 선군사상의 영원한 생명력과 관련된다. 주체의 선군사상은 눈앞의 자연재해나 적들의 압력과 봉쇄를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인 선택이나 림기응변이 아니라 백두산총대로 조선혁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을 관통시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기어이 실현함으로써 보다 휘황한 민족의 미래를 앞당겨 오려는 백두산장군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그러므로 주체의 선군사상은 준엄한 오늘의 현실에서 간고한 사회주의 수호전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사상인 동시에 그 최후승리의 전 력사적과정에서 유일하게 확고히 견지해야 할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이다.

이것은 선군정치가 오늘의 준엄한 투쟁, 사회주의수호전의 출발점인 동시에 최후승리의 리정표라는것을 밝혀 준다.

주체의 선군사상, 선군정치의 위대성과 진리성은 그대로 선군혁명문학의 위대성과 진리성을 확증하는것으로 된다. 선군혁명문학은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사회주의수호전에 펼쳐 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고무하는 오늘의 문학일뿐아니라 최후승리를 위한 앞날에도 영원히 시대를 대표하는 우리 당의 문학, 태양민족의 문학으로서의 리정표로 된다.

선군혁명문학은 그의 발생, 발전의 력사적과정의 견지에서 보나 사상미학적특성의 견지에서 보나 주체사실주의문학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 선 문학이라는것이 명백하다.

력사는 위대한 사상이 위대한 시대를 낳았으며 위대한 령도가 위대한 문학을 창조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주체85(1996)년 4월 26일 고전적로작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를 발표하시고 작가들의 명작창작투를 지도하여 주시였다. 선군혁명문학령도실록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1,000여편의 작품지도를 비롯하여 410여차례 770여건에 달하는 문학운동에 대한 정도사적이 뜻 깊게 아로새겨져 있다.(이 놀라운 수자는 격동의 6년기간에 한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4(1995)년 설날아침 다박술초소를 찾으셨던 때로부터 철령의 험한 산길, 오성산, 대덕산의 험준한 전선길을 끝없이 이어 가시는 나날에도 명작창작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가들에게 순결한 량심과 신념을 가지고 창작할데 대하여 따듯이 일깨워 주시였으며 그들이 창작한 작품을 친히 보아 주시고 제목과 표현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기념비적명작으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몸소 다듬어 주시었다. 그리하여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력사의 대화》는 조미핵대결전을 깊이 있게 형상한 명작으로 완성될수 있었으며 가사 《우리 집은 군인가정》, 《내 한생 안겨 사는 품》, 서사시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는 쇠소리나는 작품으로 주체의 선군혁명문학의 화원에 뚜렷이 자리 잡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선길에서까지 녀성시인들이 창작한 작품을 지도하여 주시는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으며 공로 있는 작가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창작하는 과정에 건강이 나빠 졌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작가들을 아껴야 한다시며 료양생활까지 조직하여 주시는 은정 깊은 사랑을 아낌없이 돌려 주시었다.

선군혁명문학의 력사에는 작가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대를 두고 전해 갈 전설로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가들이 정도자와 함께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당과 수령을 보위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한 쇠소리나는 글을 써내고 있다고 크나큰 믿음을 주시였으며 로동계급출신의 젊은 시인들이 좋은 글을 많이 쓴것을 못내 대견하게 여기시며 세계적인 문호, 우리 당의 중군작가라고 높이 평가하여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우리 작가들은 백두산장군의 슬기와 용맹, 담력과 의지, 대스승의 비범한 예지, 숭고한 뜻을 온넋으로, 심장으로 감수하면서 시대의 명작들을 창작하였다. 그리하여 선군혁명문학은 백두산장군의 철학관, 미학관, 인생관을 투철하게 구현한 문학, 주체사실주의의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 선 문학으로 될수 있었다.

선군혁명문학의 창조과정은 정도자와 작가의 가장 숭고한 창작률리에 의하여서만 시대를 진감시키는 위대한 문학이 창조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정도자가 작가의 창작률리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창작적사색은 정도자의 사상과 의도대로, 현실체험은 정도자의 감정정서로, 창작과정은 정도자의 보폭과 숨결에 맞추는것이다.

선군혁명문학의 창조과정을 돌이켜 보면서 작가들은 명작창작의 비결에 대하여 《장군님으로부터 철학을 배웠고 력사의 법칙과 사물현상의 본질을 배웠으며 그것을 그대로 원고지우에 옮겨 놓았을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선군혁명문학창조자들이 체험을 통하여 심장깊이 새긴 고귀한 진실에 대한 토로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에서 종자를 찾고 위대한 장군님의 정도업적을 사상적내용으로 하며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예지에 의하여 사상에술적으로 높은 경지를 개척한 문학, 선군혁명문학은 명실공히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문학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선군혁명문학을 창조하게 된것은 우리 작가들에게 차례진 최대의 특전, 최대의 행운이다. 그리고 선군혁명문학을 마음껏 향유할수있게 된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의 영광이고 인류의 행복이다. 그것은 선군혁명문학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문학이며 자주화된 새 세계를 대표하는 문학, 21세기 인류문학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 주는 본보기이기때문이다.

## 명언해설

《인민대중은 가장 현명한 평론가이다.》

**김정일**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 동지의 이 명언에는 문학예술활동에서 언제나 인민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평가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인민대중은 문학예술의 창조자이며 향유자이다.

문학예술작품이 좋고 나쁜것을 가려 볼줄 아는 가장 현명한 선생은 인민대중이다. 작품의 사상예술성에 대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는 인민대중이 한다. 인민대중이 좋다면 좋은것이고 인민대중이 아름답다고 하면 아름다운것이다. 평론가는 작품이 잘되었다거나 잘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전에 대중의 의견을 들을줄 알아야 한다. 평론에서는 인민대중의 목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거기에 기초하여 최종결론을 지어야 한다.

## 우리의것

사영철

우리의것이라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땅과 하늘, 우리의 말과 글, 우리의 노래와 춤, 우리의 력사와 문화, 우리의 풍습과 전통, 이 모든것을 이르는 말일것이다. 보다 크게는 이 모든것을 안고 있는 우리 조국과 우리 혁명인것이다.

우리의것을 알고 그것을 사랑하라,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목숨 바쳐 지키라...

이런 생각은 나에게 까닭없이 떠오른것이 아니다.

어제 저녁, 우산장창작실에 나가 있다가 오래간만에 집에 들어 온 나에게 중학교에 다니는 딸아들이 인사말에 앞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우리 학급이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에 가게 됐어요.》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

내가 돌아 오기를 무척 기다렸던듯 인사말도 있고 그 말부터 꺼내는 아들애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천리길이 얼마나 먼가요?》

천리길에 대한 표상이 아리송한 모양이다. 하긴 그럴것이다. 시내에서 웬간한 거리는 뺄스를 타고 다니는데 습관된 아들애다.

거리단위에 대한 상식을 더듬던 나의 머리속에 문득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천리길... 《배움의 천리길》...

나는 과연 무엇을 말하자고 하는가. 거리단위에 대한 개념을? 그것이 《배움의 천리길》에 대하여 이 아버지가 아들애에게 해줄수 있는 말의 전부이겠는가?...

나의 이런 생각을 넘겨 짚기라도 한듯 아들애가 짜랑짜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배움의 천리길>은 대원수님께서 어르신 나이에 걸으신 길이지요?》

대답대신 머리만 끄덕이게 되었다.

《배움의 천리길》로부터 시작되어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걷고 또 걸으신 애국애족의 수억만리길이 눈앞에 어려 와 걱정을 누를수 없었다.

지금으로부터 80년전, 자기 나라의 글과 력사, 지리를 알고 일제의 발굽밑에서 신음하는 자기 조국과 인민을 알아야 한다고 하신 부모님들의 원대한 뜻을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 수령님께서 10대의 어르신 나이에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

그 천리길을 과연 두 나라 지경을 넘나든 거리의 리수로써 다 설명할수 있을가.

아니다. 거기에는 거리의 개념으로써는 다 말할수 없는 원대한 뜻과 우리의것-조국과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이 있다.

우리의것을 잘 아는것, 그것은 애국심의 기초이다. 우리의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것을 사랑할수도 없으며 그것을 지키고 꽃 피우기 위해 목숨 바쳐 투쟁할수 없다.

그렇다. 우리 수령님께서 10대의 어르신 나이에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은 바로 우리의것을 더 잘 알기 위해 걸으신 애국애족의 천리길이였다. 그 길이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우리의것을 되찾기 위한 《광복의 천리길》, 피어린 혈전만리길로 이어 지고 부강하고 번영하는 주체의 자주강국,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기 위한 위대한 헌신의 수천수만리길로 이어 진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의것을 위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쳐 걸어 오신 그 길이 오늘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길로 이어 지고 있다.

우리 공화국을 어찌보려고 달려 드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과 련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난관을 헤치며 우리가 걸어야 했던 《고난의 행군》 길, 강행군길.

그 시련에 찬 길을 진두에서 헤쳐 가시며 강성대국건설의 새 진군길을 열어 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천만리길.

진정 그이께서 걸으시는 선군혁명령도의 자욱자욱마다에는 우리의것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우리의것을 지키고 떨치려는 드팀 없는 신심과 의지가 맥맥히 흐르고 있어 우리 조국은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자기의 존엄을 더욱 높이 떨치고 있는것이다.

...나는 아들애에게 이것을 말해 주고 싶었다. 어떤 생각을 안고 그 길을 걸어야 하는가를.

그것을 어떻게 말해 줄것인가.

나는 이윽도록 창밖을 내다보다가 문득 안겨 드는것이 있어 아들애에게 그것을 가리켜 보였다.

《저길 봐라. 너희 중학교쪽을...》

《...》

학교청사에 큼직하게 써붙인 구호, 어느 학교에 가나 첫눈에 뜨이는 구호이다.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나는 아들애가 그것을 단순한 구호로가 아니라 생의 진리로 자자구구 심장에 새겨안기를 바라며 말머리를 떼었다.



## 세기를 이어 살고 있는 주인공들

김영근

### 1. 사나운 겨울속에 사는 뜨거운 주인공들

사상에술성이 높은 문학작품들은 오랜 세월이 흘러 가도 인민대중의 사랑속에 자기의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런 작품속에 그려진 주인공들은 세기를 이어 가며 독자들의 길동무로, 생활의 고무자로 살아 있는것이다.

소설가 리병수의 성과작들도 그러한 작품에 속한다고 말할수 있다.

21세기의 첫해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2002년의 설을 맞이한 날 우리 집에는 문학통신원 세명이 찾아 왔다. 내가 평양시내 문학통신원들앞에서 창작경험 강의를 한 이후부터 자주 찾아 오던 두 청년과 한 처녀였다. 그중 상고머리를 한 청년이 빌려 갔던 리병수단편집 《평북땅》을 들고 와서 나의 책장에 꽂아 넣으면서 《평북땅》과 《사나운 겨울》만 아니라 《설령의 딸》을 비롯한 다른 단편소설들도 다 재미가 있고 작가의 개성이 느껴 지는 작품들이라고 말하는것이였다. 그 상고머리청년의 말이 계기가 되여 그 단편집을 자기도 한번 더 보아야겠다면서 처녀가 책장에서 《평북땅》을 다시 뽑아 쥐자 려이어 리병수의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가 벌어 졌다.

《리병수선생의 단편소설 <사나운 겨울>은 확실히 잘 쓴 소설입니다. 립산지구의 하루생활을 놓고 여러 인물들을 그리면서도 다 개성이 뚜렷하게 형상하고 우리 사회에서 사는 인간들의 뜨겁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참으로 정이 가게 형상 하였습니다.》

고수머리청년의 말이였다.

《실로 독특하게 씌여진 개성적인 작품입니다. 근 10명의 인물을 그리면서도 부정인물은 하나도 없고... 그러다보니 구태여 갈등이라고 할것도 없이 썼는데 시종 재미 있고 인간들의 성격도 생동하고... 다 읽고 나면 나도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다는 충동이 일 정도로 인상이 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산간오지사람들의 생활과 자연에 대한 작가의 열렬한 사랑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상고머리청년의 응대였다.

《고산지대 립산마을에서만 있을수 있는 독특한 생활세부들을 작가가 많이 찾아 취고 생동하게 형상을 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산마루의 눈우에 떨어진 하나의 술방울이 굴러 내리면서 커다란 눈몽치로 이루어 지고 그 눈몽치가 나무에 부딪치여 수백개의 쪼각으로 갈라져서 다시 굴러 내

리며 집채 같은 눈덩이들로 커지고 드디어 엄혹한 눈사태를 일으키여 선로를 메우고 신혼부부가 오게 되어 있는 열차를 멈춰 세우는 등...

그리하여 술한 사람들이 선로열기작업에 동원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 장면과 화폭들을 비롯해서 작가의 발견으로 느껴 지는 생활세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녀의 말이였다.

《웁습니다. 작품의 앞부분에서 주인공 조사령이 딸을 세번이나 낳고 네번째 아이를 낳으려 친정집으로 간 안해가 또 딸을 낳았을것이라고, 그래서 집에 올 면목이 없어 아직 오지 않는것이라고 불만해 하는 설정과 신혼부부가 오는 열차에 그 안해가 아들 쌍둥이를 낳아 량팔에 안고 내림으로써 조사령이 환희의 절정에 오르는 후반부 장면 등 얼마나 독특한 세부들이니까.》

고수머리청년의 호응이였다.

《단편소설 <평북땅>도 잘 쓴 소설이더군요. 해발 1,000메터가 넘는 고산지대에서 다수확을 거둘수 있는 밀종자를 얻어 내기 위해서 고심하는 주인공 남명운연구사의 형상은 농업부문에서 종자혁명을 일으켜 알곡생산을 늘임으로써 21세기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오늘의 농업과학자, 농업연구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방불케 하고 있으며 사나운 추위속에서도 새로운 밀종자의 싹을 틔우고 가꾸어 나가는 과정에 조력자 채순이와 사랑의 싹이 트고 무르익어 가는 과정의 진실한 형상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생활에도 힘으로 되고 있습니다.》

고수머리청년의 열변이다.

《나는 리병수단편집 <평북땅>에 실려 있는 단편들을 보고 나서 리병수선생이 써내었다는 장중편들도 다 찾아서 읽어 보았는데 장편소설 <누리에 불는 불>, <붉은 지평선>도 아주 잘 쓴 소설이였습니다. 확실히 개성이 뚜렷한 작가입니다. 그 선생의 장편소설 <붉은 지평선>은 시종일관 구수한 민요를 듣는것과 같은 즐거움속에 읽었습니다. 확실히 음악으로 충만된 서사시입니다.》

상고머리청년의 감탄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머리에는 《조선단편집》(3)이 출판되었을 때 그 책을 다시 읽고 난 선배작가 석윤키선생이 하던 말도 떠올랐다.

《주옥 같은 단편들로 묶여진 책이요. 이런 책속에 한편의 작품이 들어간 작가는 행복한 사람이요. 그런데 <사나운 겨울>, <평북땅> 두편이나

들어 간 리병수동무는 참으로 값 있는 작가이고 행복한 사람이요. 특히 <사나운 겨울>은 우리나라 고산지대의 사나운 겨울속에서도 뜨겁고 아름답게, 슬기롭고 락관적으로 사는 우리 시대 사람들에 대한 낭만적인 서사시이고 거창한 교향곡이며 선명한 대화록이요. 진주목걸이 같은 작품이요.》

세 문학통신원도 석운기선생이 이미 하였던 이 말과 근사한 이야기를 더 나누다가 자리를 일었다.

그들이 떠나가고 서쪽으로 기울어 진 해빛이 직선으로 들어 비치는 고층살림집 나의 서재에는 고요한 정적이 깃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주고 받던 목소리는 의연히 나의 귀전에 남아 있고 20세기 중엽에 리병수가 창작한 작품과 작중인물들이 21세기에 와서도 의연히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감회로 하여 가슴이 뻘뻘해 지는 것이었다. 그만큼 리병수와 인연을 가졌던 가지가지 추억들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 2. 생활속으로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학예술은 인간과 그 생활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리병수와 처음으로 만난것은 주체48(1959)년 8월이었다. 그해에 처음으로 생긴 문학대학에 입학시험을 치러 온 수험생들을 40명정도씩의 립시학급으로 편성하고 그 학급의 대렬인솔을 작가학원 5기(마감기) 학생들이 한 학급 또는 두 학급씩 맡았었다. 그때 내가 속한 수험생학급과 또 다른 학급까지 두 학급의 대렬인솔을 리병수가 맡았었다. 대학입학시험을 치는 4~5일간에 수험생과 대렬인솔을 맡았던 학원생과의 관계를 두고서는 만났다는가 인연이 있었다는가 하는 표현부터가 합당치 않은 것이다. 서로 얼굴도 이름도 알새없이 헤어졌기때문이었다. 따라서 리병수의 위치에서 본다면 두개 학급 80명중의 한명이나 같은 존재를 기억할수조차 없었을 것이며 전혀 추억할 일로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때의 리병수가 내가 대학에 입학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운명적인 문제에서 매우 주요한 역할이라도 해줄수 있는 사람처럼 여겨 지면서 여간 의존하지 않았었다. 그것은 시험 치러 온 수험생은 근 2천명인데 입학시킬 인원은 문학학부, 신문학부, 두 학부에 70명이라 하니 기가 질리고 절망감이 앞섰기때문에 물에 빠진 자 지푸래기도 잡는다는격으로 대렬인솔자 리병수에게서라도 그 무슨 도움을 받을수 있지 않겠는가 하여 여러가지 지를 지못게 물었다. 시험과목에 당력사, 조선문학사 등이 있다는데 그 과목들의 시험문제가 대체로 어떤 방향에서 나오는가? 창작실기 시험으로서 산문, 운문, 극작품 세가지를 친다는데 대체

어떤 문제가 설정되는가? 지어 시험문제를 미리 알아서 암시해 줄수 없는가 하는 어처구니 없는 희망까지 표시하였다. 이러한 질문과 희망에 그가 아무런 대답도 해줄수 없은것은 너무도 당연하였다. 그러나 몇마디 주고 받는 이야기과정에 그도 나도 중중첩첩한 산으로 둘러 싸인 산간오지에서 태어나 《감자바우》로 자라면서 가난이 최가 되어 학교를 온전히 다닐수 없었던 공통적인 처지의 청년이라는것으로 하여 인차 친근해졌다. 그리고 작가학원 입학시험때 그가 창작실기로 써냈던 산문, 운문, 극작품의 제목들과 써낸 내용들, 받았던 점수 등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것은 내가 실기시험을 응하는데서 어느 정도의령감을 주었으며 당황하거나 조금해 하지 않고 안정된 감정상태에서 고도의 침착성을 발휘할수 있게 해주었다.

시험도 끝나고 인물심사도 끝나 다음날이면 귀로에 올라야 할 날 저녁에 나는 그를 일부러 찾아가서 만났다. 수험생들의 창작실기시험지의 채점에 작가학원 학생들이 동원된다는 말이 있는데 리병수동무가 동원되면 나의 시험지를 찾아서 좀도와 달라는 어리석은 부탁을 또 하기 위해서였다. 나의 이 어리석은 말을 들은 리병수는 소리내어 웃으면서 《그런 동원은 없소. 매 학급의 시험을 받아 낸 선생들이 책임지고 직접 채점하게 되요.》하고 명백히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나서 그는 얼마나 대학에 입학하고 싶었으면 저러라하고 동정심이 북받쳐 올랐던지 서른살나이에 먼도자리가 류달리 시퍼런 볼을 두손으로 려거퍼만져 가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다. 금년 입학시험응시자들중에서는 합격자보다 불합격자가 근 30배나 될것이니 영근동무도 볼을수 있는 경우보다 못 볼을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므로 못 볼는다 하여 절망하지 말고 학습과 습작을 꾸준히 계속하여 다음해에 또 응시하든가 자체학습, 자체습작으로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작가가 되는데서는 대학수업도 중요하지만 자체독서, 자체습작, 특히 생활체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므로 자기도 학원을 졸업하고는 비교적 몸매 배인 산간지대의 생활속으로 다시 들어 가려 한다고 하였다.

리병수의 그 진지한 말을 들으면서 나는 대학에 붙지 못할수 있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고만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1년후에 나는 그때 한 그의 말이 실지 자기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고 무척 감동되었었다.

이미 평양시에서 가정도 집도 다 가지고 생활하면서 작가학원을 졸업한 그가 극력 자원하여 량강도로 배치 받았다는것을 알게 된 나는 일부러 그와 조용히 만나 《이미 생활의 터전이 마련된 평양시에서 어느 출판기관에 복무하면서 창작을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하고 물은바 있었다. 그러자 그는 《물론 그럴수도 있소. 그러나 나는

많은 생각끝에 이렇게 결심했소.》하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그는 주체19(1930)년 4월 22일 함경남도 단천시의 산간마을 대흥동에서 극빈농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시켜 보자고 아버지가 마음 썼지만 산 넘고 강 건너 먼 거리에 있는 소학교에 입학시키기에는 월사금, 하숙비가 다 걱정거리였다. 이 사정을 안 리병수의 4촌형들이 자기들은 공부 못해도 병수만은 공부시켜야 한다면서 그를 령 하나 너머의 서당에 넣었다. 그리고는 4촌형들이 엇바꾸어 가며 병수를 서당에까지 업어다 주고 업어 오는 방법으로 공부시켜 주었다. 나이가 좀 들면서부터 몇 십리밖의 소학교에 다니었는데 글을 읽을수 있는 수준에 이르면서부터 그의 향학열은 비상히 높아 졌다. 그는 동네아이들과 섞들려 산으로 들로 돌아치며 노는 시간보다 책을 읽는데만 정신이 팔리곤 하였다.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읽었고 길을 오가면서도 책에만 열중하다가 넘어 지거나 길밧대로 굴러 내리기도 여러번 하였다. 어느 해 여름에는 장마가 저서 마을로 덮쳐 든 물이 집안까지 차올랐는데 리병수는 책을 읽다가 방바닥에 물이 들어 오자 결상우에 올라 앉아 책을 계속 읽었고 물이 다시 결상높이에까지 이르자 책상우에 올라 앉아 계속 책을 읽었다. 뒤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누이들과 4촌형들이 달려 들어 병수를 업어 내왔는데 산기슭에 앉아서도 또 책을 읽었다. 그러한 리병수를 보고 4촌형들과 리병수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나 그를 공부시켜야겠다는 마음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그래서 겨울이면 4촌형들이 학교에 가는 그의 먼 길을 동무해 주기도 하고 업어다 주기도 하였다. 어느 4촌형은 병수가 추워 한다고 목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서 업곤 하였는데 그러면 병수는 형의 귀가 얼가봐 두손으로 싸쥐어 주곤 하였다. 리병수가 월사금을 물지 못하여 학교에 갈수 없게 되면 어머니가 베필을 팔아서 대주곤 하였다. 그러던 어머니가 어린 병수를 남겨 놓고 너무도 일찌기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의 사랑을 잃은 리병수는 학비를 물기가 더 힘들어 졌다. 어머니를 대신하여 누이들이 안타까와 하고 4촌형들이 나무를 해다 팔아서 월사금을 대주기도 했으나 오래 가지 못하였다. 학교에 다닐수 없게 되었을뿐아니라 어머니 없는 집안은 점점 더 가난해 저서 끼니조차 에울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학교에 더 다닌다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게 되었다. 그는 남의 집 풀머슴노릇도 해보고 나무를 해다 팔기도 하였다. 그런속에서도 책만은 생기는대로 다 읽었다. 그의 나이 열다섯살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을 이룩해주심으로써 비로소 그는 식민지민족의 설움에서 벗어났다. 그는 다시는 식민지인간으로 되지 않기 위

해 오직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나가야 한다고 굳게 결심하고 새 조국건설에 헌신적으로 나섰으며 주체37(1948)년부터는 군대에 입대하여 조국해방전쟁 전 기간 원쑤 미제와 싸웠다. 전쟁후 제대되어 평양기관차수리공장(오늘의 김종래전기기관차공장)에서 공장신문발간사업을 맡아 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소설가가 되어 보고 싶은 꿈이 부쩍 커지면서 공장신문발간의 바쁜 속에서도 시간을 짜내어 소설습작을 하곤 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문학의 장래발전을 위하여 몸소 작가학원을 마련해 주시고 그 5기생으로 리병수도 불러 주시었던 것이다.

작가학원생! 이것은 리병수에게 있어서 하늘의 별을 따듯만 같은 운명적인 사변이었다.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하해 같은 사랑과 신임에 보답하려는 굳은 결심을 안고 학습과 창작수업에 열중하였다. 2년간의 학원생활은 그가 소설창작세계를 터득해 나가는 작가적성장의 나날이었을뿐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적문예사상을 뼈와 살로 받아 들이는 사상정신적양양의 나날이기도 하였다. 2년간의 학원수업을 마치고 나니 어버이수령님께서 자기를 작가학원에 불러 주시고 공부시켜 주신 사랑과 신임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며 기대하시는 문학작품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기준을 어느 정도나마 간파한것 같았고 그러한 작품을 써서 어버이수령님께 보답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가슴하게 되는 것이었다. 작가의 생활체험이 빈약한 상식적이며 도식적이며 무미건조한 작품이 아니라 작가의 생활체험이 진하게 습배인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작품을 써서 자기를 문학전문가로 키워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자! 문학의 첫 걸음은 생활속으로 깊이 들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일생일대의 대용단을 내린 리병수는 량강도의 어느 립산사업소로 보내줄것을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량강일보》기자로 배치 받은 것이다....

작가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하나의 꿈으로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기초지식이 빈약하고 창작수업이 부족하였던 자기를 작가학원에 불러 주시고 문학전문가로 키워 주신 어버이수령님앞에 문학작품다운 작품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수도 평양시에 마련된 가정과 집을 옮기면서까지 생활체험의 터전-량강땅으로 자원해 가는 그의 용단앞에서 나는 무척 감동되었을 뿐 다른 의사를 비쳐 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

### 3. 부석이나, 차돌이나, 가랑잎이나

리병수가 량강도로 간 이후 어느덧 3년세월이 지나서 주체52(1963)년에 대학을 졸업한 나는 문

학예출판사 《조선문학》 편집부에서 일하게 되었다.

나에게는 동해안지구 소설가들로부터 단편소설들을 뽑아 내어 매달 2권씩 잡지에 편집하여야 할 과업이 맡겨 졌다.

나는 동해안지구로 자주 갔다. 원산, 함흥, 청진 등에 들리어 그곳 소설가들이 써놓은 단편소설들을 읽어 보고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새로 쓸 단편소설의 구성안을 들어 보기도 한 다음 량강도로 향했다. 그때 작가동맹 량강도지부에는 현역소설가가 한명 밖에 없었지만 《량강일보》 기자인 리병수가 분명 좋은 단편의 초고를 몇개 가지고 있을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때문에 그 멀고 험한 백암령을 넘어 혜산땅으로 갔던것이다. 작가학원 5기졸업생 작품집에 단편소설 《자장가》를 내였을뿐 그후 3년동안 어느 출판물에서도 그의 작품을 본 일이 없었던 나는 그토록 드높은 창작적포부와 열망을 안고 량강땅으로 간 그가 소설을 쓰지 않고 신문기사에만 매달려 있었을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혜산역에서 내리어 《량강일보》사로 찾아 가던 나는 뜻밖에도 길가의 절상에 앉아 글을 쓰고 있는 리병수를 보게 되었다. 연회색 봄가을의투를 입고 모자를 쓰지 않은 이마가 흰칠한 그는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아서 꺼밋한 수염이 온 얼굴에 덮였는데 쓰고 있는 글에 어찌나 정신을 집중하였던지 내가 그의 몇 발자국밖에 다가가서 지켜 보고 있는데도 전혀 못 느끼고 있었다. 두무릎우에 누르끼레한 가죽가방을 얹혀 놓고 그 가방우에 원고지를 펴놓고 편거퍼 써넘기였다. 다 써여 진 원고는 원고지의 밑으로 깔아 넣으면서 새 원고지에 또 쓰곤 하였다. 나는 지방신문사의 기자인 그가 얼마나 시간내기 힘들었으면 또 얼마나 글을 쓰고 싶었으면 이런 잠시간을 내어 길가의 절상에 앉아 저렇듯 작품세계에 심취되어 붓을 달리고 있을가 하는 동정심이 북받쳐서 그가 머리를 쳐들고 나를 띄여 볼 때까지 그의 글 쓰는 모습을 한동안이나 지켜 보았다. 그 무슨 소설의 초고인것만은 틀림 없는데 일부 작가들처럼 원고지 뒤등이나 백지에 초고를 깨알같이 쓰는것이 아니라 200자원고지의 한 칸에 한자씩 일사천리로 써나가는것이였다. 꽤고 다시 쓰거나 칸사리에 삽입표식을 하고 더 써넣는 일도 없이 누에가 실을 뽑듯이 거침없이 정교한 글자들로 편거퍼 원고지들을 채워 넘기는것이였다.

그러다가 그 장면이 끝났는지 만년필뚜껑을 닫으며 머리를 쳐들던 그는 나를 보자 《아-니, 이게 누구요?》하고 놀라움과 반가움이 엮여인 목소리로 크게 소리치며 손을 내미는것이였다. 3년만에 반가운 상봉의 악수를 나누고 난 나는 대학졸업후 배치 받은 정형과 매달 2권씩의 단편소설을 보장하여야 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리병수에게 기대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하여간 나의 단편소설을 편집하자고 이 먼 고장까지 찾아 왔다니 참으로 반갑소. 하기가 나라고 왜 소설을 쓰지 않고 3년세월을 허송만 했겠소. 구상도 많이 하고 쓰기도 많이 했지. 지금도 백두고원 5호농장의 한 농업연구사가 새로운 밀종자를 연구해 내기 위해서 애 쓴 이야기를 취재하고 도일보에 낼 긍정교양기사를 써가지고 돌아오던 길인데 그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써야겠다는 충동이 일고 생동한 하나의 장면이 떠오르는게 아니겠소. 그래서 그 장면을 길가의 절상에 앉아서 썼던거요. 이렇게 몇개의 단편소설을 동시에 구상하면서 사색하다가 어느 장면이든지 선명한 화쪽으로 생동하게 떠오르는 때면 겨울길의 눈우에 앉아서도 쓰고 여름날의 풀숲에 주저앉아서도 쓰곤 하여 묶어 놓은 원고철들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완결된 작품은 하나도 없으니 당장에는 내놓을게 없구만.》

하고 그는 못내 미안해 하였다.

《하여간 장면장면 써놓았다는것이라도 좀 봅시다.》

내가 실망한 어조로 말했다.

《보아 주고 나의 전반적인 구상도 들어 주고 의견도 주면 고맙겠소.》

하며 가방에 원고와 만년필을 넣어서 들고 일어선 그는 나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다.

그날 저녁에 혜산앞을 흐르는 압록강상류의 좁은 강목에 살을 놓아 잡았다는 민물고기안주와 감자로 빻았다는 탁주로써 통승한 대접을 받은 나는 그 다음날 오전에 그가 내놓은 원고묶음을 읽었다. 한 묶음은 우편통신원에 대한 이야기로서 후날에 《설령의 딸》로 발표된 작품의 초고였는데 세절이 써여 저 있었다. 가운데 한절과 마감절이 아직 써여 지지 않았었다. 또 한묶음은 어제 길가의 절상우에서 쓴 3절까지로서 중편소설의 시작처럼 느껴 지는 농업연구사에 대한 글이였다. 후에 《령북땅》으로 발표된 근 300매에 달하는 원고중 100여매만 써여 진것이였다. 또 한묶음은 《사나운 겨울》의 초고로서 량적으로는 절반쯤, 절로서는 1,3,6절이였다. 후에 발표된 작품에는 눈사태의 시초 눈덩이가 술방울이 굴러 내리면서 커진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 초고때에는 토끼똥이 굴러 내리면서 커진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발표된 작품에는 조사령의 안해가 딸을 세번이나 낳고 네번째 아이를 낳으려 간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초고때에는 두번 딸을 낳고 세번째 아이를 낳으려 간것으로 되어 있었다. 세편의 단편소설을 동시에 진척시킨다고 하면서 이 작품의 어느 장면이 생동한 형상으로 무르익으면 임의의 장소에서나 그 장면을 썼다가 묶어 놓고 저 작품의 어느 장면이 선명한화쪽으로 펼쳐 지면 또 그렇게 써서 묶어 놓는 식으로 하다 보니 어느 하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결속된것은 없었다. 먼 길을 왔다가 단편 한편도 가지고 떠

날수 없게 된 나는 실망하였다. 그러면서도 앞날에 대한 희망은 가질수 있었다. 그 원고들에 묘사된 인간들과 자연이 펴 마음에 들었다. 짜고 덧쓰고 한데가 전혀 없는 초고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문장이 매우 토색적이면서도 음악적인 선율로 엮어 졌고 작가 리병수의 개성적면모를 예측할수 있게 해주는것이였다. 그날 밤에 나는 리병수로부터 그 단편소설들의 써여 지지 않은 절과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시간에 걸쳐서 들었다. 내가 읽은 소감도 피력하였다. 아직은 결속이 되지 않은 원고들이어서 서둘러 말하기는 어려운데 단편소설다운 땃힘새가 적고 장편소설이나 중편소설의 한 토막을 잘라 내놓은것 같다는 불만도 이야기하였다.

《백번 옳은 소리요. 이제 초고로서의 완결이 된 다음 짜고 덧쓰고 몽청몽청 잘라 내면서 함축하고 비약시키고 여물구어야 할테니까. 작가학원 졸업후 3년동안에 생활을 체험하고 인간들을 연구하고 심산유곡의 자연을 피부와 호흡으로 느끼면서 사색하고 또 사색한 1단계 총화물로서 이 단편소설들을 내놓아 보자는거요. 이 세 단편소설의 주인공들은 지금도 자기 초소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실재하는 인물들이요. 내가 이미 긍정교양기사를 써서 도일보에 낸 인물들인데 그 인물들의 매혹적인 성격들을 소설로 재현하고 싶어서 자주 그들을 찾아 가 만나기도 하오. 그러는 과정에 한 장면이 무르익으면 한절 또는 원고지 몇장씩 써서 끼워 놓곤 하더랬소. 어제도 5호농장에 나가 그 농업연구사와 만나고 돌아 오던 길에 또 한절이 뚜렷이 떠올라서 길가에 앉아서 썼댔소. 이제부터 어느 작품이든 하나씩 완결을 해서 련거퍼 내놓아 보자는거요. 호수에 차돌을 던진것과 같은 반향이 일어 나면 좋으련만... 하다 못해 부석을 던진 정도의 반응이라도 일어 나면 좋겠소. 혹시 가랑잎을 던진 때처럼 아무런 반응도 일어 나지 않는 작품으로 될가봐 걱정일뿐이요.》

하고 그는 진정으로 그것이 걱정스러운듯 한숨까지 쉬었다.

《부석정도의 반응이란 어떤것을 의미합니까?》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다.

《발표된 작품의 이러저러한 부족점을 가지고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를 넘두에 두고 있소.

아무리 긍정면이 많은 사람에게도 부정면이 있듯이 크게 성공한 작품에도 부족점이 있을수 있소. 더구나 크게 성공하지 못한 작품에는 논의해야 할 결함이 많을수 있소. 그러나 결함을 논의한다는것은 독자들에게 무엇인가 자극을 주었다는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벌써 작가가 일정한 문제를 던졌다는것을 의미하거나 다른 사람의 개성과는 구별되는 독창적인 면모를 보여 주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니 결함과 부족점을 논의 할수 있는 작품이라면 괜찮은 작품이라고 자책위안을

가질수 있소.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일어 나지 않는 작품은 무개성적이거나 상식을 라렬한 도식적인 작품이라는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작품은 써내지 않으니만 못 한것으로서 아주 무서운 일이요.》

하고 그는 자기의 작품이 그런것으로 될가봐 무섭다는듯 진절머리를 떠는것이였다.

《그러니까 앞으로 리병수선생이 써낸 작품들을 두고 그 누구들이가가 비판을 해줘도 괜찮겠다는 뜻 입니까?》

《물론이요. 호수에 차돌을 던졌을 때 일어나는 야무진 파문과 같이 성공작이라고 떠들어 주면 더 좋겠지만 그런 작품을 내놓기가 어디 쉽소. 그러므로 결함과 부족점에 대해서라도 활발히 논의해 준다면 괜찮겠다는거요. 다시 하는 말이지만 가랑잎을 던진 때처럼 함구무언속에 고요히 잤아 버리는 작품으로만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거요.》

그의 이 말이 진심이였다는것은 후날 그의 작품들에 대한 반응을 두고 그가 취한 태도들에서 뚜렷이 증명되였다.

나는 그 세 작품중 《령북땅》을 먼저 완결하여 편집부로 보내주겠다는 그의 약속을 듣고 평양으로 돌아 왔다. 그러나 그해 말에 내가 다른 편집부로 옮겨 앉게 되었으므로 그의 그 작품들은 능력 높은 다른 편집원에 의하여 《조선문학》에련이어 발표되였다.

단편소설 《령북땅》은 발표되자마자 커다란 반향속에 성과작으로 평가되었으며 《설령의 딸》도 작가의 창작능력과 개성을 보여 준 작품으로 인정되였다. 그런데 단편소설 《사나운 겨울》은 발표되자 마자 견해들이 분분하였다. 작가의 창작적개성이 절정에 이른 성과작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갈등론을 창작실천으로 구현한 작품으로서 문학적주제도 똑똑치 않은 작품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생활에서나 작품분석에서나 논의가 분분하기 시작하면 극좌적인 기고만장이 우세를 보이기 일쑤였으므로 이 단편소설에 대한 소설분과위원회의 연구모임때에도 적지 않은 평론가들과 소설가들이 이 작품을 갈등이 없고 주제가 똑똑치 않으며 비본질적인 사말사를 장황하게 라렬한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 논의는 분과위원회적인 연구모임의 범위를 벗어 나 《문학신문》의 지상토론으로까지 번져 졌다. 이러한 때 리병수가 평양으로 올라 왔다. 자기 작품에 대한 논의의 소식을 듣고 올라 온것이 아니라 도일보에 실을 혁명전통교양기사의 자료들을 당력사연구소에서 확인해 가기 위해서였다. 그가 계획된 일을 다 보고 나서 출판사에 들렀을 때 나는 무작정 그의 손을 끌고 우리 집으로 왔다. 내판으로서는 내가 해산에 갔을 때 그의 집에서 룡송한 대접을 받았던것에 대한 보답도 하고 단편소설 《사나운 겨울》에 대한 비평론의를 다 듣

고 기본이 몹시 무거워 졌을 그를 위로도 하면서 문학담을 나누자는 것이었다. 주관적이며 순간적인 충동으로 손님을 끌고 집에 들어 오다보니 대접할만 한 것이 신통치 못했다.

너무도 빈약한 겸상을 방북판에 놓고 그와 마주 앉으며 《허, 이거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괜히 끌고 와서 더 좋은데로 가지도 못하게 한 것 같군요.》 하고 내가 사과조로 말했다.

《두부국에 감자볶음, 오이김치에 풋마늘, 내가 좋아 하는 건 다 있구만... 여기에 술까지 한잔 있으니...》 하고 그는 상앞으로 다가앉았다.

《술도 뭐 신통치 못한 것이 왜냐...》

《됐소. 술에 무슨 좋은 것 나쁜 것이 있소? 술이면 다 되는 게지. 그러지 않아도 오늘 저녁엔 꼭 고추하고 싶었던 참인데 이렇게 청해 주니 고맙소.》

《왜요? 무슨 기분 나쁜 이야기라도 있었습니까?》

나는 그의 작품에 대한 논의를 넘두에 두고 이렇게 물으며 첫잔을 부었다.

《아니요.》 그는 첫 고추를 단숨에 쭉 마시고 나서 《기분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소.》

《무슨 이야기 말입니까?》 내가 의아해 물었다.

《작가동맹에 들렸더니 분과위원장선생이 나의 단편소설 <사나운 겨울>에 대한 분과토론회정형을 상세히 들려 주는 게 아니겠소. 일부 평론가들과 소설가들이 비판적 견해를 내놓았다 하오. 즉 내 작품이 론전의 중심에 놓였었다 하오. 그러니 내 작품이 가랑잎이 아니라 부석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요. 더구나 제 일 날카롭게 비평한 사람조차도 그 단편의 총적인 형상수준이 <중>이상에 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부족점과 결함을 논하였다니 그게 어대요. <하>가 아니라 <중>만 해도 괜찮은 건데 <중>이상이라 했더니 <상>에 가깝다는 소리인데 총평을 그렇게 전제하고 결함과 부족점을 상세하게 들 분석하였다니 얼마나 괜찮은 일이요. 여러 각도에서 상세히 분석하였다면 그만한 자극을 주고 문제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렇게 논의가 광범해 지고 지상토론까지 하게 되면 이 리병수가 유명해 질 게 아니요. 호수에 던져진 부석에서 공기가 빠지노라고 부글대듯이 술한 사람들이 론전을 벌릴 거요. 공기가 다 빠지고 나면 부석이 깨갯해지고 무게도 커지듯이 론전이 거듭되느라 작품의 가치도 점차 올라 갈 거요. 흐흐흐.》 하고 그는 진심으로 기쁘다는 듯 소리내어 웃었다. 그는 아무리 통쾌한 때라도 얼굴을 우로 쳐들고 입을 크게 벌리며 《하하하.》하고 웃는 경우란 거의 없었으며 대체로 턱을 아래로 떨구고 입술을 약간 벌리며 《흐흐흐.》하고 웃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는 자기 작품이 비판적 논의의 대상으로 된 것

으로 하여 반응이 전혀 없이 파묻혀 버리는 가랑잎 같은 작품이 아니라 적어도 분석 정도의 작품은 되는 것이라고 진심으로 흥미 있어 하는 것이었다. 자기 작품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대해서 립하는 그의 태도는 이러하였다.

그때로부터 여러해가 지나서 그는 지질탐사부문 기술자, 노동자들을 형상한 중편소설 《무지개 비낀 산발》을 단행본으로 내놓았다. 그 작품은 작가의 초기 흥분점이 정책적 요구와 맞지 않게 시작되었던 탓으로 하여 근본적으로 뒤집다 싶이 하는 수정작업을 거쳐서 내놓았는데 출판된지 1년이 지나도 이렇다할 반향이 없었다.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고 결함과 부족점에 대해서도 들려오는 목소리가 없었다. 그러자 리병수는 격분에 찬 투덜거림을 자주 뱉었다.

《한 작가가 그래두 심혈을 기울여 중편소설이라는 걸 처음으로 단행본으로 내었는데 하다 못해 욕설이라도 퍼부어 줘야 할 게 아닌가. 1년이 지나도록 함구무언이니 이 건 그 작품에 대한 무관심이고 작가에 대한 홀시요. 호수에 가랑잎을 던지듯이 사회에 아무런 바람도 일구지 못하는 글의 쓰레기를 내놓았다는 소라나 같은 거란 말요.》 하고 그는 계속해서 도식적이고 상식적이고 무개성적인 무난한 작품은 우점도 결함도 논의되지 못하고 독자들의 관심에서 제거되어 버리며 결함에 대해서라도 논의되는 작품은 다른 작가와 구별되는 개성이 있거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 보려는 시도가 있는 작품이더라 하고 하였다. 그런데 자기의 중편소설 《무지개 비낀 산발》은 결함에 대해서조차 떠들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이것은 분명 도식적이거나 상식적이거나 무개성적인 작품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뚜렷한 증거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처럼 상식적이며 무개성적인 가랑잎보다 비판이라도 가해 지는 부석이 훨씬 나은 것이라고 거듭 말하는 것이었다. 그의 이 말들을 들으면서 나는 리병수야말로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작품을 쓸 수 있는 단수 높은 역량과 자세를 갖춘 작가라는 것을 뚜렷이 느꼈다.

## 4. 그의 인간적 기질과 작가적 면모의 일단

소설가 리병수가 중편소설 《무지개 비낀 산발》을 창작하기 위하여 석암휴양소 2각에 와 있을 때 나는 그의 인간적 기질과 작가적 면모에서 류달리 정이 가는 특징들을 인상 깊게 목격하였다.

그때에도 강하게 느끼었고 오늘에 와서도 제일 인상 깊게 떠오르는 그의 인간적 특질의 하나는 소박성, 겸손성, 근면성이었다. 그는 심산유곡에서 나서 자라 일생을 농사 지어 온 농민파도 같이 소박하고 겸손하고 근면하였다.

그는 언제 한번 자기가 《평북땅》, 《사나운 겨울》과 같은 성과작을 낸 작가라는 티를 풍기지 않았다. 항상 문학청년과 같은 자세로 다른 작가



들을 대하였으며 다른 작가들이 하는 하찮은 말도 매우 주의깊이 들었고 많은것을 배운다고 하였다. 레절도 나이에 관계없이 문학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겸손하게 지키었다. 그는 아침과 오후 첫 시간에 한번씩 제일 먼저 비자루를 들고 각의 주변과 현관을 쓸었으며 영예군인작가의 방청소도 도맡아하시 해주었다. 그는 등산을 자주 하는데 의족한 다리로 하여 등산을 못하는 영예군인작가를 생각하여 꽃을 꺾어다 병에 꽂아 주기도 하고 산열매를 따면 매번 그의 몫을 가져다 책상우에 놓아 주곤 하였다. 그는 빨래도 자기 손으로 자주 해서 다림발을 세워 입었고 양말도 자기 손으로 아주 탐탁하게 기워서 신곤 하였다.

그의 시골농민적인 소박성은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눌 때 쓰는 어휘에서도 나타나곤 하였다.

중편소설 《무지개 비긴 산발》에 대한 마감반함평이 끝났을 때 《작품에 대한 의견도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대안도 충분히 논의되었으니 빨리 완성합시다.》하고 내가 말했더니 그는 《무슨 고콜볼에 닭 구워 먹고 떠나야 할 일이 생겼다고 조급해 하겠소. 의견이 한삼태기나 나왔는데 주근주근 착실히 해봐야지.》하는 것이었다. 이 대사에 띄여 진 《고콜볼에 닭 구워 먹고》, 《의견이 한삼태기나 나왔는데》 등의 언어들은 그의 시골농민적인 소박성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었는데 그는 이러루한 어휘들을 많이 쓰곤 하였다.

내가 리병수의 인간적개성에서 느낀 또 하나의 남 다른 특질은 《예측박사》로서의 기질이였다.

그는 자연현상이나 지형들을 주의깊이 관찰하고 나서 저쯤 어디에 무엇이 있을것이라고 말하기를 즐겨 했으며 낮 선 사람의 걸차림을 보고서도 그가 무엇을 소지하고 있을것이라고 말하곤 하였는데 그것이 대체로 맞아 떨어 지곤 하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리병수의 그러한 기질을 념두에 두고 《풍수쟁이》라고도 하였고 어떤 사람은 《점쟁이》라고도 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관상쟁이》라고도 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측박사》라는 것이였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 오는 초가을의 어느 날 나는 그와 함께 특각뒤의 등성이에로 산책을 떠난 일이 있었다. 그때 그는 손칼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올라 갔다가 바지랑대감으로 쓸만 하다고 보이는 매출하게 자란 나무의 밑동을 그 손칼로 깎아서 자르려 하였다. 그런데 나무는 참나무이고 손칼은 무덜대로 무디여서 잘 깎아 지지 않았다. 그래서 칼날을 세울만 한 돌맹이라도 없는가 하여 사방을 두리번거리는데 꼴망태를 걸머지고 산등성이길로 오르는 중년사나이가 하나가 우리걸을 지나갔다. 리병수는 그 사나이의 얼굴과 걸차림을 일별하더니 마치 기다렸던 사람을 만나기라도 한듯 반겨 하는 목소리로 《여보 동무, 여기 잠깐 앉아 좋은 담배나 한대 피우고 가오.》하고 소리치며 옆주머니에서 담배를 즐겨 하는 사람이면 첫눈에 군침이 당길만 한 고급담배갑을 꺼내

들고 그중 한가치를 뽑아서 꼴망태를 걸머진 중년사나이에게로 내밀었다. 그러자 중년사나이는 걸보기에 농사군은 아닌 사나이가 얼굴도 모르는 자기에게 좋은 담배를 권한다는게 믿어 지지 않아서 눈만 커다래 질뿐 담배가치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자, 어서 피우오. 그대신 동무가 걸머진 꼴망태 안에 있는 낫가락을 잠시 빌려 주오. 저 미끈한 참나무를 찍어 가야 할 사정이 있어서 그러오.》 그때에야 중년사나이는 이해가 된다는듯 꼴망태안에서 낫가락부터 꺼내어 리병수에게 주고 담배가치를 받아 쥐더니 성냥불에 피워 무는 것이였다. 리병수는 선듯선듯하게 느껴 질 정도로 날이 잘 선 낫가락으로 몇번 찍어서 바지랑대감을 왼손에 쳐들더니 잔가지와 마지막작지말까지 말쑥하게 다듬고 나서 낫을 돌려 주며 또 다음 청을 말하는 것이였다.

《동무, 기왕 앉았던 김이니 솥돌을 잠시 빌려 주오. 내 손칼이 너무 무디여서 날을 세우자고 그러오.》하며 그는 또 담배 한가치를 중년사나이에게 주었다. 중년사나이는 향기로운 그 담배가치를 련거퍼 피워버리기에는 아까웠던지 귀박죽에 끼워 놓으며 꼴망태안에서 솥돌을 꺼내어 리병수의 손에 쥐여 주었다. 리병수는 그 솥돌에 손칼을 갈아서 잠간사이에 날을 다 세우고는 솥돌을 돌려 주었다.

산등성이 웃쪽으로 올라 가는 중년농민을 바라보던 나는 의아한 시선으로 리병수를 지켜 보며 《아-니, 그 사람의 꼴망태속에 낫가락, 솥돌 등이 있다는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나 하나 요청했소?》하고 물었다.

《하, 그쯤이야 못 맞추겠소? 이 산등성이를 타고 저우에까지 올라 가면 분명 동향반이 우묵진 곳이 있을게요. 그러니 거기에는 묘가 몇장 있을 거란 말요. 래일모레가 한가위이니 저 중년사나이는 오늘 벌초하러 그리로 가는 사람ियो.》

벌초를 가는 사람이 낫가락을 가지고 떠날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잔디를 깎다가 낫이 무디면 다시 갈아야 하니 솥돌도 가지고 떠났을게 아니요.》

나는 고개를 끄덕여 수긍하고 말았다.

그후 며칠이 지나서 나는 또 그와 함께 산등성이에로 산책을 하게 되었는데 실지 묘가 있는지 산마루까지 올라 가보자고 하였다. 그도 자기가 짐작하고 했던 말이 사실로 맞아 떨어 지는가를 확인해 보려는듯 서슴없이 응하고 앞장에 서서 걸음을 다그치는 것이였다. 근 반시간이나 숲찬 올림길을 걷고 갔을 때 아닌게아니라 산마루의 경사아래에 집자리와도 같은 우묵진 곳이 나지고 거기에 큼직한 묘가 다섯장이나 동향으로 안치되어 있었다. 묘등의 잔디는 상고머리처럼 잘 다스려져 있었고 묘주변의 넓은 구역이 잡관목 하나없이 흰칠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사방이 흰히 둘러 보이고 휴양각의 지붕들도 다 내려다

보이었다.

리병수는 자기의 예측이 틀림없이 맞았다는 듯 나에게 눈짓을 하며 머리를 끄덕이더니 휴양소구획의 남쪽 숲술너머의 농가마을을 한동안이나 둘러 보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또 예측의 말을 하는 것이었다.

《저 농가마을의 북쪽 산굽이를 에돌아 가면 지은지 오래된 큰 기와집이 한두채 있을거요. 샘물도 있을게고 그리고 마을앞으로부터 석암호수 가까이까지 내려 가면서 골채논들이 층층을 이루고 있는데 그 논배미들의 가운데로 흘러 내리는 실도랑을 따라서 버드나무 몇그루 서 있는 곳에 이르면 크지 않은 물웅덩이가 있을거요. 벼가 누렇게 익고 논배미가 말라 버린 이때쯤 그 웅덩이물을 퍼내고 찌우면 미꾸라지와 메기, 종개 같은 비늘 없는 고기들을 서너사발 건질수 있고 특히 한뿔정도의 1년 자란 붕어는 한바께쓰정도 건질수 있을거요...》

나는 그가 손길로 가리키는 곳들을 따라 가며 눈익혀 두면서 호기심이 잔뜩 동했다. 그래서 다음날 점심시간에 일부러 그곳들에 가보았다. 정말 지은지 오랜 기와집도 있고 샘물도 있었으며 골채논들의 가운데로 흐르는 실도랑의 버드나무 서 있는 곳에는 물웅덩이도 있었다. 그런데 물웅덩이는 소가 서너마리 들어 앉을 정도로 작은 것이었고 물깊이도 1미터가 되나마나 하였으므로 거기에는 비늘 없는 고기가 서너사발, 한뿔정도 크기의 1년 자란 붕어가 한바께쓰나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믿어 지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 의문점을 리병수에게 비쳤더니

《아, 실지로 가보았던 말이겠소? 그래 물웅덩이의 물을 퍼내고 고기를 건져 볼 욕심은 나지 않습데?》 하고 그는 물음이 깃든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실지 고기를 그렇게 건질수만 있다면야...》

《됐소. 그렇다면 오는 일요일날 한번 해보지요.》 그리하여 일요일날 나, 리병수 그리고 또 한명의 다른 작가와 셋이서 바께쓰 하나씩 들고 그 골채논들의 물웅덩이에 넘어 가 실도랑의 옷목을 막아 논배미로 물을 돌려 놓고 웅덩이의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보기에는 웅덩이가 그리 커보이지 않았으나 물을 꾸면서 보니 상당히 많은 물이 고여 있었다. 셋이서 한껏을 푸니 물이 절반쯤으로 줄었는데 벌써 붕어들이 퍼들쩍퍼들쩍 뛰다가 웅덩이밖에까지 날아 나와 번드러 졌다. 점심시간에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작가들까지 오후부터 물 푸는 일에 나섰다. 고기가 와글거리는 통에 물 푸는 일이 전혀 힘들게 느껴 지지 않았다. 물을 찌워 가며 고기를 다 건져 놓으니 미꾸라지, 메기, 종개 등 비늘 없는 고기가 퍼그나 되고 1년 자란 붕어가 반바께쓰 넘었다. 비늘 없는 고기들은 식당에 맡겨서 저녁식사때 맛 있는 국으로 먹고 붕어만은 우리들의 손으로 회를 쳐서 밤참으로 먹었는데 참으로 별맛이었다. 민물

고기회중에서 붕어회가 제일 달고 고소하다고 듣기도 많이 듣고 말도 많이 하였지만 실지 자기 손으로 잡은 붕어를 자기 손으로 회를 쳐서 그토록 달게, 그토록 고소하게, 그토록 실컷 먹어 보기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배 불리들 먹었다.

작가 리병수는 이러한 《예측박사》였다. 그러면 그가 실지에 있어서 《관상쟁이》였거나 《풍수쟁이》였기때문에 그러한 예측을 잘한 것이었던가?

아니었다. 자연현상과 지형물에 대한 그의 남다른 관찰과 인간과 생활에 대한 깊은 연구와 사색의 력사가 축적되어 그러한 《예측박사》로 되었던 것이다.

류달리 적막한 산간오지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 부터 남 달리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자연현상과 지형물을 관찰하고 판단, 예측하기를 즐기었으며 작가가 될것을 꿈 꾸면서부터 더욱 인간과 생활을 깊이 파고 들며 연구하고 사색하는데 열중하였다. 그 과정에 그 어떤 자연현상이나 지형지물도 개별적인 현상으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환경과 밀접히 련관되어 있다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고 그러한 터득에 기초한 예측과 판단이 자주 맞아 떨어 진다는 흥미를 체험하게 되었다.

제단식으로 층층을 이룬 논들의 제일 낮은 곳으로 흐르는 실도랑은 눈석이때나 장마때면 아름다리물살로 되어 흙이나 모래를 파제끼며 흐르는 것이다. 그러다가 나무뿌리를 만나면 더욱 세차게 파제끼면서 웅덩이를 형성해 놓곤 한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예측하였으니 그 웅덩이에서 실지로 많은 민물고기를 잡아 낼수 있는 것이다.

《예측박사》로서의 리병수의 특징적인 인간적면모는 이렇듯 인간과 생활에 대한 풍부한 체험과 자연현상과 지형지물에 대한 깊은 연구와 사색의 결과로서 이루어 진 것이었다. 인간적면모에서의 그러한 특징은 그의 창작에 미치여 독창적이며 개성적인 작품을 내놓을수 있게 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리병수의 작가적면모에서 다른 작가들과 구별되는 것으로 내가 인상깊이 느껴 왔고 오늘에 와서도 특징적으로 기억되는것은 그의 창작로동의 자세와 습관이었다.

나는 천세봉선생에 대한 추억의 글을 쓸 때 그 선생의 창작로동의 제3의지점은 이발이었고 제4의지점은 무릎이었다고 쓴바 있었다. 리병수는 창작로동의 제3의지점이 없는, 제1의지점으로서 두뇌, 제2의지점으로서 손만 쓰는 그런 작가인줄 나는 알았었다. 왜냐하면 일부 작가들처럼 갑자기 쓰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누에가 실을 뽑듯이 쉽게 흥겹게 쓰는 것으로 보였기때문이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던바와 같이 걸으면서 사색하다가 생동한 장면이 완결된 화폭으로 떠오르기만 하면 길가의 돌우나 풀술에 주저 앉아서 원고지에 여러장 또는 한개절씩 단숨에 쓰기도 하고 중편소

설 《무지개 비낀 산밭》을 석암휴양소 2각에서 쓸 때 어떤 날에는 60매까지를 단숨에 썼는데 원고지의 칸칸에는 정자나 다른 없는 바른 글자들이 정교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원고지를 마주하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독서, 산책, 다른 사람과의 이야기 등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리병수는 독서, 휴식, 건강관리 등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천부적인 재능으로 아주 흥겹게 글을 쓰는 작가라고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그가 중편소설 《무지개 비낀 산밭》을 한창 써나가던 어느 날 나는 전혀 새로운 작가적 면모를 그에게서 발견하게 되었다. 석암휴양소에서 작가들이 들어 있는 방들에 새 책상을 놓아주는 일이 생겼을 때였다. 휴양각으로만 쓸 때에는 편수도 랑수도 아닌 각탁 비슷한 자그마한 책상 하나씩만 놓여 저 있었었으므로 작가들은 그것을 그대로 리용하여 글을 써왔었다. 그런데 작가들의 창작실로 쓰게 되는 각들에 창작에 편리한 편수책상을 놓아 주기로 되었던 것이다. 모든 작가들이 좋아 하였다. 그런데 리병수만은 새 책상을 이리저리 살펴 보더니 원래의것을 그대로 놓고 쓰겠다는 것이었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자기는 책상아래에 건너 질러 진 가름대에 원발을 얹어 딛고 그 발바닥에 힘을 주면서 글을 써야 하는데 새 책상에는 그런 가름대가 없다는 것이었다. 휴양소의 한 일꾼이 목수를 시켜서 든든한 가름대를 대주겠다고 했을 때에야 그는 기꺼이 바뀌 놓았다.

(책상가름대에 원발을 얹어 딛고 그 발에 힘을 주면서 글을 쓴다? 그러니까 그의 창작로동의 제3의지점이 윈다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 나는 그날 저녁식사후 그의 방에 들어 가 내가 생각한바를 말하고 그렇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글쎄 제3의지점이라 하겠는지 무슨 의지점이라 하겠는지 리론적으로 생각해 본 일은 없는데 하여간 원발에 힘을 주면서야 글이 되는 건 사실이요.》하고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걸상에 앉아 머리가 뼈개질 정도로 사색을 집중한 그 힘이 윈다리로 뻗쳐 저서 원발바닥으로 책상 가름대를 힘껏 내밀고 그의 반동력이 오른손에 가해 지면서 글씨로 옮겨 진다는 것이었다. 앉은뱅이책상을 마주하고 방바닥에 앉아서 쓰는 경우에도 오른쪽 다리는 올방자자세로 굽혀 앉고 윈다리는 앉은뱅이책상밑으로 뻗쳐서 발바닥으로 벽을 내밀며 힘을 준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앉으면서 한창 써나가던 원고지도 뒤로 뒤로 물러나다가 책상아래 떨어 지려고 하는 것을 다시 수습해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습관된 창작로동에 몰두하다가 초상묘사의 적중한 표현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대사가 합당하게 흘러 나오지 않거나 묘사해 나가던 사건과 세부가 진실하지 않다는 느낌이 오거나 하

면 그는 서슴없이 붓을 놓고 물러 서서 독서를 하든가 산책을 하면서 새로 구상을 무르익혀 가지고 막혔던 고리들이 완벽한 형상으로 재생될 때라야 다시 붓을 잡는다는 것이었다. 한창 줄기차게 쓰다가 막혔다 해서 그 자리에 앉아 붓방아를 짚어 가며 생각을 짜내어 쓰기를 계속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였다. 묘사해야 할 문장, 어휘, 대사까지 다 생동한 표상으로 자리 잡혔을 때 붓을 들고 그것을 실꾸리 풀듯이 써 내려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추고할 때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장면이나 세부를 뭉청뭉청 떼어 내고 다시 쓰는 경우는 많아도 써여진 원고지에 칸살이에 삽입표를 하고 몇자씩 써넣거나 몇자씩 찢고 다시 쓰는 것과 같은 작업은 많지 않다고 하였다.

## 5. 혁명소설창작집단의 성원이 되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형상을 창조하는 것은 주체문화건설의 기본인 것이다.》

작가 리병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높은 신임에 의하여 주체61(1972)년부터 4.15문학창작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창작활동을 하게 되었다. 혁명소설을 전문으로 창작하는 집단의 한 성원, 이 얼마나 높은 신임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 주신 이 신임앞에서 리병수는 무한히 격동되었으며 동시에 자신의 작가적 능력을 두고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에서 언급한 단편소설들에서 발휘된 작가 리병수의 창작능력을 료해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미 주체55(1966)년에 그를 작가동맹 량강도지부의 현역작가로 일하도록 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에 창작실천으로 보답해야겠다고 마음 다진 리병수는 1920년대 말 산간지대 청년들의 계급적성장과정을 형상한 중편소설 《평퍼물》을 써서 잡지 《조선문학》에 연재하였다.

그러나 작품은 정책적대가 튼튼히 서지 못한 것으로 하여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편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1920년대 말~1930년대 초의 우리나라 산간지대 청년들의 반일, 반봉건계급의식의 성장과정을 자연발생적인, 우연적인 과정으로 형상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은 리병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질탐사부문에 주신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지질탐사부문의 기술자, 노동자들의 모습을 형상한 중편소설창작에 달라붙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작가는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의 진수를 옳게 파악하지 못한데로부터 본질적인

생활대신 비본질적인 생활에 집착된 나머지 창작과정에 극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질탐사부문에 주신 교사에서 우리 나라의 모든 지역에 다 시추기를 들이 대고 탐사를 진행하여 어디에 무슨 유용광물이 어느만큼 매장되어 있다는것을 낱알이 알아 내며 유용광물이 정 없는 곳에는 없다는 표식비라도 세워서 후대들이 헛고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아버이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에서 진수를 이루는것은 어디에 무슨 유용광물이 어느만큼 매장되어 있다는것을 낱알이 알아 내라는 말씀일것이다. 그런데 리병수는 유용광물이 정 없는 곳에는 없다는 표식비라도 세워서 후대들이 헛고생을 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에 흥분되어 가지고 중편소설의 주인공들이 고생고생 탐사를 했으나 아무런 유용광물도 찾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표식비를 세우는것으로 초고를 써놓았다. 그리고 보니 소설의 교양적가치가 없었으며 예술적면에서도 형상의 지향점이 똑똑치 못하였고 따라서 재미도 없었다.

그리하여 소설의 구성과 형상방향을 근본적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작가는 소설을 새로 쓰다싶이 하여 출판하였으나 독자들속에서 이렇다 할 반향이 없었다. 론의 할만 한 성과가 없었던것이다.

성공적이었던 단편들에 비하여 성공하지 못한 두 편의 중편을 두고 작가 리병수는 자기 창작의 앞날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큰 형식의 작품을 꾀나낼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우려심이 앞서는것이였다.

그런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를 수령형상 창조집단의 작가로 불러 주신데 련이어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활동을 형상한 장편소설 《누리에 불는 불》을 그가 말아서 쓰도록 몸소 창작과제를 안겨 주시였다.

장군님께서 몸소 맡겨 주신 창작과제!

이것은 작가 리병수의 창작적열정과 책임감을 비할바없이 높여 주었으며 그의 창작기량이 최고의 수준에서 발양되도록 증폭시켜 주었다.

리병수의 창작적열정과 기량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재적인 가르치심을 거듭 받아 안는 과정에 더욱 높아져 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영화부문의 주체적문제 사상연구모임을 지도하실 때 4.15문학창작단 작가들도 참가시켜 주시고 거기에서 인류문학사에 일찌기 없었던 종자론을 비롯하여 천재적인 문예리론과 주체문학건설에서 나서는 제반원칙과 방도, 수령형상창조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미학상 문제들을 심오하게 해명해 주시였다. 그것은 우리 문학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력사적인 나날이였다.

작가 리병수는 해면이 물을 빨아 들이듯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재적인 가르치심을 백지에 써넣

는 먹글씨처럼 마디마디 새겨 가면서 체질화해 나갔으며 그 과정에 혁명소설창작에 대한 신심과 열정이 비상히 높아져 갔다.

리병수는 드높은 창작적흥분과 열정을 안고 혁명소설 《누리에 불는 불》창작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그는 우선 량강도로부터 홍원지구, 함흥지구에 이르기까지 김형권동지께서 활동하신 국내사적지들을 낱알이 답사하고 취재와 자료연구를 병진시키면서 작품의 구성안을 만들어 가지고 4.15문학창작단의 창작기지로 올라 왔다.

아직 가족은 평양으로 이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한몸만 먼저 4.15문학창작단 성원들속에 끼여 자료연구와 작품구성을 더 무르익히였다.

그때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은 평양교외의 한 청사에서 한 현관의 1층부터 5층까지의 방들을 창작실로 리용하고 있었다. 오늘에 와서 리병수에 대한 추억의 글을 쓰면서 그 방들에서 4.15문학창작단의 초기사업을 진행하였던 작가들의 이름을 더듬어 보려니 이미 세상을 떠난 작가들이 대부분이고 지금도 창작 및 창작지도일군으로 일하는 작가는 2~3명뿐이라는 가슴 찢어놓는 회억을 가지게 된다.

그때 4.15문학창작단의 작가들은 한주일동안 거기에서 일하고 토요일이면 평양시내의 집에 들어와 일요일을 쉬고 월요일 아침이면 나가는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천세봉을 비롯한 적지 않은 작가들이 창작에 몰두하다 보니 일요일에도 거기에 불박혀 있었으며 아직 평양에 집이 없었던 리병수에게는 그 현관 아래층의 북쪽방 하나가 하루도 떠날수 없는 《집》이였다.

거기에서 리병수는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투쟁내용을 담은 장편소설 《누리에 불는 불》의 초고집필을 시작하였고 작품의 본격적인 작업은 우산장창작실 6각의 아래층 북쪽방에서 진행되었다.

작가 리병수는 혁명투사 김형권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새 진로를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선을 높이 받들고 국내에 진출하시여 파발리주재소에서 혁명의 총소리를 높이 울리시여 악질순사 오펜시늬를 처단하고 인민대중에게 조국해방의 신심을 안겨 주시였으며 홍원지구에서 변절자들에 의하여 체포되신 후 서대문형무소에서 불굴의 옥중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실 때까지의 과정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으로 형상하였던것이다. 작가 리병수는 장편소설 《누리에 불는 불》의 최종작업에서 작품의 한 장면이라도 더 빛나게 보충해보려고 모색하다가 그만 뇌혈전이 왔다. 그는 병원에 입원하여 장기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사실을 보고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를 적극 치료하도록 대책을 취해 주시였으며 수많은 고약약들을 보내주시였다.

그가 장기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 장편소설 《누

리에 붙는 불》은 책으로 출판되었다.

장편소설은 출판되자마자 독자대중속에서 애독되면서 그들을 불요불굴의 혁명정신과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무장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장편소설은 똑 같은 제목으로 곧 영화로도 옮겨 지어 근로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오늘도 재방영되면서 높은 사상에 술적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작가 리병수는 병원에서 의식이 회복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중편소설도 온전히 쓰지 못하였던 내가 혁명소설 《누리에 붙는 불》을 그만정도로 써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덕분이었소. 그이께서 나를 4.15문학창작단 작가로 불러주시고 몸소 창작과제를 안겨 주시고 천재적인 문예리론과 창작방법으로 부단히 깨우쳐 주시고 온갖 창작조건과 생활조건을 친어머니심정으로 보살펴 주시었기 때문이요.》

## 6. 녹 쓸지 않는 붓

리병수는 장군님께서 거듭 보내주신 사랑의 불사약을 쓰고 점차 회복되었다. 두뇌활동도 정상궤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언어장애와 걸기장애까지 깨끗이 가서 버리지는 못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의 건강상태와 창작공로를 헤아리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표창을 수여해 주시었으며 본래의 대우를 그대로 받으면서 집에서 휴식하도록 은정어린 사랑을 베풀어 주시었다.

그러나 리병수는 두뇌활동이 정상인 작가가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받으면서 놀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비록 혁명소설창작집단의 성원으로서의 창작활동은 계속할 수 없지만 일반주제의 작품창작까지 그만 둘 수는 없었다. 무슨 작품이든지 쓰고 또 써냄으로써 장군님께서 키워 주신 작가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마음 다지었다.

그는 문학 초년기에 정하였던 창작궤도를 다시 생각하였다. 자기가 나서 자란 유년기때부터 보고 듣고 느낀 아버지, 어머니들의 생활이며 자신이 살아 온 체험의 역사를 돌이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실패한 중편소설 《평퍼물》을 장군님의 주체적문예리론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돌이켜 보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 그는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엽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화전을 뿌지고 솟구이를 해가며 사는 극빈한 가정에서 자란 사춘기청년이 생활과 투쟁속에서 점차 민족적자각과 계급의식이 자라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혁명의 품-붉은 지평선으로 들

어 서는 모습을 형상한 2부작 장편소설 《붉은 지평선》을 쓰기로 결심하고 달라붙었다. 언어장애와 다리마비로 인한 반신불수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년시절부터 보고 듣고 느꼈던 부모형제, 고향사람들의 운명의 역사를 이 작품에 다 담는 심정으로 자기의 작가적능력과 개성적특징을 깡그리 쏟아 붓는 열정으로 붓을 버리고 또 버리며 썼다. 그의 육체는 반신불수였지만

붓은 녹 쓸지 않고 원고지우에 개성적인 인간들의 성격을 새겨 나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주체 70(1981)년에 장편소설 《붉은 지평선》 제1부가 출판되었다. 소설은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 우리 나라 산골청년들의 민족적자각과 계급적각성과정을 진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하여 주인공 원술이와 경표, 순란이 등 남녀청년들의 성격을 개성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하여, 작품전체에 구성진 민요의 선율과도 같은 음악성을 부여한 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 장편소설에서 작가 리병수의 독창적이며 개성적인 면모는 전면적으로 개방되었으며 그로 하여 2부에서 더 큰 성공이 있기를 독자들은 기대하게 되었다.

작가 리병수는 독자들의 그러한 기대에 완결된 2부작으로 빨리 보답할 일념을 안고 붓을 버리고 또 버리며 한자 또 한자 힘겹게 써나갔다.

그러다가 주체 76(1987)년 10월 17일 갑자기 의식을 잃고 평양시 제2병원에 실리어 갔다. 개성이 뚜렷한 작가를 소생시켜 보려는 의료성원들의 노력은 각별하였으나 그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숨이 지었다.

작가 리병수의 사망으로 하여 독자들은 그토록 구성진 민요의 선율로 충만된 《붉은 지평선》의 제2부를 마저 읽을 수 없게 되었으며 우리 소설가대렬에서는 또 한자리가 비게 되었다.

결국 그는 단편집 《명복땅》, 중편소설 《무지개 비진 산발》, 장편소설들인 《누리에 붙는 불》, 《붉은 지평선》(제1부) 네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책수가 문제이겠는가. 그가 20세기중엽에 창조한 주인공들이 21세기인 오늘에도 생동한 개성으로 살아 숨 쉬면서 우리들의 길동무로 되고 있음에야!

단편소설 《명복땅》의 주인공 남명운, 단편소설 《사나운 겨울》의 주인공 조인갑, 장편소설 《누리에 붙는 불》의 주인공 김형권동지, 장편소설 《붉은 지평선》의 주인공 정원술 등은 오늘날 생동한 모습으로 살아 숨 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날에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나가는 우리의 근로자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정신으로 고무추동하고 있지 않는가.

## 오늘을 추억하리라

김영길

해 뜨는 바다가초소  
해당화 불 타는 최전연의 선조암을 찾아도  
파도 세찬 외진 섬기슭  
은빛매들 날으는 활주로에 가보아도  
병사들은 기쁨에 눈시울 젖어 말하더라  
우리 초소에 장군님 오셨던  
오늘을 가슴에 새겨 안고 산다고  
진달래 불 타는 철령  
천길벼랑 아찔한 오성산  
지혜산 대덕산 까칠봉...  
이 땅 그 어느 초소  
그 어느 병사를 만나보아도  
목 메인 걱정을 터치더라  
장군님 사랑과 헌신의 자욱 초소길에 남기신  
한생토록 못 잊을 오늘이라고...  
아 오늘- 어제와 래일사이를 흐르며  
방선천리에 밝아 오는 날과 날들  
장군님의 전선길 차창가에  
해가 뜨고 별이 돌고  
비바람 눈보라도 스쳐 가는  
선군의 하루하루여  
그 날들이 모여 장군님의 한생을 이루고  
그 날들이 이어 저

이 땅에 선군의 력사는 굵이쳐 흐르나니  
오늘속에 가고 오는 날과 날들은  
장군님의 사랑의 해와 달!  
장군님 천신만고 쌓으신 총폭탄성새!  
오늘 오늘!-  
장군님 추켜 드신 선군의 총대아래  
강성대국의 새날이 꽃 피고  
대륙을 누벼 온 강철케도가  
통일의 동맥으로 이어 지는 오늘  
아아 오늘이여!  
장군님의 전선길 천리만리-  
흐르고 흐르는 선군장정의 365일  
그 어느 하루도 빠짐없이  
초소마다 새겨 안고 사는  
날중에서도 가장 뜻 깊은 날과 날들  
세월속에서도 가장 빛나는 세월  
력사의 선군시대여!  
복무의 한생이 끝난  
인생의 먼 황혼기에 모든것 잊혀 저도  
옛 병사들은 못 잊어 오늘을 추억하리라  
간고하고도 준엄했던 장군님의 선군력사를  
조국땅 가득 기념비들로 솟은  
장군님의 선군업적을...

## 봄의 물방울

최남순

집뜰에 심어 놓은 살구나무우듬지에서  
보시시 눈가루 날리는  
까치의 우짖음 반기며  
문 열고 나서는참에  
꼭- 이마를 튕겨 주는 차거움  
  
바라보니 처마끝 고드름에 맺힌 물방울  
그속에서 해가 웃어요  
  
동그란 손바가지 만들어  
방울방울 햇빛을 담아 보는...  
  
단발머리 젖히고 실눈 지으며  
입술을 모금모금 적서 보아오  
아, 봄의 물방울  
  
겨울밤 솜옷마저 덮어 주며 지켜 온

랭상모의 박막속에 구울던 물기만 갈아  
어찌보면...  
내 정성 저 벌에서  
하루 빨리 푸르라고  
봄빛을 안고 오신 장군님  
장군님의 얼어 든 야전복자락에서  
녹아 내리는 물방울 갈아  
  
고드름의 물방울은  
차던가요 뜨겁던가요...  
  
따뜻한 해별이 안아 온  
봄의 물방울  
내 저 들판에 뿌려 갈 씨앗처럼  
가슴에 정히 안고  
뜨락을 나서는 이 아침은  
겨울과 작별하는 봄날의 첫 아침이에요

## 두사람의 대화

박승록

### (1)

초가을인데 벌써 싸늘한 기운이 옷깃으로 스며 들었다. 강성묵은 어느 책에서 본 가을에 대한 묘상이 떠올랐다. 과연 가을은 투명한 대기이며 싸늘한 기운이 작별의 색조라는 말이 옳은것 같았다.

(작별의 색조!)

강성묵은 속으로 이 말을 외우며 낮 익은 길을 둘러 보았다. 이제는 이 길을 마지막으로 걷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다.

강성묵은 매일 아침 일찌기 집을 떠나 출근길에서 의례히 방직연구소나 일용품연구소부터 둘러본다. 오늘도 그는 방직연구소 마당가에 서서 실험실창문으로 흘러 나오는 새벽전등불빛들을 바라보며 잠깐 서 있었다.

이때 열창문이 열리면서 조용인연구사의 얼굴이 얼핏 눈에 띄었다.

성묵은 그 창문앞으로 다가갔다.

《조선생은 또 밤을 새웠군요.》

《아, 비서동무로구만요. 어떻게 이 새벽걸음을!》

조용인은 창문밖으로 상반신을 굽히고 당비서를 반기었다.

《년세도 많은데 밤에야 쉬어야지요.》

성묵은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다.

《나이가 들수록 서둘러 살아야 할게 아닙니까.》

조용인은 몇대 없는 흰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기며 환하게 웃었다.

《얼굴에 활기 띠면 보니 실험결과가 좋은것 같습니다.》

《예, ○○○비날론연구성과가 뚜렷해 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 대단합니다.》

성묵이도 연구사 못지 않게 기뻐 하였다. 무거운 연구과제를 안고 뿌연 안개속에서 갈팡질팡 고심해 오더니 그 안개가 걷히었다니 참말로 기쁜 일이었다.

성묵은 급히 그의 방으로 들어 갔다.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 천문제해결에서 또 하나의 큰 전진입니다. 실험지표들을 정확히 쥐었으면 중간실험을 당장 시작합니다.》

조용인은 실험일지를 당비서앞에 내밀어 보였다. 그것은 그가 자기의 연구사업결과가 확정적일 때만이 하는 행동이었다.

실험일지를 한장한장 긴장한 눈길로 읽어 보던

성묵은 동녘하늘에 흰히 트이는 새벽빛에 펼쳐진 마지막장을 덮었다.

《그러니 비날론을 생산할 때 포르마링의 결합비율을 꼭 낮출뿐 아니라 ○○○비날론으로 짠 천의 염색과 구김문제가 풀렸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조용인에게는 자신이 알아 볼수 있게 쓴 실험일지를 읽어 보고도 그 결과를 인차 이해하는 당비서가 돋보였다.

(이런 당비서와 헤어지다니!)

그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굴리었다.

《선생님, 인차 중간시험을 할 안을 과학지도처에 제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묵은 실험일지를 돌려 주면서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비날론의 염색과 구김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실천하게 될 날이 눈앞에 왔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조용인연구사의 성공적인 실험결과를 보고 떠나게 된것이 더없이 기뻐다.

하지만 그의 중간시험결과까지 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될것 같지는 못하였다.

《비서동무, 내 언제부터 하자던 말이 있는데...》

조용인은 이때라고 생각했는지 심중한 낮빛으로 말을 던졌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나를 보고 선생님, 선생님하고 부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저 동무, 아니면 조동무라 불러주시오.》

《하하하, 그게 하자던 말씀입니까?》

《그게 우리들사이에 인위적인 간격을 두는것 같아서 영 귀맛이 없습니다.》

그 말에 어찌나 진정이 내비쳤던지 성묵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이야 과학자가 아닙니까. 창조자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과학의 덕을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데서 말입니다. 나도 과학의 덕을 입는 사람이니 선생님이라고 부르는것은 응당한 일이 아닙니까.》

《그럼, 나도 이제부터 비서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겠습니다.》

조용인은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그건 격에 맞지 않습니다. 나이를 보나 지식

으로 보나 또 경험으로 보나 공로로 보나...》

《아닙니다. 당사업 역시 창조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은 사회의 일심단결에서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담당하게 하는것이 바로 당일군들이지요. 당일군들이 바로 앞선 하나로 열을 담당했던 말입니다. 이젠 지나간 일이지만 이 조용인때문에 비서동무가 얼마나 마음 썼습니까. 정말 열, 백, 천을 움직여 놓았지요.》

《무슨 말씀을...》

강성묵은 이렇게 대답하며 손을 내저었다.

조용인연구사가 이렇게 말이 많아 진것이 이상스러웠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자기의 소환문제를 그가 눈치 챌것만 같았다.

조용인이 요 며칠간 밤을 패면서 연구사업에 몰두 하다가 마침내 성공의 열쇠를 찾아 쥐고 그 열쇠를 보여 준것이 어찌보면 자기와의 작별인사를 뜻 깊게 하려는 충격이 아닌가 싶었다.

강성묵에게 있어서 조용인은 깊은 여운을 남긴 사람이었다. 그는 조용인을 알게 된 10여년전의 일들을 더듬어 나갔다.

## (2)

어느 날 퇴근시간이 지나 강성묵은 조용인연구사의 집주소를 알아 가지고 그 집을 찾아 가고 있었다.

낮에 그는 우연히 한 연구사에게서 조용인이 집에 초청하는것을 구실을 붙여 못 가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의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고 묻고 싶었으나 입을 열지 않았다.

조용인이 뒤시비를 받고 있다고 하여 가깝게 지내던 친우도 그와 마주 앉는것을 꺼려 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강성묵은 무엇보다도 조용인의 친구가 되어 주고 싶어 길을 떠났다.

부문과학원 당비서로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강성묵은 조용인연구사에 대하여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았다.

조용인은 전라북도 전주태생이었다.

그는 어려서 지하투쟁으로 사회생활의 첫발을 떼었다. 그는 파란곡절을 겪다가 조국해방전쟁시기 의용군에 입대하여 공화국품에 안긴 사람이다.

그는 가련처절하던 전화의 날에 전선에서 소환되어 김책공업대학(당시)에서 공부하고 과학자로 자랐다.

조용인이 과학원에 배치되어 연구사업을 시작하던 시기에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그를 《생활경로가 복잡한 사람》이라고 경시하는 편향이 있었다.

조용인은 당의 보살핌과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그 고통을 견디어 내지 못했을것이다.

당과 수령은 공화국의 품을 찾아 험로역경을 헤쳐 온 그를 믿어 주고 내세워 주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퍼그나 흘렀으나 편협한 사람들의 여파는 아직 말끔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이 집단에 남아 있는 보신주의, 개인주의적 표현이라고 강성묵은 생각하였다.

강성묵은 이런 생각을 하며 조용인을 기다리며 옷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부엌에서 아주머니는 주인이 오는가 해서 복도의 인기척소리에 문을 열어 보곤 하였다.

하지만 9시가 넘도록 집주인은 돌아 오지 않았다. 아버지를 찾아 밖에 나갔던 딸이 돌아 와 하는 말이 직장에도 없다는것이다.

아주머니와 딸은 미안해서 안절부절 못하였다.

혼자서라도 먼저 저녁식사를 하라고 하는것을 강성묵은 굳이 사양하였다.

(그러면 조용인은 어데 갔단 말인가?)

《오늘이 연구사선생의 생일이라는데 같이 하겠습니까. 늦으면 뭐랍니다.》

강성묵은 안주인을 안심시키느라고 서재에서 책 한권을 빼서 뒤적이며 보았다.

하지만 글줄이 눈에 들어 오지 않고 혼자 강기슭을 거닐고 있을 조용인의 모습이 그려 지곤 하였다.

그는 눈을 슴뻑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조용인이 이렇게 늦어 지는것이 집에 데리고 오자던 친구에게서 받은 자극때문은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밤이 이슬하여 조용인이 책들을 가득 넣은 가방을 무겁게 들고 희색이 만면하여 집에 들어 섰다.

아래방에서 손자, 손녀들이 환성을 지르며 할아버지를 맞이했다. 아들, 며느리, 딸, 사위들도 일어 나 반기었다.

조용인은 당비서가 집에 와 오래 기다렸다는 말을 듣고 땀을 문지르며 옷방에 들어 섰다.

《이거 안됐습니다. 모처럼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어서 앉으십시오.》

강성묵은 웃으며 자기옆에 있는 부채를 조용인 연구사에게 쥐어 주었다.

《저게 무슨 책들입니까?》

《네- 그저 여기저기 부탁했던 책들을 모아 가지고 왔습니다.》

《나도 좀 구경합시다.》

조용인은 뒤에 있는 들가방을 끌어다가 책들을 꺼내놓았다.

방직설비들을 고속화하기 위한 참고서들이었다.

책들에 찍혀 있는 기관도장들을 보니 중앙과학기술통보사, 인민대학습당, 김책공업종합대학...

조용인은 이 세군데를 들러 오느라고 늦어 진



것이다.

《방직설비 고속화야 선생님연구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성묵은 의아해서 물었다.

《비서동무,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방직설비들의 발전이 대단히 빠릅니다. 일부 이 부문과 학자들은 방직설비에 대한 연구사업은 더는 할 것이 없다고까지 말한답니다. 내 지금까지 자기 과제만 안고 모태졌지 옆동무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그 허물을 안 이상 고치려고 합니다. 방직설비 고속화과제를 맡은 석훈동무부터 힘 자라는껏 도와 주겠습니다.》

강성묵은 가슴이 찡했다.

석훈동무란 바로 오늘 그가 집에 초청했을 때 듣기 좋게 거절한 사람이 아닌가.

그 사람을 타할 대신 오히려 조용인은 자기 허물을 꾸짖고 있지 않는가.

강성묵은 조용인을 찾아 온것이 천만다행스러웠다.

강성묵은 생일인지도 모르고 가정방문 삼아 오다보니 술 한병 들고 오지 못한것이 아쉬웠다.

《내가 빈손으로 왔지만 술병은 내가 쥐어야 하겠습니까.》

강성묵은 조용인이 쥐고 있는 술병을 받아 쥐고 아래 방에 있는 가족들을 불러 웃방으로 올라오게 하였다.

그리고 가족들이 먼저 술을 붓게 하고 마지막에 술병을 넘겨 받았다.

《난 집에 와서야 오늘이 선생님생일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덜통한 사람입니다. 나도 선생님의 생일을 축하해서 한잔 붓겠습니다.》

조용인은 당비서가 부어 주는 술잔을 받아 들고 눈물이 그렇게 마셨다.

《비서동무, 내 지금까지 주제넘은 소리 같아서 공처 안고 있던 생각을 몇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인민들이 먹는 김치와 장을 비롯한 기초식품과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고 조치를 취하여 주셨습니까? 인민들에게 나날이 더 좋은 김치와 장을 공급하자면 이 일은 어느 한때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만둘 일이 아닌데 김치연구실과 장연구실을 다 없애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외에도 염료연구실을 비롯해서 없어진 연구실들을 다시 내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과 마주 앉은 내 걸음이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비서동무야 여기 오신지 이제 몇달밖에 안되는데 어디 천여명의 사람들과 다 마주 앉을 시간이 있었습니까?》

강성묵은 밤이 깊어서야 조용인연구사의 집에서 나왔다. 조용인의 말이 다시금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강성묵의 생각은 깊어 졌다.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인재를 선발할 때 시비를 따지는 방법으로 사람의 뜻을 보고 말문이 막히게 하는 방법으로 사람의 변술을 보았다 하지 않는가.

강성묵은 자기는 오늘 조용인의 참된 성품을 알게 된것이 기뻐했다.

### (3)

그날은 눈이 많이 내리던 밤이었다.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늦게야 퇴근하던 강성묵은 마지막빠스도 놓쳐서 가까이에 있는 방직연구소에 들렀다.

마침 조용인이 경비를 서고 있었다.

그와 한밤을 지내게 된것이 기뻐했다.

조용인은 당비서가 오게 된 사연을 알고 아침 밥으로 가져 왔던 밥곽을 들고 나왔다.

강성묵이 저녁요기를 하고 왔다고 말렸으나 막무가내였다.

《배고픔과는 타협을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서동무는 배 고픈 설음을 체험해 봤습니까?》

강성묵은 조용히 자기 말을 뇌이였다.

《...내 고향은 련포라는 바다가마을인데 그 고장에 정착하게 된것은 결국 이 배고픔때문이었지요. 여기저기로 뜨내기살이하면서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곳이 고향이 되었지요. 나는 아이때부터 먹성이 좋고 너무 세차서 종일 바다가에서 조개를 건지거나 배군들의 그물을 끌어 주고 여러가지 잡어들을 몇마리씩 얻곤 하였습니다. 그것이 맛갓잖으면 갈밭에서 갈계를 잡아 구워 먹고 호수가 줄풀에서 손을 떼먹고 술밭에서 술손을 뜯어 먹고 하며 이것저것 군인질하면서 살았지요. 한번은 해당화 열매를 지나치게 따먹고 뒤가 메여 어머니를 고생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없이 흘리던 어머니의 눈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게 설음이 아닙니까. 내 아이때도 배 고픈 설음이 몸에 푹 배여 있었습니다. 덕산이라는 산골에서 살다가 철도로동을 하는 아버지를 찾아 도회지로 나갔는데 일본놈들이 태평양전쟁때 철도로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심해서 거기에도 머물지 못하고 아버지의 외가전을 찾아 바다가마을로 가던 겨울날이 기억됩니다. 눈이 펄펄 쏟아지던 날 뼈격거리는 달구지 뒤채를 잡고 걸으면서 발이 시려 안타까와 하던 일이 눈에 선합니다. 그때가 4살이었습니까.》

《난 일곱살때 일이 기억납니다. 소작빚값에 집안 가사를 몽땅 차압 당하고 한지에 나앉게 되자 아버지는 돈 벌러 간다면서 어디론가 떠나고 어머니마저 앓아 눕게 되어 내가 지주집꿀먹음으로 끌려 가던 일이 말입니다.

그때 나는 하루 한두끼밖에 못 먹으면서 밤에는 광술불밑에서 새끼를 꼬고 짚신을 삼았는데

하도 배가 고파 배추뿌리를 울면서 씹던 일이 잊혀 지지 않습니다.》

조용인은 석탄불에 덥힌 밥과 찬을 펼쳐 놓았다.

《어서 드십시오. 1시가 넘었습니다. 얼마나 시장 했겠습니까?》

《밤참 삼아 같이 드시다.》

《아닙니다. 난 담배를 피워 물고 한바퀴 돌아 보고 들어 오겠습니다.》

강성묵은 뜨끈한 밥에 감자장을 맛 있게 먹으며 생각하였다.

(조용인이나 나나 인생출발은 같았다. 그의 일제에 대한 반감이 나와 다를바가 무엇인가.)

《맛 있게 먹었습니다. 그 배추뿌리를 생각하며 말입니다.》

강성묵은 웃으며 이야기를 계속하라는듯 이렇게 부추겼다.

조용인은 자리를 펴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배우지 못하는 설음도 배 고폰 설음에 못지 않습니다. 나는 동리아이들이 공부하는것이 너무 부러워 지주놈의 눈살을 피해 가면서 천자문을 떼었습니다. 시간을 얻어 내는 방법은 전날에 풀 많은 곳을 미리 봐두었다가 이른 새벽 창문이 푸름푸름 해질무렵에 들에 나가서 풀 한짐을 제껴 해다 놓는것이였지요. 그리고 발길을 땄 때는 늘 서당집주변밭을 도맡아 매면서 글 읽는 소리를 따라 외우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 것은 천자문을 외울줄만 알고 쓸줄 모르는것이 탈이였습니다.》

한번은 학교운동회에서 상으로 연필과 공책을 준다는 말을 듣고 십리길을 걸어 나간적이 있습니다.

무진 애를 써서 1등을 하고 상을 타게 되니 학생이 아닌 놈이 달리기경기에 끼여 들었다고 학생들이 못 매를 안기지 않겠습니까. 매를 맞고 눈물을 뿌리며 집으로 돌아 오던 그 저녁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다가 12살 나던 해에 아버지가 돈을 구해가지고 사립보통학교에 보내주었습니다.

그 다음 겪은것이 잠 못 자는 설음이었습니다.

지주집에, 내 집에 땄 나무를 해야 하고 농사일도 도와야 했고 별의별 심부름을 다 들어야 했습니다. 지계와 풀망태를 벗어 놓을 사이가 없었습니다.

불앞에서 졸다가 화상을 당하고 나무하러 산에 올라가 자다가 동상도 입었습니다.

잠이 모자라 불씨에 옷이 타들어 오는데도 깨여 나지 못하고 쉼신에 얼음이 배겨 발이 얼어 들어 오는데도 깨지 못하였습니다. 동네어른들이 그걸 보고 나무 한단씩 해주어 그걸 지고 집으로 돌아 온적이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풀망태는 끈이 길어서 어깨에 메지 못하고 늘

머리우에 올려 놓고 다니였습니다.

그 끈을 지주놈의 승인없이 줄였다가 봉변을 당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반항심은 쌓이고 쌓이는 설음속에서 싹 트는가 봅니다. 사립학교시절에 황근수라는 담임선생은 나를 특별히 돌봐 주었습니다.

나는 그 선생님을 무척 따랐습니다.

그 선생님은 <푸른 하늘 은하수...>, <울밑에 선 봉선화...>라는 노래를 배워 주며 나의 반항심을 키워 주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다가산밑에 있는 신사에 가서 신사참배를 하는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일제경찰이 학교에 와서 그 선생에게 강제로 학생들을 신사당앞에 줄을 세워 놓고 경례를 시키도록 하였으나 선생은 <탈모>(모자벗었)구령만 치고 끝내 경례구령은 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또 그에게 잡귀신령기를 시켰으나 역시 절을 하지 않고 버티고 서 있자 놈들은 악에 받쳐 그를 체포해 갔습니다.

나에게는 그 무언의 항변을 하던 선생님모습이 잊혀 지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안 일인데 그 선생님이 지금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강좌 교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직 못 만났습니까?》

《이번 연구과제를 성공하고 찾아 가겠습니다.》

《그러면 상봉하는 뜻이 더 깊겠습니까. 그러니 선생님에게도 그런 스승이 있었구만요.》

자리에 누웠던 강성묵은 다시 일어 나 앉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여전히 눈까비는 네온등불빛속에서 꽃보라같이 흘날리고 있었다.

《황근수선생이 체포되어 간후 우리 학급을 담임한 선생은 김종순이었습니다.》

보통학교졸업후 나의 앞길은 막혔습니다. 중학교 모자를 써보고 싶은 꿈은 이루어 질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열일곱살인데다가 가정형편이 허락칠 않았습니다. 이런 때 김종순선생이 내 나이를 줄이고 자기 돈을 써서 사범학교에 입학시켜 주었습니다.

당시 일제는 사범학교를 졸업하면 의무적으로 교원을 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사범학교로 옮겨 간후에도 김종순선생은 자기 집에 있는 책들을 가져다 보라고 해서 런계가 끊여지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처음 골라 준 책이 <조선독립사>라는것이였습니다. 난 그걸 마루밑 흙속에 감추고 밤마다 읽곤 하였습니다.

내가 사범학교 2학년때인 1941년에 일제는 조선민족말살정책에 열을 올리다 못해 교육자를 키우는 사범학교에서마저 조선어학과를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때 김종순선생은 <조선어학회>라는 비밀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라고 세세히 가르쳐 주

었습니다. <조선어학회>에 망라된 학생들은 조선어가 폐지된 때이지만 일본 신사당이 있는 다가산에 올라 가서로 우리 말을 주고 받으면서 모임도 가지고 조선말책도 읽었습니다.

다가산에는 바위돌에 줄이 쪽쪽 나 있었는데 그것은 **김일성** 장군님께서 타고 오신 말발굽에서 생긴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 장군님을 그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갈 때마다 일본말책을 가지고 가서 깔고 앉았다가 일제순사가 나타나서 <무슨 책을 보는가?>하면 그것을 들어 보였는데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놀들에게 발각되어 동창생인 리석기는 종시 자취를 감추고 있다가 일본으로 몰래 건너 갔습니다. 나는 1944년에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김계군 금구 국민학교 교원을 했는데 이 학교에는 일본놈인 악질교원 사이포란놈이 있었습니다.

이놈은 조선학생들에게 너무나 못된짓을 많이 해서 원성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놈이 조회때 전교생들에게 땅바닥에 엎드려 현수 100번을 하라고 강박하고는 기진맥진하여 땅바닥에 배를 붙이면 그들의 잔등을 짓밟아 주며 오락가락하였습니다.

이때 학생들의 울분이 일시에 터져 운동장가까지 배추밭울타리 말뚝들을 모조리 뽑아 들고 사이포란놈을 죽탕이 되도록 때려 주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주재소에 끌려가 류치장생활을 하였습니다.

8.15조국해방의 날이 없었던나 나는 그 철창속에서 속절없이 죽었을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난 강성묵의 생각은 깊어 졌다.

그에 대한 리해가 깊어 지면서 그와 더 가까이 사귀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굳어 졌다.

앞으로 연구소에서 보다 큰 연구성과를 위해서 사람들을 깊이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집단의 공기가 맑자면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리해와 평가가 정확해야 한다. 그 리해가 부정확하면 평가도 부정확하고 그 평가가 부정확하면 그 리해도 부정확한것이 아닌가?)

그에게는 그 열정의 샘과 그 뿌리가 있지 않은가!)

## (4)

금요로동현장에서 조용인을 멀리서 띄여 본 강성묵은 그에게로 가서 함께 가래질을 하였다.

강성묵은 삽을 대고 조용인과 조수처녀가 줄을 잡아당기었다. 그런데 줄당기기가 제대로 되지않아 한동안 애를 먹었다.

조수처녀가 제땃인줄 아는지 부끄러워 어찌할바를 몰랐다. 그의 마음을 녹찾혀 주느라고 강성

묵이 입을 열었다.

《영란동무가 경험이 없는거야 흠이 아니지. 전문학교를 갓 졸업했으니까. 일은 세사람이 하는 일이니 손발을 맞추자면 육감으로 그 묘리를 터득해야 하오. 지금은 제 힘이 약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만으로 무턱대고 줄을 당기면서 힘내기하거던...》

《하루면 해결되겠지요.》

조용인이 자기 조수를 두둔해 주었다.

《아닙니다. 하루면 늦습니다. 한시간내에 터득해야 합니다.》

정말 눈썰미 있는 영란은 인차 가래질호흡을 잘 맞추었다.

《보십시오. 해내지 않습니까. 영란동무를 연구사로 키우는 일도 늦잡지 말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긴 어떻게 각성하는가 하는것이 중요한것만은 사실입니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 성장한 키도 각이하지만 각성에 따라 성장한 키는 더욱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까.》

난 사실 미국놈들이 남조선을 점령하였을 때 동생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동생이 내 선배였지요.》

《동생이 선배라니요? 그거 흥미 있습니다.》

강성묵은 기대를 가지고 응수하였다.

《당시 전주전열회사의 전공이었던 내 동생 조용민은 미국놈들의 정체를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은 해방자가 아니라 강점자라고 하면서 맥아더가 비행기로 첩보원들을 서울에 보낸후 다음날 일제의 조선총독이었던 자에게 남조선 <치안>을 미국에 넘겨 주기전까지 현지의 <치안>을 책임지고 유지할 <특별명령>을 주었다는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동생은 미제가 일본놈의 물질인내를 받으며 선발대를 인천에 상륙시키고 38도선에 배치한다는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은 서울에 기여 든 하지가 총독부는 일본인이 통치한 기관이기는 하지만 이 기구를 리용한다고 선포하면서 갓 생겨 난 인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시킨것만 보아도 미제가 조선인민을 노예로, 일제를 동반자로 삼는다는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루는 동생이 옷에 피칠을 해가지고 들어 온 날이 있었습니다. 웬일인가 놀라 물으니 미군의 칼에 찔려 죽어 가는 동리청년을 업어다 주고 오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청년은 3일전에 잔치를 한 집의 새서방이었습니다.

새서방이 새색시와 함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수발에 가리운 큰 길에서 미군짚차가 나타났답니다. 세놈이 휘파람을 불어 대며 달려들어 두놈은 새서방앞에 단도를 빼들고 한놈은 새색시에게 백포를 뒤집어 씌워 둘러 메고 차 있는데로 갔답니다. 동쪽우에서 피를 흘리며 놈들

과 싸우던 새서방은 차에서 들려 오는 새색시의 애처로운 목소리에 이를 갈며 일어 섰답니다.

그날 동생이 하던 말이 지금도 잊혀 지지 않습니다.

<형님, 이런 억울함을 어데다 하소하겠습니까. 이런 치욕을 당하면서 살아서는 뭘합니까!> 그 새서방으로 말하면 악혼한 처녀를 뒤에 두고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청년이었습니다. 내 운명도 그 청년의 운명과 달리 될수 없다는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은 순간이였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동생의 권고로 학교지하조직에 망라되어 반미반피뢰투쟁에 나섰습니다.

악질교원추방, 동맹휴학을 벌였습니다.

10월인민항쟁때 풍남국민학교 옥상과 교문에는 경찰들이 기관총을 걸어 놓고 위협사격을 하면서 시위자들이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나는 완산철공소 노동자들과함께 가서 뚫고 나갈 방도를 의논하고 그들과 함께 교문을 향해 와와 함성을 지르며 달려 나갔습니다. 뒤이어 모든 대렬이 빠져 나가 항의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시위군중을 쏘아 대는데다 갑자기 나타난 미군들의 땅크가 포문을 열고 불을 토하는 바람에 많은 사상자가 거리를 덮었습니다. 나는 난생 처음 보는 비참한 광경을 보면서 통곡하였습니다.》

어디선가 싱그러운 봄향기가 풍겨 왔다.

조용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내가 은신해 있는 곳은 울창한 수림속이였습니다. 거기에 전주사범학교 동창회성원들이 여러명 있었습니다. 나는 그 성원의 한사람으로 그때 전주거리를 피로 물들인 경찰국장을 상대로 항의뺨라를 뿌리고 습격도 하였습니다.

그 경찰국장은 만주에서 일체의 <로벌대>를 따라 다니며 동족에게 악질만행을 다한 죄 많은 놈이였습니다.

이놈은 <빨갱이>학교로 소문난 전주사범학교의 취주악대를 풍지박산내고 전주사범학교 동창회성원들을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체포하라고 비밀지령까지 내린 놈이였습니다. 나는 그놈이 자주 드나드는 마을에 은밀히 들어 가 농민들에게 그놈의 죄상을 고발하였습니다. 원한에 사무친 농민들이 남원군으로 가는 서도리 길가에 통나무를 가로 놓아 차를 멈춰 세우고 그놈을 붙잡아 논물도랑에 처박고 짓밟아 주었습니다.

흙탕에 범벅이 된 그놈은 목숨이 붙어서 살려만 주면 다시는 동족을 해치는것을 안하겠다고 애걸복걸하였습니다.

그래서 놓아 주었는데 그것이 더 큰 화를 가져올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놈은 도리어 더 살기등등해서 경찰을 몰고 와 그곳 농민들을 수 많이 죽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피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 내 동생 조용민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적이 깃들어 있는 숲속을 나와 같이 걸으면서 처음에는 미군병영과 미군기지에 뺨라를 뿌렸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미제가 조선을 둘로 갈라 놓기 위해 남조선 단독선거를 실현시킬 목적으로 <유엔조선위원단>을 들이밀 조작을 하였다는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남원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개인테로에 매달리는것도 나쁘지만 그마저 서툴렀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동생앞이지만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내 동생 조용민은 자기가 좋은 동무를 하나 데리고 왔다면서 손 잡고 같이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미군에게 새색시를 빼앗긴 그 새서방이였습니다.

그의 칼자리상처들은 아물었으나 새색시 생사여부는 알길이 없었습니다.

놈들에게 항의했으나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방춘만이였습니다. 나는 자주 그의 몸에 난 험상한 흠집들을 보면서 미제에 의한 조국분열의 아픔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그후 나는 미군병영과 미군기지주변에 항의뺨라를 뿌리는 한편 <유엔조선위원단>의 입국불허투쟁과 5.10단선반대투쟁을 벌리다가 체포되어 형무소 감방에서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옥중생활기간에 나는 갓 태어난 아들을 업고 온 안해와 면회하였는데 그때 안해로부터 전주시에 있던 나의 동생이 고창무장사건을 지휘한 <죄>로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을 받아 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창무장사건이란 고창인민들이 무장봉기로 미군과 피뢰군병영을 습격한 사건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나의 두 녀동생들도 지하조직이 탄로되어 우리 집은 경찰의 빈번한 수색으로 단련을 받다가 산골인 고사동으로 몰래 이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폐인이 되었다니 복통이 터질 일이였습니다. 그는 우리 집의 자랑이였고 우리 마을의 자랑이였습니다.

내가 그가 남긴 빈자리의 한 번두리라도 메꾸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옥중에서 싸움을 과감히 벌였습니다. 형무소에심감방에서 불리워 나갈 때마다 손에 무장을 들고 싸우던 내 동생을 그려보며 검찰의 강압적인 판결도 부인해 나섰고 경찰의 고문대에 올라서도 <증거>를 부인해 나섰습니다. 결국 나는 <증거불명>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요시찰인물로 지목된이상 다시 고향으로 갈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서울로 피신해 올라 가 동대문구 창신국

민학교에서 교원생활을 하였습니다.

1949년 2월 학교국기계양대에 공화국기발을 계양한 사건으로 경찰의 감시가 심해 졌습니다. 게다가 전주시의 형사들이 신원조회를 뺑질나게 드나든다는것을 알고 다시 피신하여 ○○강수력 발전소 건설장으로 가서 로동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대오의 단결과 순결성이 얼마나 중요한것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끌려 들어 성묵은 시간 가는줄 몰랐다.

## (5)

며칠후 강성묵은 조용인과 함께 인민군부대에서 훌륭하게 건설한 발전소를 참관하러 열차에 올랐다.

조용인은 창밖을 내다보며 입을 열었다.

《...적들의 공격을 격퇴하고 반격해 나오는 인민군대의 뒤를 따라 내가 전주에 다시 들어 선것은 7월 20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전주시가 인민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날입니다. 혈육들을 만나 밝은 앞날을 그리며 한밤을 지새우던 그날이 잊혀 지지 않습니다.

동생은 출옥후에도 굴함없이 싸우다가 48년에 공화국창건을 지지하는 련관장을 가지고 해주시인민대회에 참가하려 입북하였는데 그후의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새로 당, 정권기관이 나왔을 때 나는 동생의 몫까지 일한다고 전주시내무서 서원으로 일하면서 노상 뛰었습니다.

그땐 할 일은 많고 일손은 적었지만 일하고 일해도 피곤을 몰랐습니다.

그런 속에서 인민군대의 일시적인 전략적후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접하였습니다.

나는 내무성무장부대에 편입되어 후퇴의 길에 올랐습니다.

떠나기전에 나는 부모처자, 형제들과 인차 돌아 오리라 약속하고 북행길에 올랐는데 어느덧 50년이 넘었습니다.

나는 결혼하여 오누이를 보았지만 형무소와 피신생활만 하다보니 제자식 얼굴 한번 익히지 못한채 헤어졌습니다.》

《그랬겠지요.》

《우리 무장부대는 큰 길에서 리탈하여 행군로정을 산속으로 돌렸습니다. 추풍령을 앞에 두고 한 부락에 들렀는데 친절한 주인령감은 마을에 머물면 큰 변을 당한다고 서둘러 보리밥을 해먹이고 길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얼마쯤 가서 정말 두대의 적찢차가 헌병들을 태우고 교차순찰을 하면서 북으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였습니다.

우리는 적찢차들을 해치우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오면서 무참히 희생된 사람들을 보고 그

냥 갈수가 없었던것입니다.

5명의 습격조가 조직되어 교차지점으로 내려갔습니다. 매복해 있다가 두 찢차가 만나는 순간 수류탄 벼락을 안겨 소멸해 버렸습니다.

우리와 헤어지는 주인령감은 손으로 눈굽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들을 언제 보게 되겠나?>

<인차 다시 나옵니다.>

<오늘은 보리쌀밖에 없어서 푸대접을 했네만 이 다음엔 흰 쌀밥을 해주겠네. 분여 받은 내 땅이 얼마나 좋은지 아나.>

주인로인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돌아서 걸어 갔습니다.

앞에 놓인 멀고 험한 길은 인민들의 원한을 안고, 희망을 안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큰 길을 피해 산을 오르내리며 낮에도 밤에도 걸었습니다. 극도로 피로해 진데다가 발이 부르토고 먹지 못해서 걸음은 더디었습니다.

한발자국이라도 빨리 북으로 옮겨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도토리, 다래, 찢팡이 같은 산열매를 따먹으며 걸었고 졸음이 참을수없이 몰려 들 때는 포승줄 량끝을 천 동무들을 앞뒤직일로 정하고 그가운데서 그 졸을 잡고 걸으며 갔습니다.

그러다가 가파로운 산길로 굴러 떨어 진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어슬어슬한 저녁에 우리 일행은 광산협계가 지나간 어방에서 마을을 발견하고 은밀히 내려 갔는데 어느 집에선가 통곡하는 울음소리와 함께 여러필의 말투레질소리가 들려 와서 목이 갈 곳이 못 된다고 단념하고 한집에 들어가 주인을 불러 내어 길안내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선선히 나선 주인은 마흔살이전의 팔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뜨락을 나서면서 집에 앉아 누운 사람이 있어서 멀리까지는 못 가겠으니 량해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을뒤산에 올라 어둠속의 산봉우리를 가리키며 속리산으로 가는 길을 알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헤어져 얼마 안 가서 머리위에 오르는 신호탄을 보고서야 그놈이 마을에 잠입한 적이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적들의 박격포집중사격에 모두 쓰러진후 다시 일어 나지 못하였습니다.

나 혼자 살아 남았습니다. 우리 일행은 13명이었습니다.

나는 분통이 터져 올라 가슴을 쳤습니다.

비가 오려는지 하늘엔 검은 구름이 무겁게 흘러 가고 군견을 앞세우고 산속을 수색하는 놈들의 총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내가 살아 남을수 있을까? 설사 목숨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 천신만고해 새 세상을 향해 걸었

다 한들 누가 알아 줄 사람이나 있는가?)

허기질대로 허기지고 피로할대로 피로해 진 속에서 한걸음두걸음 북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적들의 추적을 받는듯 한 몇사람이 어둠속에서 숨을 헐떡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의식중에 덩불속에 몸을 숨기고 그들이 내 옆을 지나갈 때까지 동정을 살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틀림 없었습니다.

세사람중 한사람은 인민군복장이고 두사람은 사복이었습니다.

그들이 진 배낭이며 가슴에 멘 기관단총이 다 눈에 익은것이고 짙막하게 주고 받는 말마디들이 우리 사람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동무들, 놀라지 마시오. 난 전주에서 내무성무장대에 편입되어 후퇴하다가 적박격포집중사격에 동무들을 다 잃고 혼자 살아 남은 사람ियो.>

<전주요?>

<그렇소.>

<이름을 어떻게 부르요?>

<조용인이라 하요.>

<조용인!>

나의 몇발자국앞에 었던 세사람중 한사람이 벌떡 일어 나 내게로 달려 왔습니다.

<나 방춘만이야!>

그는 나를 두손으로 툭 치고 그러안았습니다. 고향마을에서 미군에게 새색시를 빼앗긴 새서방을 여기서 만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방춘만은 몸에 칼자리흠집이 여러군데 있었으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싱싱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써도 곱힐수 없고 잠 재울수 없는 기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나는 일시나마 고독감과 절망감에 빠졌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용감해야 진짜배기가 아닙니까.

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앞에 나타난 방춘만의 기상은 투쟁의 길을 끝까지 걸어 갈 새로운 의욕의 불을 지펴 주었습니다. 다른 두사람은 인민군소위 안철성과 정치공작대원 문정식이었습니다.

놈들은 우리가 인민들과 접촉할수 없게 산간주민들을 추방하고 마을을 불 사르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든 곤난이 홀몸을 입은 몸에 추위와 함께 엄습해왔습니다.

그런속에서도 안철성은 적보초소에 접근해 가서 군호도 알아 내고 적잠복초를 기습해서 허를 통해 적정도 장악하며 <향토방위대>원을 잡아 길 안내도 시켰습니다.

안철성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군인의 총에서 불길이 뿜으면 총구에 곰팡이 쓴다, 혁명하는 사람이 머리를 쓰지 않고 육신을 놀리지 않으면 목구멍에 거미줄 친다고 하군 하였습

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안철성소위의 성미가 단숨히 타고 난 기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곤경에 빠져도 동요를 모르고 절망을 모르는 인간을 보았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면서 우리들을 즐겁게 웃기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중에서 <발갈이노래>, <봄노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적후에 있었지만 내가 향해 가는 새 세상이 눈앞에 확연히 그려 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리가 가랑비 내리는 덩불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안철성이 급히 깨우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개 중대가량의 적들이 코앞에 있는 산우에 불시에 나타난것입니다.

우리는 수림이 우거진 속으로 들어 갔습니다.

이때 적의 정찰기가 머리위로 날아 와 선회하였습니다.

안철성은 개활지대로 나가 우리를 로출시키고 인원이 많은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수림과 개활지대로 반복해 달리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숨이 턱에 닿아 헐떡거리며 몇번 오락가락 하면서 총질까지 하고 갔을 때 적정찰기가 날아 올 때처럼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적들이 있는 산정에 맹사격을 가하고 북으로 강행군을 하여 멀리 리탈하였습니다.

그러자 건넌산에 있던 적들이 우리가 차지하고 있던 산으로 게바라 올랐습니다.

아니나다를가 적기들이 날아 와 기총사격을 하고 로켓트란과 휘발유통까지 떨어지며 제편놈들 있는 골짜기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통쾌한지 몸은 날개 돋힌듯 가벼워 졌습니다. 안철성소위는 우리에게 <저곳에 다시 가면 전리품이 많을텐데, 이 배도 채울수 있고, 예이 그만 둔다, 모험도 도수 넘으면 안돼.>라고 하였습니다.

가랑비가 멎고 해빛이 비쳐 드는 산중턱에서 우리는 휴식하면서 비에 젖고 땀에 젖은 옷을 쥐여 짜서 말리였습니다.

나는 옷주머니에서 화락 젖은 수첩을 꺼내는 순간 희생된 내무성 무장대 대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수첩도 그가 기념으로 준것이고 거기에는 그가 배워 준 노래가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동지라고 불러 주고 동지의 의미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나는 그 수첩에 희생된 무장대성원 12명의 이름과 주소를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된것은 안철성소위의 덕분이었습니다.

신념이 확고한 사람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늘

여유있게 락천적으로 생활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가랑비를 맞으며 덩불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의논하고 있을 때 안철성은 옷때무시를 바로 하면서 이제부터는 본때 있게 싸워 보자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부대를 지휘하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정말 채 마르지 않은 군복상의에서 소위견장을 말끔히 닦으면서

<당분간만 낮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워 보자구.> 안철성은 혼자소리처럼 말하였습니다.

그 놀라움이 탄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우리 일행은 속리산계선에서 벌써 소대력량으로, 오대산계선에서는 거의 중대력량으로 늘어 났습니다.

두명, 다섯명, 스무명으로 후퇴하던 군인과 시민 모두가 안철성의 명령에 복종하였습니다. 그들중에는 군관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훌륭한 지휘관을 만난것을 더 없는 행운으로 생각하면서 신심을 가다듬었습니다.

안철성은 립시로 분대장, 소대장들을 임명하여 정연한 지휘체계를 세웠습니다.

식량로획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도로에서 이동하는 적을 습격하는 일도 있었으나 한시바빠 기본부대와 합류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행군이 얼마나 급했는지 어느 면위원장이라는 중년사나이는 자기는 더 견지 못하겠으니 살아서 적들에게 잡힐 생각은 없다면서 머리에 총한방만 쏘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나이가 부끄럽지 않은가고 내가 막 욕설을 퍼붓고 있는데 안철성이 다가와서 나를 툭 치고 나서 그에게 한마디 하였습니다.

<김립성장군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 맞습니까? 그런 죽음은 도리를 지키는게 아닙니다. 살아서 새 임무를 받아야 합니다.

더 견지 못하겠으면 내가 업고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번갈아 업고 가겠습니다. >

그는 눈물을 머금고 아무말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얼마후 안철성은 휴식구역을 내렸습니다. 그는 저조해 진 기분상태를 옷음속에 날려 보내려 무릎싸움놀음을 걸어 놓고 누구든지 자신 있는 동무는 나서라고 하였습니다.

맨 먼저 정치공작대원 문정식동무가 나서고 다음엔 방춘만과 내가 나섰습니다.

뒤이어 너도 나도 자리를 털고 일어 나 서로 어울려 무릎싸움까지 하며 한바탕 웃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립제에 들어 섰을 때 해빛에 단풍이 타는 산아래에서 사복한 세사람을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최고사령부에서 후퇴하는 부대들을 위해 파견한 성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안내를 받아 사단에 편입되었습니다.

수림속에는 락동강계선까지 나갔던 군인들과 정치공작원, 해당지역의 당, 정권기관일군들이 수천명 모여 들었습니다.

적후 제2전선부대로 편성되고 있었습니다.

안철성은 최고사령부 연락군관과 사단장앞에서 인원을 인계해 주고 나서 편입되었습니다.

우리 세사람- 문정식, 방춘만, 나를 제외한 모든 동무들이 그의 위훈을 놀란 눈을 하고 지켜 보았습니다.

<동문 영웅이요, 수고했소.>

사단장의 목소리에 화답하듯 모든 동무들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담가에 누워 있는 동무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대오안에서 본래 자기보다 높은 군사칭호를 가지였던 지휘관들에게도 일일이 사죄하였습니다.

인민군 대부대를 만나고 38도선 이북에 들어선 때로부터 나는 마음의 평온과 정신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것은 안철성과 헤어지는것이었습니다. 같은 군단이기는 하지만 사단,련대가 달랐습니다. 정식 대대장으로 임명되어 가는 그를 따라 가려고 많은 동무들이 무진 애를 썼으나 모두 허사였습니다.

전선길을 함께 걸은 전우들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란 말의 참뜻이 안겨 왔습니다.》

## (6)

렬차가 역구내에 서서히 들어 섰다. 뜻밖에도 마중 나온 부대 정치위원이 조용인을 일싸 안고 돌아갔다.

《비서동지, 이분이 내 전우입니다. 내 말하던 정치공작대원 문정식동무입니다.》

《그렇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이런 상봉이 있어 생활은 제 곁을 따라 흐른다고 하는가 봅니다.》

그날 밤 그들 셋은 긴 결상에 앉아 바다바람을 쏘이며 전쟁시기 체험담을 나누었다.

적후 제2전선활동시기가 가장 인상적인지 이야기는 자연히 거기로 집중되었다.

조용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린 세포군 후평리에 머물러 있을 때 같은 날에 문정식동무는 문화부중대장이 되고 나는 후방부대소대장이 되었지요. 11월에 들어 섰지만 솜옷은 입지 못하고 여름옷을 한벌 더 꺼입고 적후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군관혁띠를 띠고 소위견장을 단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자주 그것을 매만지며 내 임무의 무게를 자각하곤 하였습니다.

하루는 행군을 앞두고 식량예비를 마련하려고 주인을 찾던 끝에 그때까지도 가을하지 못한 논에서 벼를 훑는데 한 로파가 다가와서 남의 집

벼에 손을 댄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원들이 귀가 어두운 로파에게 알아 듣게 설명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수없이 대원들을 데리고 마을로 들어가 주인을 찾았으나 모두 피난 가고 역시 빈 집들뿐이었습니다.》

문정식정치위원이 그뒤를 잇는 바람에 조용인은 입을 다물었다.

《바로 그날 조용인동무는 우리 총알에 죽을번했습니다. 마을에 나타난 문화부사단장의 눈에 걸린 조용인소대는 군중규률위반으로 군인대중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항일유격대출신인 사단장도 와 있었는데 그는 군중앞에 머리를 떨구고 서 있는 조용인소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지겠는가?>

잠시 대답을 못하고 있던 조용인동무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인민의 재산에 손을 대면 죽음이라는것을 깨달은 이상 각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손으로 사죄하고 식량을 가져 온 빈 집들에 령수증을 써놓게 해주면 한이 없겠습니다.>

조용인동무의 이 말은 걸음마다 사선을 헤쳐온 군인들의 거칠어 진 심장을 정화시켜 주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려 왔습니다.

<좋소. 그렇게 하시오.>

사단장은 조용인의 소원을 들어 주었습니다.

조용인동무는 소대를 이끌고 식량을 가져 온 집들에 령수증을 써서 그들과 바가지밑에 넣고 벼가을을 하여 집마당까지 날라다 쌓아 주었습니다. 로파는 우리 인민군대가 먹을 쌀이라면 모두 도로 가져 가라고 사정하였습니다. 벼만 아니라 무우도 다 뽑아 오가리를 해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동리에 남아 있는 로인들까지 불러다 무우를 썰었습니다.

결국 조용인동무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혼났답니다.》

조용인이 문정식의 말을 받았다.

《사단장은 내가 의용군출신이라는것을 두고 생각을 깊이 하였을것입니다.

고향과 부모처자를 다 두고 따라 나선것을 크게 보았을것입니다.

더우기 같이 떠난 대오를 잃어 버리고도 집으로 돌아 서지 않고 38도선이북까지 들어 선것을 더없이 귀중히 여겼을것입니다.

<죽는게 억울하지 않는가?> 하고 묻던 사단장의 목소리엔 그런 의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사단장을 통해서 항일유격대의 풍모를 느낄수 있었습니다.

사단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일무장투쟁시

기 자기가 김일성장군님의 손길아래서 성장하던 이야기를 들려 주곤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잊혀 지지 않는것은 겁이 많았던 자기에게 배짱을 키워 주시려고 김일성장군님께서 경험 있는 동무를 붙여 주었던것입니다. 그 동무가 경찰서에 술병을 들고 들어 가 무기를 빼앗아 오기도 하고 땔나무를 해다 주는척 하고 수류탄을 나무단속에 감추어 가지고 들어 가 일체의 소굴을 소탕하기도 하였던것입니다.

사람은 배짱이 있어야 대적앞에서도 슬기와 열정을 발휘하게 되고 그래야 앞길이 열린다는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안철성을 통해서 깨달은 뜻이었습니다.

나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 그때마다 그 깊은 뜻을 깨닫곤 하였습니다.

여기 문정식동무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오에 적후활동이 활발해 지던 때였습니다.

야간행군때에는 떨어 지지 않으려고 등뒤에 흰 천 표식을 하고 서로 앞선 동무의 그 표식을 보며 달리곤 하였습니.

우리 부대가 화천군의 한 면소재지를 불의에 들이 쳤을 때 적들은 저녁밥을 해놓고 먹지도 못한채 죽거나 도주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위생지도원의 검식이 있은후 식사를 푸짐히 하고 온돌방에서 푹 쉬었습니다.

이런 휴식이란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날 밝기전에 출발명령이 내려졌는데 나는 일어나지 못하고 눈만 껌껌거리었습니다.

여기 문정식동무가 나를 돌쳐 업고 대렬에 들어 서서 가다가 힘들면 내려 놓고 정신이 들게 흔들기도 하고 흰 눈을 한응큼 쥐여 등에 비벼뒀으나 정신을 차릴수 없었습니다.

한 10리가량 가서야 내가 소생했는데 알고 보니 숲 불화로옆에 코를 박고 자서 가스중독에 걸렸던것입니다. 제 한몸이 무거운 때에 체통이 큰 나를 업고 걸자니 오죽 힘들었겠습니까.

지휘관이 부하를 살리겠다고 스스로 말아 나선 일은 나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나서 처음 체험하는 세계였습니다.

이때 사단장이 나에게 귀뜸해 주어서 알았지만 내가 군중규률을 위반하고 총살 당할번 했을 때 남 모르게 사단장을 찾아 가 나를 보증해 나선 사람이 바로 이 문정식동무였습니다.

내가 소대장이 된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철성동무가 다른 사단으로 가면서 나를 특별히 보증하였습니다.

나에게서 무엇을 보고 그렇게들 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나는 그 믿음이 고맙고 그 믿음을 소중히 지켜야 하겠다는 의리심을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우애, 동지애가 아니겠습니까.



적후활동의 걸음걸음이 동지애의 길이었지만 내가 그것이 위력한 무기라고 생각하게 된 잊지 못할 체험이 있습니다.

녕월까지 나갔다가 다시 북으로 갈 때 있는 이야기입니다.

300여명에 달하는 전상자, 재귀열환자를 한사람도 떨구지 않고 담가에 들고 또는 부축하고 업고 갔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는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칙으로 여기었습니다.

<우리 동무는 모두 데리고 가야 한다.>

사단장의 이 말은 지칠대로 지치고 허약해 질대로 허약해 진 전투원들의 사기를 끝없이 높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군에 들어 섰을 때 리승만이 공출로 끌어 들인 벼가 수천가마니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방아를 찼어 그곳에서 30리밖에 있는 병원환자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소잔등에 쌀을 싣고 야밤에 소도 울고 사람도 운다는 얼음산을 넘는다느것이 험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험악한 그 고개생각을 하면 가슴이 오싹해 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상 당한 동지들을 위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적들이 뿌린 세균탄에 의한 환자들이 늘어 남에 따라 그들을 치료하고 간호하며 보호할 전투원들을 더 많이 붙여야 했지만 부대의 전투력은 약화된것이 아니라 몇십배 강화되어 가는것을 전투마다에서 느끼었습니다.》

세월은 멀리 흘렀지만 뜨거운 마음을 안고 싸우던 그날의 이야기는 끝이 없을상 싶었다.

그의 말은 단순히 지나간 인생의 추억을 들추는 회고가 아니었다. 성목은 그 진정의 고백을 계속 듣고 싶어 졌다.

## (7)

구질구질 내리던 늦장마가 걷히자 푸른 하늘의 실구름이 높이 떠 사람들의 마음을 한껏 상쾌하게 하였다. 어느덧 9월에 들어 서니 푸른 산밭들에 붉은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과학원일군들은 묘향산국제친선전람관 관람을 떠났다. 출창 실험실과 현장에만 붙박혀 있던 그들인지라 참관길을 명절기분으로 가고 있었다.

강성목과 조용인은 빠스운전사뒤자리에 가지런히 앉아 그 뒤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나는 회양군에 주둔하고 있을 때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52년 1월 말경이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으로 나는 대학으로 공부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인 때에 총든 병사가 대학공부를 하러 간다는것도 놀랍거니와 더우기 대학중퇴생도 아니고 북에는 혈분이 하나 없는 내가 대학공

부를 한다는게 놀랍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휘관들과 전우들은 나의 등을 뜨겁게 떠 밀어 주었습니다.

승리한 래일을 위해 대학으로 불러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그 믿음이 천만근의 무게로 나의 어깨우에 얹혀 지는것 같았습니다. 나는 집결처인 강원도당으로 가는 길에 군단에 들려 한고향 내기 방춘만을 찾았습니다.

그는 거기 경비소대에 있었습니다.

제2전선부대에서 적후투쟁하면서 한두번 얼핏 만나기는 했으나 헤어진후 그와 함께 하루밤 같이 지내보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적후투쟁시기 군단지휘부를 노리고 달려 든 적특수부대놈들과의 싸움에서 세운 위훈으로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 받았던것입니다.

그의 영웅메달을 보니 내가 받은것만큼이나 기뻐했습니다.

아마 내 동생 조용민이가 이것을 보았다면 나보다 더 기뻐 하였을것입니다.

방춘만의 투쟁에로의 길은 그가 첫 걸음을 떼여 준것이 아닙니까.

방춘만도 내 동생을 잊지 못하여 그리워 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헤어져 다른 생활을 하게 되지만 가슴속 복수를 힘으로 바꾼 투쟁이라는 점에서는 다를바가 없을것세.>

날이 밝아 울무렵에 길을 떠나며 내가 방춘만에게 남기는 말이었습니다.

<분초를 다투어 공부를 잘하게.>

방춘만은 자기의 손목시계를 벗어 나의 팔목에 채워 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시계는 방춘만이가 장가 가는 날에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기념으로 준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향의 당부와 함께 나에게 주는것이었습니다.

나는 몇발자국 걸어 가다가 다시 돌아 서며 말하였습니다.

<안철성대대장을 만나거든 나의 안부를 전해 주게. 찾아 가 인사를 하지 못하고 가는것이 마음에 걸리누만.>

<알겠네. 꼭 전하겠네.>

방춘만은 눈물이 그렇게서 손을 저었습니다. 그에게서는 고향에서 보지 못하던 억센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강원도당에 찾아 갔을 때까지 각 부대에서 와야 할 동무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이틀간 목계 되었습니다.

대학별로 조를 무어 마식령을 넘을 때 눈이 너무 많이 내려 산에서 헤매다 나니 다음날 밝아서야 석탕온천에 이르렀습니다.

저녁무렵에 평양으로 간다는 중국인민지원군 화물자동차를 타게 되었는데 글썽 그 차가 뜻밖

에 새로 낸 산길을 에돌더니 차를 멈추고 대학에 간다는것을 놀라와 했습니다.

지원군들이 리해할수 있었겠습니까. 전쟁력사에 없는 일이 아닙니까.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양덕군 직맹위원장도 우리가 대학으로 공부하러 간다는 말을 선뜻 믿지 않았습니다.

후에 우리 일을 알아 본 그들은 평양으로 가는 자동차에 우리를 태워 보내며 환송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지원군부대에서는 모두 기뻐 하면서 자동차는 물론 우리에게 기념수첩과 학용품들까지 안겨 주며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 여덟명 일행중에는 성천, 평양, 문덕태생들이 있어서 차례로 전우의 집에 들러 뜻 깊은 상봉속에 로독을 풀곤 하였습니다. 그런 때면 동리사람들이 모여 와 개선병사마냥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는데 전선소식과 전투담을 펼치는 계기로 되었습니다. 동리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것은 처녀상사 리혜련이었습니다. 혜련상사는 우리 련대군의소 간호원이었습니다. 그는 남원처녀로서 인민군대에 의용군으로 입대하였습니다. 내가 혜련을 알게 된것은 념월에서 강을 도하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남동무들이 념동무들을 말아 업고 건넌것인데 젊은 동무의 등에 업히지 않겠다고 발버둥질한 념동무가 바로 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10년이나 우인 내 등에 업혀서 몰살 빠른 얼음장을 건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혜렴도 못하는게 죽자고 그래. 난 변학도가 아니니 안심하라우.>라고 소리치고는 남원처녀를 무작정 등에 업었습니다. 그때 그의 손은 나무껍질같이 터지고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상자, 환자들을 치료하고 운반하면서 때식을 보장하느라고 장갑을 낀 새도 없었습니다.

물은 눈을 녹여 쓰고 젖은 나무는 불이 붙지 않아 눈까지 총혈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간호원이 때로는 정찰병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번은 평창 가까이에서 경찰지서에 대한 습격을 앞두고 혜련이가 정찰임무를 받았습니다. 부자집 부엌녀의 옷차림으로 변장한 혜련은 군수가 죽었다는 부고를 만들어 봉투에 넣어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봉투에는 그가 지나가야 할 곳의 지방유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와 침착한 행동으로 하여 혜련은 여러번 적들에게 단속되었지만 부고를 내보이며 무사히 통과되곤 하였습니다. 석담, 토담, 2중가시줄로 축성된 경찰서안에는 중기와 박격포까지 배치해 놓고 100명의 경찰외에 <별동대>, 지어 그 가족들까지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정찰자료가 면밀하였던것으로 하여 습격전투는 승리적으로 끝났습니다.

혜련은 전투끝에 의약품과 의료기구들을 이고 지고 돌아 왔습니다. 그때부터 혜련은 남원의 <춘향>으로 불리웠습니다.

전투이야기가 끝나자 동리사람들은 <춘향>의 손을 한번 잡아 보자고 하며 혜련이를 끌어 주고 두드려 주며 혀를 찼습니다. 헤여질 때에는 그에게 특별히 털옷과 치마, 저고리, 화장품까지 안겨 주며 눈물속에 바래주었습니다....

김책공업대학에서 공부하게 된 나에게는 담임 선생님의외도 과목별 개별지도를 해주는 선생님들이 도와 주고 학급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념동무가 도와 주게 하였습니다. 미순이라는 그 념동무는 학습만 방조한것이 아니라 내 옷도 빨아 주고 앓아 누우면 시중도 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무의무탁자라고 교복뿐아니라 장학금까지 주는 나라의 은덕에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 이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리라 마음 다지며 자신을 다몰아 세웠습니다.

모두가 성심성의로 도와 준 덕분에 예비과 졸업시험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은 나는 본학부에 올라 가서도 계속 전 과목에 걸쳐 최우등을 하였습니다. 배움에 굶주려 온 내게는 모든 학과목이 다 매혹적이었고 지식이 모래불에 물 붓는 격으로 스며 들었습니다.

대학졸업후 나는 당의 은덕으로 대학연구원에서 공부를 계속하였습니다.

4년기간을 3년으로 앞당겨 연구론문을 통과시켜 과학원에서 연구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스승들과 동무들의 축복속에 <춘향>과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춘향>이라니, 남원처녀 리혜련동무말입니까?》

《예, 그가 불비속에서 강을 건넌워 준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허.》

《아, 그렇습니까! 그린줄 알았으면 집에 갔을 때 알은체를 할걸 그랬습니다. 내 다시 가정방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 내가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물었더니 자기는 스스로 물려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이라는 크나큰 행복을 받아 안는데 자기 일이 대수냐고 하면서 일일천추로 통일의 날을 손 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도 남녘에 혈육을 두고 왔으니 통일을 얼마나 애 타게 기다리랴.

## (8)

날이 어둡자 청사안은 조용하였다. 창문마다 불이 꺼져 있었다.

강성묵은 조용인의 과학연구성과자료들을 료해하고 있었다.

수십건의 연구결과를 생산에 도입하여 나라의

인민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중에서도 마그네샤크링카 증분말처리에 대한 연구를 완성하여 생산에 도입한 결과 국가에 막대한 이익을 주기까지 실로 고심참담한 길을 걸어 온 조용인의 모습이 그려 졌다.

그의 연구과정을 돌이켜 보면 언제나 생산현장에서 요구하는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몸을 잠그고 그 분야의 기술자, 기능공, 생산자들과 지혜와 힘을 합치곤 하였다.

그러면서도 후비육성에 심혈을 쏟으면서 여러 대학들의 초빙강의에 출연하고 있었다.

그의 집 서재에 걸린 족자의 글이 새로운 의미로 안겨 왔다.

《스승보다 앞선 제자를 가진다면 그대는 세상에 이론것 있어라.》

조용인에게는 45년간의 과학연구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를 겪으며 성공시킨 연구과제가 전공도 아닌 마그네샤크링카 증분말처리였다. 오랜 고심과 실패 끝에 성공하여 중간공장시험단계를 거쳐 생산에 도입되었으나 일부 일꾼들의 무책임성으로 하여 그의 노력이 그들에 묻혀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내화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과학자들이 해놓은 일을 일일이 료해하시곤 조용인을 비롯한 연구집단에 높은 평가를 주시었다. 뒤이어 《로동신문》에는 《그들이 택한 길은 백번 옳았다》는 기사가 실려 사람들의 눈을 끌었다.

수령님께서 그 기사를 읽어 보시고 조용인의 의욕군출신이고 전시에 대학에 와서 공부한 과학자라는것을 아시고 더욱 기뻐해 하시며 해당 일군을 불러 국가표창을 내신하도록 과업을 주시었다. 과업을 받고 과학원에 내려 온 일군은 료해과정에 잘못된 문제를 바로 잡도록 하였다. 그 이후 조용인은 박사료, 교수로 성장하였던것이 다....

며칠후 강성목은 조용인실장이 실험사고로 병원에 실려 갔다는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다.

(쇠덩이 같은 사람이 병원에 실려 가다니?!)

강성목은 승용차를 타고 마음의 안정을 잃은채 병원으로 달려 갔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는 조용인실장을 보는 순간 강성목은 가슴이 섬찍하였다.

《이게 어찌된 일ियो?》

강성목의 물음에 조용인의 실의 영란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초지종 이야기하였다. 조용인은 유해로동을 없앨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방진마스크를 연구하면서 가스농도 극복수치를 찾으려고 한몫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실험을 하였다는것이다.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점차 높이면서 실험을 하다가 그만 그는 중독되어 쓰러졌던것이다.

환자가 3일만에 의식을 회복했을 때 강성목의 눈은 물기에 젖어 있었다.

《이런 법이 어데 있습니까? 그런 실험이야 알고 하고 해야지요.》

《안됐습니다. 비서동무의 속을 안 태우자고 했던 일이 그만... 하기가 누가 자기 죽는 날 알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년세가 있다는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서두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은 산 같은데 내가 해놓은 일은 모래알같지 않습니까.》

《그건 지나친 생각입니다. 우리 인민이 과학의 덕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이제 방진마스크까지 생산되면 얼마나 큰 일을 해놓은것으로 됩니까.》

《전 완쾌되겠지요. 이번에 그래도 유해가스극복 수치를 얻어 냈습니다.》

《그게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어 낸겁니까?》

강성목은 조용인의 두손을 힘 있게 잡아 쥐었다.

며칠후 조용인은 바깥출입을 하게 되었다.

퇴근길에 병원에 들린 강성목은 그와 함께 달 밝은 입원실뜨락을 거닐었다.

《나는 오늘 어릴 때 가까이 지내던 동창생 한 사람이 몇년전에 나를 찾아 왔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조용인은 침대에 누워 있으니 잊지 못할 고향 사람들이 눈에 밝혀 온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동창생인 리석기란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기의 근본을 잃고 망탕 살아 온 성격이 괴벽한 사람이였습니다. 그는 홀어머니와 동생 하나밖에 없는 가난 한 집에서 공부하였습시다.》

그는 사범학교 2학년때 <조선어학회>사건이 일어 나자 일본에 가서 신학교에 들어 가 고학하다가 조국해방의 날을 맞이하여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시모노세끼에서 일본배에 탔는데 선장놈이 돈만 받고 구실을 붙여 못 가겠다고 버티자 리석기는 일본군도를 뿔아 들고 목을 치겠다고 겁어 들어 결국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조선에 와서 경찰관시험에서 불합격되자 다시 무관학교시험을 치고 합격되어 거기를 졸업한후 통신사관학교 교장자리까지 올라 갔습시다.

내가 1948년에 감옥에서 나와 다시 체포되는 것이 두려워 서울주변구역에 가 있을 때 우연히 거리에서 그를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는 찢차를 타고 달리다가 나를 알아 보고 차를 멈추었던것입니다. 그는 차문을 연채 내리지 않고 몇마디 하고는 내가 들어 있는 집주소를 물은후 가버렸습니다.

다음날 그가 검은테안경을 끼고 내가 들어 있는 집에 찾아 와 차에 오르라고 하였습니다. 한

10리쯤 가서 덕진련못가에 차를 세운 그는 로리점으로 들어 가 술상을 청하고 나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나더러 무엇때문에 고생하는가, 시세에 따르는것이 옳은 처사라는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사이에는 주장이 엇갈려 옥신각신하였습니다. 리석기는 내가 아이때부터 주먹바람을 일구던 그 독심을 생각했는지 내 기분을 눅눅히느라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제편에서 먼저 우린 오랜 친구인데 말싸움이나 하자고 찾아 온줄 아는가, 이젠 사상이야기는 그만 두고 옛 봉선화시절이야기나 하면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그는 헤여질 때 자기한테 절대로 편지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집에 와서 피신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리석기는 괴뢰군 준장까지 되었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몰라도 캐나다로 망명하였습니다. 그는 캐나다에 가서 골동품수집을 했는데 그 기업이 번창해 지자 캐나다주재 <○○○○재향군인협회>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신변안전에 담보가 된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비서동무가 오기 직전에 나는 뜻밖에 평양에 찾아 온 그를 해당 부문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리석기의 말에 의하면 우리 신문을 통해 나에 대한 기사를 읽고 주소를 알게 된후 찾아 올 용단을 내렸다는것입니다. 그는 나를 만나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한테 매를 듣게. 나야 자네를 찾아 올 체면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인생말년에야 자네가 걸은 길이 옳았다는것을 깨달았으니 죽어도 억울할게 없네.>

나는 한동안 아무 말없이 선택로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기나긴 세월에 쌓인 회포를 풀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아이때 나한테서 얻어 맞은 자리가 지금까지 아프다고 통담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나더러 <그 성미에 학자가 되다니?!>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나의 꿈도 성공도 다 우리 수령님께서 주신것이 아닙니까! 나는 리석기를 통해서 남쪽에 두고 온 아들딸소식을 들었습니다. 헤여질 때 아들은 세살, 딸은 한살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이국땅에 휘뿌려져 동남아시아에서들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낸 편지를 받아 보고 얼마후에 자식들한테서도 편지가 날아 왔습니다. 편지의 글줄들은 눈물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두고 긴 세월 이국땅에서 부모 없는 설움 속에 외롭게 살았다고 하면서 큰절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편지속에 넣어 보낸 사진에서 나는 신살을 바라보는 아들딸의 모습과 손자, 손녀들의 얼굴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다리를 저는 누이동생

하나와 조카들이 있을뿐 아버지, 어머니, 형님, 처 모두가 저세상에 가고 없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주일안으로 돌아 오겠다던 나를 세월없이 기다리다가 눈물속에 한 많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분렬된 민족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민족분렬의 비극이 끝장날 날이 꼭 옵니다.》

강성묵은 그의 두손을 꼭 쥐었다.

《비서동무, 지금 남반부에 고향을 둔 친지들이 나를 큰 자랑으로 여기면서 우리 장군님술하에서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 날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않니까?》

내 동생 조용민은 죽은것이 분명합니다. 북에도 없고 남에도 없고 해외에도 없는 사람이니 틀림없이 원수들의 테로에 희생되었습니다. 이 원한을 풀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죽겠습니까. 리석기는 돌아 갈 때 나 보고 <오복이 있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였지만 이 원한을 풀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천가지 기쁨이 한가지 마음속 고통을 이겨 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때 손님이 찾아 왔다고 알려 주었다.

《선생님, 장령 두분이 찾아 와서 기다립니다.》

《누군데?》

《전우랍니다.》

《전우?》

이윽고 들어 선 두 장령과 감격적으로 상봉하였다.

《비서동무, 이분들이 내가 말하던 전우들입니다.》

강성묵에게 안칠성과 방춘만이라고 자기 소개들을 하였다.

그들은 인민무력부에 왔다가 돌아 가는 길에 얼마전에 인민과학자칭호를 받은 전우를 축하해 주고 가자고 들렀다는것이다.

강성묵은 그들과 인사말을 주고 받으면서도 품채 좋은 모습 그 어디에 준엄한 날의 그 신심과 락관이 숨어 있는가를 찾아 보았다. 참으로 가슴 설레이는 아름다운 달밤이었다.

조용민이 잊지 못하는 한생의 친지들을 다 되새기게 하는 의미심장한 달밤이었다.

강성묵은 오래간만에 만난 전우들에게 자리를 피해 주어 인차 자리를 떴다. 그는 승용차에 올라 창으로 얼핏얼핏 비쳐 드는 불빛속에서 생각을 더듬고 있었다.

(내 기분이 왜 이렇게 뜰까? 얼마나 즐겁고 상쾌한가. 험로역경을 이겨 내고 복 받은 사람들의 상봉을 보았기때문인가.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앞에 찾아 와 행복한 사실을 알았기때문인가? 통일후 남쪽과 해외에 널린 자기 혈육과 친지들을 참 인간으로 키워 달라고 부탁하던 그 진정,

그 믿음때문이 아닌가!)

사실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할하게 되는 강성묵의 마음도 가볍지 않았다.

강성묵이 출발에 앞서 밤잠이 오지 않아 새벽 4시에 충계를 내려 공원으로 나가려는데 문밖의 구석진 곳에 웬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거 누구요?》

강성묵이 나직이 물으며 다가갔다. 종이를 깔고 앉아 있던 사람은 일어 나며 대답하였다.

《벌써 일어 났습니까?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군요.》 하고 조용인이 마주 서지 않는가.

《왜 여기서?… 왔으면 집에 들어 오실것이지?…》

《뭐 할 말이 있어 온건 아닙니다. 유럽방향비행기가 아침에 있다가에 어떻게 하나 떠나는걸 보자고 이렇게…》

《그래요. 하여간 그 열정에 탄복합니다. 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손들다니요? 비서동무는 손드는 법을 몰라야 합니다. 생소한 나라에 가서 생소한 사람들과 사업하게 되는데…》

《하하하.》

두사람은 유쾌히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9월의 새벽공기를 흔들며 멀리 울려 갔다.

두사람은 공원길상에 나란히 앉았다.

《비서동무, 우리 이렇게 함께 내 고향 전주에 가는 날이 있을가요?》 《있구 말구요.》

《고향에 꼭 가겠습니다. 혹 내가 그날을 기다려 내지 못하고 먼저 가더라도 한번 찾아 주시오.》

《무슨 약한 소리를 합니까? 선생은 이제 일흔살을 갓 넘겼는데…》

《과학자야 실험하다가 목숨을 잃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고향 주소를 압니까?》

《거야 알지요. 외워 보랍니까? 전라북도 전주시 중산동.》

《내 그럴줄 알았습니다.》

《선생이 잊지 못하는 혈육과 친지들의 이름도 외워 보랍니까?》

강성묵은 그의 형제와 친척들, 친지들의 이름과 주소를 말해 주었다.

《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그들이 걸어 온 길은 달라도 통일된 조국에서 우리 장군님의 품에 안길 날이 꼭 올것입니다. 그들모두를 참인간으

로 키워 주십시오.》

《선생은 마치 유언하는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헤어지기에 앞서 미리 오금 박아 놓는겁니다. 나는 헤어지는것은 순간인데 헤어져서는 반세기를 보낸 체험자가 아닙니까.》

《그래요. 하긴 선생은 한생 실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번에 만난 한고향내기 방춘만이가 나에게 뭐랬는지 압니까? <과학을 할바엔 국방과학을 할걸 그랬어.> 하고 섭섭해 하였습니다.》

《그것이 내 한생의 큰 실책이었습니다.》

《선생이 해놓은 일이 다 우리 나라의 부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시인의 이런 시가 생각납니다.

놀고 있는 손들을 바지주머니에서 끄집어 내라.  
돌이라도 칼이라도 폭탄이라도 쥐여라.

귀중한것은 선생의 이런 정신입니다. 미국과 맞서 싸우는 정신으로 일하는 그것입니다. 선생은 방진마스크를 성공시킨데 이어 이번에 또 비날론천연구를 성공시키지 않았습니까. 선생이 밀어 준 손석훈동무의 방직설비고속화연구도 이제 성공한 셈이 아닙니까. 난 해외에 나가서도 선생의 그 정신을 생각하며 일하겠습니다.》

어느덧 날이 흰빛 밝았다. 아침산보 나온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두사람은 길상에서 일어났다. 조용인은 꽃밭에서 탐스런 꽃 한송이를 꺾어 들고 강성묵에게 쥐여 주었다.

《우리 전체 동무들이 주는 꽃으로 알고 받으십시오.》

조용인은 다시한번 강성묵의 손을 굳게 잡았다 놓고 굳게 포옹하였다.

강성묵은 그의 심장의 세찬 고동을 느끼었다.

끝없이 나누고 싶은 수많은 사연이 응축되어 심장의 고동으로 높뛰고 있었다. 인생의 솔직한 고백은 심장을 속이지 못한다.

곡절 많은 한생을 복 받은 오늘에로 이어 준 조국앞에 심장의 말을 끝없이 터놓고 있는것이다.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는 이날 아침에 떴다. 려객기를 타고 있는 강성묵과 땅에서 바래우는 조용인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 지고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속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 산 화석

김홍익

그것은 평범한 출장길이었다. 허나 나는 평범한 출장길에서 우리의 시대, 시대의 의무에 대하여 무엇인가 크나큰것을 받아 안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 동시대인들 모두에 대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것이였다.

X

급행열차는 늦은 아침녘에야 북부해안도시에 와 닿았다. 긴긴 열차행군에 어지간히 갑갑해 난 객객들이 차가 멎자 서둘러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와 나는 객객들이 흠을 거의 다 빠져 나간 다음에야 천천히 표 받는 곳을 나섰다.

그리 체소한 편은 아니지만 강마르다고 할 정도로 강단이 있어 보이는 몸집에 숨엄한 생각을 불러 일으킬만치 아주 세여 버린 흰 머리칼이 인상적인 그는 목직해 보이는 밤색 들가방에다 무슨 도면두루말이 같은것을 들었고 나는 화석조사에 필요한 광학기재들과 화학실험기재들을 잔뜩 다져 넣은 등산용배낭을 지고 자료촬영용사진기와 기타 참고자료들을 넣은 멜가방을 메었다.

우리는 같은 침대칸을 함께 타고 오면서 알게 되었는데 우연한 일치로 둘의 목적지가 꼭 같았다.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경험해 본 바이지만 먼 여행길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인차 친치이상으로 가까와 지는 법이다. 하물며 꼭 같은 목적지로 끝까지 함께 가게 된 길동무임에 있어서랴!

열차가 평양을 떠나 퍼그나 달리도록 우리는 같은 곳으로 간다는것을 서로 몰랐었다.

그는 나보다 한 열살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년장자(나는 지금 신다섯살이다.)로서 대체로 말이 없이 한창 가을빛이 짙어 가는 차창밖 풍경을 감상하거나 가방에서 신간기술도서를 꺼내 읽었다.

그러다보니 화제는 나와 다른 두사람- 취재길에 오른 중앙급 신문사 기자와 평양에 출장을 왔다가 돌아 가는 사람사이에서 벌어 졌는데 책을 보면서도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모양 그는 이따금 한마디씩 툭툭 끼기곤 하였다. 그런데 그 말마디가 얼마나 표현력 있고 지성적이고 또한 유모아적이었던지 학계에 그만하면 자리가 있다 하고 내심 자부하는 력사학자인 나로서도 기가 눌릴 정도였다. 나의 직업이 고고학연구소 고 인류학연구사라는것을 알게 되자 그는 보던 책을 밀어 놓고 이런 출장길에 오를 때마다 즐겨 읽

군 하는 낡은 웃을 입은 내 차림새를 이리저리

훑어 보더니 얼굴에 느슨한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글쎄 어쩐지... 현대풍을 거의 따르지 않은 그 옷이랑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깨너머 어딘가 멀리를 투시해 보는것 같은 그 눈빛이랑 <미누스행군>을 하는 사람 같더라 말이요.》

《<미누스행군>이라니요?》

나와 다른 두사람의 눈이 금시 커졌다. 난생 처음 들어 보는 말이었던것이다.

그렇게 말귀들이 어둡나고 힐난하는듯 그는 우리를 둘러 보며 주해를 달았다.

《인류의 다른 모든 사업은 앞으로 나간것만큼 그 성과가 평가되지만 력사학, 특히 동무네 고고학은 뒤로 얼마나 들어 갔는가에 따라 사업성과가 평가되지 않소. 그러니 동무네야말로 끝 없는 과거어로 <미누스행군>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통속적이면서도 명확하고 유모아적인 그 말에 모두들 속으로 공감하며 웃었다.

《그래 이번엔 행군목표가 어디요? 한 100만년 전 쯤은 되오?》

그는 당반에 없어 놓은 배가 불뚝불뚝 나온 내 배낭을 힐끗 쳐다보며 물었다.

《<ㅎ>시에서 새로운 주택지구 굴착작업을 하다가 아주 이른 시기, 20~30만년전쯤 되는 고인들의 화석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신주석동무네 건설사업소 동무들이 말이요?》

그는 놀라운 눈길로 나를 쳐다보며 말허리를 꺾었다.

《아니? 신주석지배인을 아십니까?》

나는 그의 입에서 뜻밖에도 신주석이라는 이름이 튀어 나오는데 놀라 반문했다.

그는 나를 그냥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도 지금 그 동무들을 찾아 가는 길이요.》

《그럼 선생님은?!》

《허허. 날 보고 대뜸 선생이라고 부르는걸 보니 력사학자선생의 관찰력이 다르구만. 나도 동무 같은 연구사요. 건재연구소의... 윤하명이라 하오.》

우리는 이렇게 통성을 했다. 그는 이자 금방 화제에 올랐던 신주석이네 건설사업소에서 내놓은 새로운 건재생산방법에 대한 기술심의때문에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술실무적문제에 대한 따분한 대화는 피하려고 생각했는지 그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고 화제를 판데로 인츰 돌렸다.

《허, 우연인가? 그 사람들의 발끝엔 늘 그런 희귀한 력사유물이 채이누만!》

《예?》

《그 동무들이 언젠가, 참, 그때가 아마 1990년대 초였지. 저 락방벌에 통일거리를 세울 때도 술한 유적들을 찾아 내지 않았겠소.》

《웁습니다. 그 동무들이 수도건설을 위해 도에서 편성한 건설부대의 주력으로 올라 와 있을 때였지요. 저도 그때 신주석동무를 알게 되었습시다. 이번에 기초굴착작업도중 화석이 발견되자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우리에게 통지해 준 사람도 바로 신주석지배인입니다.》

《신주석이 그때 자재과장을 하며 이름을 날렸지. 일을 잘했소. 헌데...》

그는 말하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순간 나는 속이 덜컥하여 그에게 다우쳐 물었다.

《그 동무한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 아니요. 아무튼 동문 고고학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가는데... 성과를 바라오.》

물 흘러 가듯 하던 이야기는 이것으로 딱 끊어졌다. 작별인사나 하듯이 시작할 때처럼 불쑥 말을 맺어 버린 그는 이야기를 주고 받던 사람 같지 않게 책을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좀 피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도 그한테 주었던 시선을 들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으로는 누르고 불그레한 가을풍경이 언뜻언뜻 지나갔다. 열어 젖힌 차창너머로 내리비치는 해빛은 여름별보다 오히려 더 따가운듯 했지만 얼굴을 스치는 바람결은 어딘가 산산했다. 그 모든것이 따가운 별도 산산한 바람결도 만물의 열매를 무르익히는데 안성맞춤한것이었다. 열매를 맺어 익히느라 진액을 다 뽑은 모든 식물들이 붉고 검붉고 누르계 황이 들어 가는 계절이었다.

나는 갈수록 더욱 성찰사나와 지는 멀고 가까운 산자드락을 장엄한 색채로 물들이기 시작한 북관특유의 강렬한 가을풍경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앞에서 책을 읽고 있는 이 사람이 나와는 정반대의, 말하자면 아주 피로운 걸음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기쁘지 않다면? 피로운 걸음이라면?

손을 내저으면 잡힐듯 차창 바투 다가섰다가 얼핏얼핏 물러서는 단풍 짙은 산발들을 내다보며 나는 생각했다.

혹시... 그들이 내놓았다는 새로운 건재생산방법에 그 어떤 심중한 문제가 있는것이 아닐까? 그것을 부결해야 하는 인간적피로움때문에 저렇듯 침울한 표정이 아니겠는가? 그럴수 있다. 인간으로서 다른 한 인간의 고심참담한 노력의 산물을 부정한다는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닌것이다!

이렇게 제나름으로 단정을 내린 나는 그에 대

하여 묻거나 더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 무슨 건재생산이니 인간의 창조물이니 하는것이 나의 이번 출장목적과는 하등 인연이 없는것이였다. 나는 지금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고 일떠세우며 창조하는 현실세계가 아니라 바로 그 창조자들이 파뒤집어 놓은 깊은 땅속에서 수수만만년동안 잠을 자고 있던 고인들의 화석을 찾아 가는 길이였다.

×

역 앞광장에서 우리 둘사이에 가벼운 싱갱이질이 약간 있었다. 그는 려관부터 들러 일단 짐을 풀어 놓고 건설장을 찾자는것이였고 나는 화석들을 빨리 보고 싶은 충동에서 건설장으로 곧장 가자는것이였다.

《그렇게 조금해 가지고 20만년전까지 꽤 가내겠소?》 그가 룡조로 시가슬렀다.

《머니까 서두르는거지요.》 나도 룡조로 받았다. 결국 건설장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수십만 인구를 가진 큰 도시여서 그런지 아침 녀이 훨씬 지났는데도 거리는 꽤 붐비였다. 거리를 꼭 메우다싶이 한 사람들의 물결속에 잠겨 들어 앞에서 마주 오거나 앞서가기도 하고 뒤에서 쫓아오기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건설장으로 향해 걷는 나의 가슴속엔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흥분이 떠올랐다.

여담 같지만 새로운 력사유적을 찾아 갈 때면 나는 이렇게 붐비는 사람들속을 걸어서 가기를 좋아 한다. 걸으면서 새라새로운 류형의 아름다운 옷들을 펼쳐 입고 끝없이 흘러 오고 흘러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느라엔 은연중 내가 사는 시대의 감각이 온 몸으로 느껴 지군 하는데 그것을 한껏 체험하면서 걷다가 례의 화석이나 유적 앞에 서면 그것의 력사적의미가 더더욱 확실해지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오래된 력사, 그 자체 앞에서 있는가 하는 신비감 비슷한 감정이 산생되군 한다. 그런데... 솔직한 말로 그 이름할수 없는 신비의 감정이 건재연구사가 명명한 《아득한 과거에로의 끝 없는 미누스행군》에로 나를 떠미는 힘은 자못 큰것이였다.

시내중심을 벗어 나자 사람들의 행렬도 뜸해지고 길옆에 주련이 들어 앉았던 크고 작은 살림집들의 간격도 점점 성글어 지다가 아예 단층집 구역으로 바뀌더니 얼마 안 가서 다리가 나졌다.

《북대천다리》라고 크게 현판을 써붙인 그 다리 위에 올라 서니 강 건너, 한창 터를 닦고 있는 새 주택구역의 룡판이 엷은 운무속에 멀리로 내다보였다.

저기다!

가슴 한복판으로 순간에 밀물같이 짙 차오르는 흥분을 벅차게 느끼며 나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바로 저기- 신형유압식굴착기 몇대가 긴 팔을 뻗시 있게 휘두르며 땅을 파올리는가 하면 그 한 옆에 틀고 앉은 재래식굴착기 한대가 쇠바줄에 매단 쇠바가지들 성난듯 툭 내던졌다가 다른 굴착기바가지들의 배나 되는 흙을 한꺼번에 떠올리고 크고 작은 불도젤들이 땅을 밀어 내는 소리가 대지를 드릉드릉 진감하는 저기가 바로 우리 선조들이 수십만년전에 삶의 첫 보금자리를 뚫던 곳이다. 참, 그러고 보면 지금 저 불도젤들과 굴착기들이 떠올리기도 하고 밀어 내치기도 하는 저 흙도 단순한 흙이 아니라 맑디맑은 발 밑의 이 강을 생명수 삼고 강 건너 서북쪽으로 들어앉은 소나무가 확 우거진 야산을 올라 삼아 이 지세 좋은 고장에 생활의 첫 터를 잡은 20만년전 선조들의 삶의 자취우에 내려 쌓인 20만년 세월의 먼지, 생활의 먼지인것이다.

세월은 흐른다. 세월과 함께 생활도 흐른다. 지구라는 이 거대한 땅껍데기우에 자기의 자취를 속속 남기며 세대와 세대는 끊임없이 흘렀고 또 흐를것이다. 하여 력사학이라는 과학분야도 생겨났고 수십만년전에 산 인간들의 흔적을 찾아 하루밤사이에 천수백리 길을 달려 온 나와 같은 력사학자도 있는것이다.

건설장으로 오가는 차들과 사람들의 행적이 그치지 않는 다리우에 잠시 서서 제나름의 상념에 잠겼던 나는 앞에서 차가 급정거하는 소리에 얼굴을 들었다. 순간, 몇발자국앞에 금시 멎어 섰 화물차운전칸에서 뛰어 내린 거울진 사람이 나를 향하여 별썽별썽 웃으며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다.

《연구사선생!》

진곤색의 좀 낡아 보이는 품 너른 바지에 역시 품이 헐렁해 보이는 검은회색잠바를 입은 그 사람이 먼저 나를 불렀다.

《신주석동무!》

그를 부르며 나도 몇걸음 다가섰다.

《이제 얼마만입니까? 꼭 10년만이군요.》

나보다 불과 두세살아래나이인데도 깍듯이 경어를 붙이며 그는 무척 반가와 했다.

《고맙소. 잊지 않고 또 이렇게 도와 줘서...》

나는 나란히 같이 섰는데도 연석우에라도 올라선듯 어방없이 큰 그를 쳐다보며 인사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거야 공민의 의무인 걸요. 헌데 어느 차에 오셨습니까?》

《아침차에 왔소.》

《도착한지 오래 됩니까?》

《내려서 곧장 오는 길ियो.》

《곧장ियो?!》 하고 그는 내가 온 역쪽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는듯 한 기색을 보였다.

《혹시 건재연구사선생을...》

《예. 그렇습니다.》 그가 반색을 지었다.

《같은 차를 타고 왔소. 려관에 들렀다 오겠다

면서 갔소.》

《그렇습니까? 그럼 선생님도 타십시오. 같이 갔다 오십시오.》

《아니, 난 다 왔는데 그냥 걸어서 가겠소.》

《그럼... 그 배낭은 차에 실으십시오.》

그는 내 잔등에서 당장 배낭을 벗기려 들었다.

《가만! 이건 깨지기 쉬운 광학기재들이 돼서 내가 지고 가겠소.》

《원 선생님두, 깨지기 쉬운 물건을 내가 좀만 다룬줄 아십니까? 이젠 나한테 맡기고 지휘부에 가십시오. 조직사업이 다 돼 있습니다. 도력사박물관에서도 와 있구요. 자 그럼!》

배낭과 가방을 끝내 빼앗아 차에 싣고 난 그는 자기도 훌쩍 올라 타면서 소리쳤다. 이어 차문이 닫히고 차는 떠났다.

《흠, 여전하군, 여전해!》

멀어 저 가는 차를 보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던 나는 차가 네거리 건널길을 넘어 서고 사람들의 모습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 순간, 아차 하고 손을 들었다 놓았다. 뭘 다른게 제기된것이 없느냐고 묻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것이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10여년전이나 조금도 변함없이 사람 좋고 씨원씨원한 그의 모습이 다시금 밝혀오자 도리머리를 저으며 돌아 섰다.

... 《걸어 다니는 기증기》!

이것이 10여년전, 통일거리건설장에 침식을 옮긴 우리 력사연구소 조사그루빠의 생활과 사업에 남 다른 관심을 돌려 주던 신주석자재과장에게 붙어 다니는 판 이름이였다. 그만큼 그는 키가 엄청나게 컸던것이다. 어찌나 큰지 넓으나 넓은 락랑별건설현장에 그가 나오면 복작복작 끓는 사람들의 머리우에 명절날의 풍선같이 둥둥 떠다니는 그의 머리와 흰 목덜미를 어디서나 볼수 있을 정도였다. 다른 한편 그의 이 판 이름에는 그가 어디 나가서 못 물어 오는것이 없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기증기처럼 긴 다리로 어디든 징징징징 뛰어 가서는 역시 기증기팔처럼 긴 팔로 건설장에 필요한것이면 무엇이든 물어 온다는것이였다.

우리가 건설자들의 가설침실결에 천막을 전개하고 조사사업을 시작할 당시 건설장은 한창 터를 잡는 때여서 누구도 자재, 자재 하고 뛰어 다닐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려단만은 기초굴착작업이 끝나는 차제로 들이밀 기초콩크리트부재로부터 철근, 세멘트, 혼석, 모래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다음단계의 전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재사업을 맡은 신주석의 공로로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특별한 수완가》라고들 했다.

자재사업때문에 늘 뛰어 다니는 바쁜 짬에도 가끔 우리한테 들려 금시 파낸 유적들을 세척하고 분석하는 모양을 말없이 지켜 보다 가군 하는



그를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특별한 수완》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알게 된 일이 있었다.

기초굴착작업이 끝나고 런 사흘째 기초콘크리트타입을 들이대던중 어느 한 작업소에서 뜻밖의 사고를 낸것이였다. 몰탈혼합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반나절동안 타입한 콘크리트를 몽땅 꺼내야 했다. 그들이 정과 함마, 곡괭이들을 들고 금방 일을 시작하려는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신주석이 나타났다.(그 작업장이 마침 우리 천막 옆에 있어 그날 문제의 작업조가 자재과장한테 된경을 치르는 광경을 우리는 날날이 볼수 있었다.)

《동무네 자재를 저렇게 쌓아 놓고 일하니까 뭐가 다 혼란줄 아는가? 하루라도 공사를 빨리 끝내자고 킁킁 날라다 쌓아 놓은거지 동무네처럼 망탕 랑비하라고 자재선행을 한게 아니란 말이요.

이중에 제대군인이 있으면 알겠지만 훈련에서는 열백번 반복구령을 내릴수 있지만 싸움마당에서는 단 한번의 반복구령도 내릴수 없소. 말자체 생명을 내대고 하는 판가리싸움이거든, 싸움! 마찬가지로 우리 건설에서도 반복시공은 있을수 없소. 죽음이야, 죽음! 그래서 건설전투라고 하거든.

헌데 이렇게 오작시공을 냈으니 꺼내고 반복시공하는데 드는 자재, 로력, 시간랑비가 얼마지 아는가? 나라에 준 손해가 얼마나 큰지 아는가 말이요?》

불 같은 추궁에 쉼여 절각절각하는 소리가 났다. 넘겨다 보니 돌격대원들 모두가 고개를 푹 떨군채 서 있고 그들보다 머리 하나에 목 하나가 더 큰 신주석이 손에 든 낡은 주산을 흔들고 있었다.

《그걸 다 물기전엔 생활비 한푼 탈 생각을 마오. 재정과에두 손해액을 계산해서 넘겼소.》

어마어마한 업포로써 추궁을 끝낸 그는 측량기 다리를 련상시키는 긴 다리를 옮겨 디디며 사고현장을 떠났다.

《에, 그놈의 주산! 내 언제든지 슬그머니 콘크리트 혼합물속에 처넣고 슬쩍 타입해 버리고 말아야지.》

키가 큰, 그러나 금방 가버린 신주석에 비하면 그의 아들 같은 돌격대원이 장갑을 벗어 먼지를 탁탁 털며 투덜거리자 아직 소년티를 채 벗지 못한듯 해 보이는 애송이대원이 코방귀를 뀌었다.

《헛. 그랬자간 콘크리트를 다 꺼내고서라도 기어이 찾아 낼걸요. 그건 우리 자재과장동지의 아버지가 해방직후 어느 직물공장 자재사업을 맡아 볼때부터 쓰던걸 물려 받은 주산이거든요.》

《저런, 귀중한 가보구먼!》 누군가 께끼였다.

《그뿐인줄 알아요. 자재과장동진 고급중학교때

바로 저 주산을 가지고 전국적인 계산경기에 참가해서 1등까지 했는데요 뭐.》

《이크, 전적두 꽤 있는 주산이구만!》 먼저 께졌던 목소리가 또 한마디 양념을 쳤다.

《어쨌든 래달 생활비는 다 타게 됐네.》

그중 나이 들어 보이는, 크고 너부죽한 얼굴에 량식창고뒤벽에다 낸 환기창같이 눈이 유별하게 작고 올리 붙은 돌격대원이 그때까지 무거운줄 모르고 들고 섰던 함마를 툄령 떨구며 푸념했다.

《그것도 말이라고 하오?》

여태 말없이 서서 조원들이 주고 받는 말을 듣고만 있던 작업조장이 툄 내쏘았다.

《우리 과장동지가 저렇게 울러 메고 가서 언제 한번 우리들의 생활비에 손을 댄적이 있는가? 하지만 자재과장동진 우리가 오늘 망탕 시공하여 못 쓰게 만든 그 자재를 물어 들이느라 자기 생활비를 언제 한번 집에 들여 간적이 없소. 그의 아주머니도 그런 남편을 탓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집에서 기른 돼지랑 오리랑 다 팔아서 과장동지의 사업을 뒤바라지해주고 있던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내색은 조금도 없이 나라의 재산이 허실되는게 가슴 아파 한마디 아픈 소리를 한 그를 놓고 생활비타령을 한다면 우리가 무슨 사람들이요?!》

모두들 고개를 떨구었다. 창고뒤벽의 환기창같이 눈이 작은 사람은 조장의 손을 잡고 용서를 빌었다.

그날 나는 그의 《특별한 수완》이란 집단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제것을 아낌없이 바칠줄 아는 자기헌신성과 집단의 일이라면 제몸도 서슴없이 내대는 투신력에 있다는것을 알았다. 기업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은 사람으로 존경하며 따르는것은 바로 그때문일것이다.

그 사람됨에 끌려 그와 가까이 지내기 시작한 나(그가 우리 사업을 맡아 도와 준데도 중요한 원인이 있지만.)는 가끔 그의 사무실에 들리곤 하였는데 인상적인것은 어느 때 가봐도 책상우에 보다만 기술서적들이 펼쳐 저 있군 한것이였다. 그가 건설건재대학을 다닐 때 보던 교재들이라고 했다.

손에서 기술서적을 놓지 않는 자재일군!

이것이 그때 나의 뇌리에 박힌 그에 대한 또다른 평가였다. 한가지 의문되는것은 그가 큼직한 가방에 늘 넣어 가지고 다니며 쓰곤 하는 그 낡은 주산이였다. 그때로 말하면 중학생들까지 휴대용 전자수산기를 쓰기 시작한지 오랜 때여서 나는 아직도 낡은 주산을 쓰는 까닭을 물었었다.

《나에겐 이 주산보다 더 믿음성 있는 계산도구가 없습니다.》 그때 그가 한 대답이였다.

걸어 다니는 기중기!...

집단을 위하여 뛰며 자재사업을 쉼씨 있게 맡아 해제끼던 좋은 일군인 그가 지금은 한개 기업

소 지배인의 중책을 걸머지고 차바퀴에 불이 일도록 달리고 있다! 나는 굳이 그렇게 믿었다. 좋은 일군에게는 언제나 좋은 평가가 따르는 법이다! 간혹 불미스러운 뒤 소리 같은것이 붙어 다니긴 하지만 그것은 일하는 사람이 범할수 있는 일시적인 실수에 불과한것이다.

나는 내심 그렇게 생각하며 건설장쪽으로 걸음을 다우쳤다.

×

신주석지배인에게 별다른 일이 없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은 그와 헤어진 뒤 얼마 안 가서 곧 압초에 부딪쳤다. 다리 건너 얼마쯤 되는 곳에 갈림길이 나지고 《건설장방향》이라고 쓴 리정표가 가리키는 그 갈림길을 따라 얼마쯤 가니 차단봉이 하늘공중 머리를 쳐든 보조소가 있었는데 바로 그 보조소 몇걸음 못 미친 길설에서 서성거리던 웬 젊은이가 내 앞을 막아 선것이였다. 굵석 인사부터 하고 난 젊은이는 《저... 평양에서 오시는 연구사선생님이시지요?》하고 나에게 물었다.

《그렇소. 연구사요.》

얼결에 대답하며 나는 젊은이의 얼굴을 살펴 보았다. 서른쯤 났을가... 별에 타서 까뭇한 얼굴의 인종과 턱, 량볼편에 수염터가 검실검실하고 반드름한 이마아래 안쪽으로 모아 붙을사한 량미간으로부터 곧추 내려 오다가 끝이 약간 흰 코날이며 류달리 정기가 초롱초롱한 눈이 인상적이였다. 나를 곧추 바라보는 그 눈에는 어딘가 모르게 고민하는듯 한 빛이 깊이 흘렀다.

《제가 리강무입니다.》

그는 허리를 굽시며 자기 소개를 했다.

《리강무?!》 나는 어정쩡하게 되받아 외웠다.

《선생님앞으로 꼭 내려 와 달라는 편지를 보낸...》

아차, 이 사람이 나와 건재연구사선생을 착각했구나! 더 실수를 하기전에 바로 잡아 주어야 했다. 하지만 젊은이는 그 순간을 놓치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 나에게 말할 틈을 주지 않고 자기 말을 계속했다.

《저는 선생님을 처음 뵈지만 우리 지배인동지한테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선생님의 저서들이 저의 이번 발명에 큰 도움을 주었구요.

선생님, 저는 저의 발명에 대한 변호를 하자고 이렇게 길목을 지킨것이 아닙니다. 단지 선생님이 저의 안에 기술적으로 확신이 있다면 그대로 생산에 도입하도록 밀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철회하도록 해달라는것입니다.》

젊은이는 잠시 말을 끊고 나의 대답을 기다리는듯 땅바닥에 발끝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다. 하지만 렬차에서 연구사의 단편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새로운 건재생산방법에 대한 심의를 내려 온다는 정도의 견해밖에 없었던 나로서는 뭐가 된

지 통 알수가 없었다. 게다가 젊은이는 나를 자기의 발명을 환히 꿰뚫고 내려 온 건재연구사로 믿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기 주장만을 피력하는것이였다.

나는 젊은이가 무안해 하더라도 내 신분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러지 못했다. 젊은이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은 호기심이 강하게 작용한 때문이였다. 그러면 렬차에서 건재연구사선생이 다 하지 않은 이야기를 마저 알수 있는것 아닌가.

《제 이번에 우리 지배인동지에 대해서 신소를 했지만...》

이렇다 할 대답은 없이 그냥 서 있기만 하는 나를 조심스럽게 쳐다보던 젊은이가 한결 낮고 부드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저도 지배인동지가 좋은분이라는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고난의 행군>시기 전 군사복무를 마치고 대학을 다녔는데 아버지도 없이 중병으로 홀로 앓아 누운 우리 어머니를 지배인동지가 친누이처럼 도맡아 구완해 주었습니다. 얼마 안되는 자기 집 재산까지 팔아서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무한히 고맙고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고 나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나쁜이 아닌 우리 사업소 많은 사람들이 지배인동질 세상 인정 많고 좋은 사람으로 존경하며 따릅니다. 지배인동진 우리 기업소를 위해 아주머니까지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아주머니까지 바치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나는 놀라며 물었다. 그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자재과장사업을 할 때부터 아주머닌 남편의 사업을 도와 해마다 술한 돼지와 염소, 토끼를 길러 늘 떠돌면서 살다싶이 하는 우리 기업소사람들을 위해 바쳤지요. 우리 기업소사람치고 그 신세를 지지 않은 사람이 없을겁니다. 하지만 지배인동지의 아주머니가 이미 오래전에 불치의 병에 걸린 몸이라는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지요. 지배인동지와 그의 딸박에는... 3년전, 그때 우리는 향만대상건물건설을 맡아 하고 있었는데 생명의 마지막순간을 의식한 아주머닌 자기가 기른 돼지랑 염소랑 가득 싣고 현장에 찾아 와 웃으면서 우리를 고무해 주고 돌아 가는 길에 그만...》

젊은이는 목이 꺾 메여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쳐다보니 눈굽에 물기가 그렇그렇 잡혔다. 눈물은 그를 쳐다보는 나의 눈에도 어린듯 그의 얼굴이 흐릿흐릿해 진다. 10여년전, 오작시공을 낸 돌격대원들이 남편의 사업을 맡없이 수격수격 뒤바라지해 주는 훌륭한 안해라고 칭찬하던 목소리가 귀에 쟁쟁 울려 오는듯 했다. 그 녀성이, 꼭 한번 보고 싶던 그 녀성이 이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잠시 동안을 두었던 젊은이가 격해 진 어조로 말을 이었다.

《우리 기업소사람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다싶이 한 지배인동지를 놓고 이런 말하기는 저도 피롭습니다. 하지만 우린 지배인동지가 그저 좋은 사람이 되기전에 첨단기술에 낫을 돌리는 일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젊은이는 《우리》라는 복수에 력점을 찍어 가며 말했다.

《그러니까 지배인동무가 기술발전에 무관심하다는거요?》 내가 젊은이의 말을 멈춰 세웠다.

《무관심하다기보다 그것을 거의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소사람들의 생활문제를 풀어보자고 뛰여 다니는데 그렇게는 안됩니다.》

젊은이는 자기 말을 누가 부정이라도 하는듯 반발하는것 같은 어조로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정보산업시대가 아닙니까?》

선생님앞에서 감히 이런 말하기가 주제 넘지만 기술 특히 첨단기술을 떠나서는 단 한발자국도 전진할수 없는 컴퓨터시대란 말입니다. 이젠 꼭 팽이로 흙을 찍어 내는 토공로동자도 인젠 온 폐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앉아서 사람들의 생활문제를 푼다니 어떻게 말입니까? 자금, 설비, 자재의 부족으로 기업소는 세워 두고 부업지운영을 잘해서 당장 급한 세대들을 도와 주는 방법으로요? 아니면 지배인동지처럼 맨날 자기 집 재산을 들어 내다가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는 안됩니다. 좀 더 허리띠를 조이더라도 세계적발전추세에 맞게 기술을 대담하게 갱신하여 생산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 오면 사람들의 생활문제는 절로 풀릴것입니다.》

젊은이는 말을 마치고 모두숨을 몰아 쉬었다.

출구에 아직 채 굳어 지지 않은 몰탈더덩이가 달라붙은 몰탈혼합기를 실은 화물차가 뿌영게 먼지를 말아 올리며 우리열을 지나갔다. 나는 먼지를 피하여 길옆으로 두세걸음 옮겨 섰다. 하지만

젊은이는 뿌연 흙먼지가 몽게몽게 피어 오르는 속에 그냥 서 있었다.

나는 마치 소낙비 쏟아 붓듯 하던 젊은이의 말을 되새겨 보며 그와 신주석지배인사이에 있는 일을 점쳐 보려고 했다. 이 젊은이가 내놓았다는 새로운 건재생산방법에 그 무슨 기술적담보가 부족하여 신주석이 그것을 부결했는가 아니면 발잔등에 떨어 진 불이라고도 볼수 있는 당면생산과제나 혹은 이 젊은이의 말대로 당장 급한 사람들의 생활문제를 풀고 보자는 생각으로 그것을 뒤전에 밀어 놓았는가?

그것은 아직 알수 없으나 젊은이의 립장이 옳은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립장도 립장이려니와 안타까운듯 부르짖는 그 어조에 진실한 그 무엇이 있었다.

《그래 동문 그 이야기를 지배인동무에게 해왔소?》

《예.》 대답하며 젊은이는 나를 쳐다보았다.

금시 서늘해 진 그 눈에서 나는 사람을 뭇로 압니까?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 옷간부들을 찾아 다니며 횡설수설하는 줄장부인줄 압니까 하는 그의 내심의 말을 읽었다.

《저의 안은 부결되어도 좋습니다. 래일에는 우리 동무들이 더 좋은 발명을 해낼것입니다.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것은 이번엔 오셨던김에 선생님이 우리 지배인동지에게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하여 옳바른 견해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우리 지배인동지가 제일 잊지 못해 하며 존경하는 옛 스승이 아닙니까?!》

그 말을 남기고 젊은이는 만날 때처럼 머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하고 돌아 섰다. 눈빛만은 서늘해 진 그대로였다.

옛 스승이라니?!

보초막뒤로 주련이 들어 앉은 가설건물들사이로 멀어 저 가는 젊은이의 뒤모습을 얼친듯이 바라보며 나는 한동안 그냥 서 있었다. 나자신이 한방망이 되게 얻어 맞은듯 한 느낌이었다.

그렇다면 그 건재연구사가?!

그러자 렬차에서 그가 하단 이야기가 무엇이였는지 어렴풋이 리해되었다.

스승이란 항상 제자들을 걱정하며 산다. 그런데 그 걱정은 그들을 슬하에 두고 키울 때보다 깃을 다듬어 사회라는 무변광대한 생활의 창공속에 훨훨 날려 보낸 다음부터 더해 진다. 한생의 목표라고 할수 있는 바다 건너 저 아득한 신비의 물을 향하여 날으고 날으다가 힘이 진하여 바다 한가운데의 어떤 섬에 내려 앉지는 앉았는지, 혹은 그 어떤 유혹에 못 이겨 판데로 가버리거나 앉았는지, 또는 사나운 폭풍우속에 휘말려 들어 산산 부서지거나 앉았는지...

하다면 지금 건재연구사의 고민은 무엇이겠는가. 무엇때문에 그는 자기의 제자가 지배인으로 있는 건설현장으로 곧바로 오지 않고 려관을 택했는가. 옛 제자가 지배인이라는 직권을 만능의 무기로 생각하고 아래사람들의 창의창발성을 깔아 몽개는 관료주의자로 되어 버린데 대한 환멸감때문인가? 아니, 신주석이 그는 관료주의자는 아니다. 그 냄새조차 없다. 관료주의자한테는 이자 그 젊은이가 눈물이 글썽하여 토설한것과 같은 그런 뜨거운 인정미가 있을수 없다. 그렇다면?...

어쩐지 불안해 지는 마음을 안고 나는 건설장의 한옆, 야산기슭에 자리 잡은 커다란 천막을 향하여 걸음을 옮겼다.(바로 그 천막이 우리를 위하여 지배인이 따로 쳐준것이라고 보초병이 대주었던것이다.)

천막이 가까와 옴에 따라 현실세계에 머물러

있던 나의 의식도 그 천막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몇십만년전 《화석인》들의 세계에로 한걸음 한걸음 빠져 들었다. 어쨌든 나는 고인류학연구사였고 옛 사람들이 남긴 삶의 자취를 찾아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

그렇게 하기를 벌써 몇번째...

나는 마음을 다잡고 현미경의 대안렌즈에 다시금 눈을 가져다 대고 시력을 모았다. 조사판우에 올려 놓은 희끗희끗한 카르스트돌(일명 회바위라고도 한다.)속에 엉켜 붙어 버린 화석이 뚜렷하게 보였다. 어금이 두개가 그대로 붙어 있는 아래턱뼈다. 고인들의 주요특징인, 유절어와 관련된 형태학적조직인 턱매듭이 없다.(그것은 아직 말할 줄 모르는 단계의 사람임을 증명하여 주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다.) 그 다음 귀부위의 끝뼈 한두점, 거기에도 고인들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나는 살아 움직이는 《화석인》의 모습을 눈앞에 재현해 보려고 주의를 모았다. 우선 모든 고인들이 그러하듯이 눈 윗두덩이 언덕을 이룬것처럼 속 뼈여 저 나왔을것이고 아래턱이 매듭진데가 없이 두리뭉실하게 끝나버렸을것이다. 머리뼈 높이가 대단히 낮고 이마가 목시 뒤로 제껴 졌을 것이다. 거의 드러내 놓은 살빛은 별에 너무 타서 고동색으로 짙어 보일 뿐 수십만년 후세사람들인 우리와 다름 없을것이고 눈은... 눈은... 이 건 켄장, 조사판우의 화석우에 우렷이 그려 진것은 애 써 재현해 보려는 《고인》의 모습이 아닌 산 사람의 얼굴이다. 순수건으로 얼굴에 함뿍 내뿜은 땀을 씻으며 난처한 눈길로 나를 쳐다본다. 신주석의 모습이다. 벌써 몇번째 그렇게 떠 올라서는 나를 쳐다본다. 어제밤 신주석의 초청으로 그의 집에 갔다가 아버지에게 울면서 하는 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앞에 언뜻 그려 졌던 모습이다.

...어제 저녁, 늦도록 화석조사에 여념이 없는데 열대여섯살쯤 먹은 신주석의 아들녀석이 찾아와 무작정 집으로 끌었다. 갈새가 없다고 굳이 사양을 했으나 녀석이 아버지가 무조건 데려 오랬다며 완력으로 잡아 끄는 바람에 할수 없이 따라 섰다. 그의 집은 시변두리의 단층집구역에 있었다.

팔랑팔랑... 방울소리가 유정한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 서니 열려 진 부엌문너머로 한창 음식준비를 하는 신주석의 모습이 들여다 보였다.

《에참, 부엌일이란 아무래두 손에 설군요.》

마당에 들어 서는 나를 보자 마치 전주대하리에 묶어 놓은것 같이 깡동해 보이는 앞치마에 손을 씻으며 나온 신주석이 변명 삼아 하는 말이였다.

안해를 잃었다더니... 하는 생각이 불쑥 들면서 어쩐지 그의 전체 모습이 쓸쓸하게 안겨 왔다.

《먼저 방으로 올라 가십시오. 이제 운하명선생님도 오실겁니다.》

《건재연구사선생 말이요?!》

《우리 딸애를 보냈습니다. 모시고 올겁니다.》

순간 오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에 온 첫날 역전에서 헤어지고는 오늘까지 닳새가 지나도록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였다. 그도 심의사업이 바쁜지 나를 찾아 오지 않았고 나도 일단 화석에 달라 묻자 그를 감감 잊었던 것이다.

우리의 연구사업이란 늘 이렇다. 파고 들면 들수록 몸 담고 사는 현실에서 더욱 멀어 지게 된다. 말하자면 자기자신들이 붙들고 앉아 씨름하는 태고적의 《화석인》이 되고 마는것이다.

더욱 여기 와서 보니 평양에서 생각했던것보다 굉장한 황재였다. 이곳 건설자들이 우연히 발견해 낸 20~30만년전의 문화층만이 아니라 그우에 신석기시대의 문화층이, 또 그우에 고조선시대의 문화층이 층층 겹놓여 있어 우리 선조들의 고대발전사를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는 전망이 생겼었다.

구태여 덧붙이는 설명 같지만 화석에 대한 분석과 연구로 이루어 지는 고고학은 독자적으로 연구사업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지질, 물리, 화학, 생물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정보산업기술을 포함한 광범위한 린접분야의 도움이 없이는 한걸음도 전진할수가 없다. 때문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고고학자들을 더 보충하여 내려 보냄과 동시에 련관분야의 학자들과 기체들을 동원하여 전면적인 조사발굴사업을 폈다. 그런즉 그 모든 사업의 중심에 서야 할 나로서만데 정신을 팔 겨를이 없다는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신주석지배인과 레의 짧은이사에 벌여 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만은 알게 되었는데 그것도 후날에 나를 찾아 온 신주석이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어서야 알았다.

...리강무현장기사가 내놓은 새로운 건재생산방법이란 4~5층짜리 살림집을 짓는데 쓰게 될 블로크생산을 순수 지방자재로 하는것으로서 매우 혁신적이고 또 현실적이여서 전문가들과 로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신주석지배인도 원가가 대폭 적게 들고 자재해결전망이 확고한 그 안을 받아 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문제로 된것은 생산의 첫 공정인 원료배합검사와 마지막 공정인 블로크경도시험을 컴퓨터화한것이였다. 신주석은 컴퓨터검사공정을 폐자는것이였고 리강무는 통채로 받아 물던지, 통채로 물리던지 하라는 것이였다.

《아니, 생산의 중요공정들을 컴퓨터화했으면 더 좋을것 아니요? 로력과 시간도 절약될게구 또

생산물의 질도 담보될게구…》

나는 신주석의 립장에 리해되지 않는 점이 있어 그에게 물었었다. 그는 웃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더니 이어 낮빛이 심중해 지며 말을 이었다.

《컴퓨터, 컴퓨터 하고들 있지만 그게 뉘집 아이 이름은 아니지요. 그걸 도입하자면 무엇보다 자금이 있어야겠는데 우리에겐 당장 목이 멘 생산이나 급한 생활문제들을 푸는데 돌릴 자금도 없습니다. 그리구 또 몇미크론메터까지 계산해 내는 그 정확성이 문제지요. 솔직한 말로 우리 기업소실정에 매 생산공정마다 그런 까다로운 눈을 가진 <검사원>을 얹혀 놔다가 합격품이 몇개나 나올것 같습니까? 그래야 4~5층짜리 집들인데 그렇게 따지고 들지 않아도 무너질 념려는 없습니다.》

나는 그가 현장기사의 말대로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생산을 책임진 일꾼으로서는 그럴수 있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었다. …

《그래 건재연구사선생의 심의사업은 어떻게 됐소?》

하고 묻고 싶은것을 그만 두고 나는 토방으로 해서 방에 들어 갔다. 사이문으로 관통된 두개의 방으로 이루어 진 집이었다. 아래방은 밝은 색깔의 보를 씌워 놓은 텔레비죤수상기와 재봉기 그리고 창문아래 책을 빼곡이 꽂은 책꽂이가 놓여 있는 노오란 색깔의 앉은뱅이책상에 그옆에다 세워 놓은 자그마한 경대가 전부였는데 전체 방 색깔이 밝고 싱싱한 느낌을 자아냈다. 대신 옷방은 두개의 키 높은 책장에 책상, 양복장이 가지런히 들어 앉았는데 밤색으로 통일된 가구들의 어두운 색깔탓인지 낡고 침침한감을 주었다. 책장 유리문너머로 일별해 보니 대부분 건설건재대학명판이 찍힌 책들이 주런이 꽂혀 있었다. 책상 우에도 두세권의 책이 쌓여 있었는데 놀라운것은 10여년전 통일거리건설장에서 보았던 그 낡은 주산이 책들옆에 놓여 있는것이였다.

주산이상 정확한 계산도구가 없다더니 아직도… 하는 생각으로 손에 들고 보니 얼마나 낡았는지 몸체며 알이며 원래 도색이 살아 있는 곳은 거의 없고 주산알구멍이며 그것들을 켜 참대며 얼마나 닳아 빠졌는지 조만간에 판날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주산을 놓고 그옆의 책을 들어 앞표지를 보니 역시 1960년대판 대학교재였다. 수도건설때 그의 방에서 본것도 이 책이 아니었던가 하는 의문조차 들었다. 딱히 기억은 없으나 어쨌든 그때도 이와 비슷한 대학교재였었다. 그때는 그 책을 들고 보면서 자재일꾼이 기술서적을 탐독한다는 생각으로 감탄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뭘 그리 보십니까? 볼게 없을겁니다.》

어느새 들어 왔는지 방 한가운데다 자개박이 네모난 상을 퍼놓으며 신주석이 나를 보았다.

《시장하시지요? 이렇게 차리노라면 우리 딸이 선생님을 모셔 올겁니다. 제가 음식을 할테니 나더러 모셔 오라는걸 강짜로 떠밀어 보냈습니다. 그 엘 보내는게 나올것 같아서…》

《딸이 몇살쯤 됐게요?》

지배인의 부인이 불치의 병으로 앓는다는걸 아는 사람은 지배인과 그의 딸뿐이었다던 젊은이의 말을 상기하며 내가 물었다.

《스물다섯인가, 여섯인가… 그쯤 됐지요.》

《만 스물여섯이예요.》 반쯤 열려 진 부엌문너머에서 울려 오는 아들의 목소리였다.

대답과 함께 방에 올라 온 그 애는 앉은뱅이책상앞에 제법 올방자를 틀고 앉더니 무슨 잡지책을 퍼놓고 읽기 시작했다. 그애가 전용으로 쓰는 책상이며 책꽂이 같았다.

《딸은 무슨 일을 합니까?》

같이 올적에는 몰랐는데 돌을 한방에 같이 놓고 보니 체격은 아버지처럼 굵직해 보이지만 얼굴은 영 탄판으로 곱살하게 생긴 그 애의 모습을 그냥 바라 보며 내가 물었다.

《우리 기업소 기술준비실에서 조수로 일하지요. 뭘 제판에는 뭘 어떤답시고 공장대학에두 다니는데 녀자가 뭘 하겠습니까? 이젠 시집 갈 나이도 됐는데 아직 총각두 있는것 같지 않습니다.》

아들녀석이 어른리를 내며 올방자를 틀고 마주 앉은 아래방의 책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가 측은한 어조로 말끝을 맺더니 부엌으로 내려 갔다.

어머니 없는 나이 찬 딸을 마음에 드는 사위감을 맞아 시집 보내야 하는 임무가 그의 어깨우에 덧치워 져 있다고 생각하니 내 어깨마저 무거워 지는듯 했다. 나는 그냥 앉아 있을수가 없어 아래방 책상으로 내려가 책꽂이의 책을 손에 잡히는대로 한권 뽑아 들었다. 《컴퓨터에 의한 콩크리트경도계산》이라고 쓴 기술소책자였다. 다른 책들도 쭉 훑어 보니 다 최신기술서적들과 잡지들이였다. 개중에는 학습장에 옮겨 베끼고 소책자처럼 뚜껑을 해썬 우에 자필로 장정까지 치해놓은 책들도 더러 있었다.

《이 녀석, 네 책상인줄 알았더니 누나 책상이로구나!》

그냥 책을 보고 앉아 있는 녀석의 뒤머리를 톡 튕겨 주며 내가 말했다.

《첿, 나와 누나가 같이 써요.》

아들애가 나를 힐끗 쳐다보며 하는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딸랑딸랑… 하고 대문을 여는 종소리가 울렸다.

《누나다!》 그 녀석이 일어 서며 문을 열었다.

《게 있거라. 넌!》 신주석의 타이름소리와 함께 부엌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일어 서서 나가 맞는것이 인사라는 생각에 아  
들애가 반쯤 열어 놓은 문개로 다가서던 나는 마  
당에서 들려 오는 부녀간의 말소리에 무춤 멈춰  
섰다.

《왜, 하명선생님은 안 오시니?》

《안 오시겠대요.》

《뭐?! 음- 내가 그냥 고집을 부릴가봐 피하는  
구나. 그래서 널 보낸건데 꼭 모셔 와야지.》

《저도 선생님을 집에 모셔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돌연 랭랭해 졌다.

《너 그건 무슨 소리냐?》

신주석이 속 궁근듯 한 어조로 물었다.

《아버진 강무동무의 안을 완전히 다 받아 들어  
야 해요.》

《응?!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냐? 계집애  
가...》 툭 내던지는듯 한 신주석의 목소리.

《전 한갓 계집애이기전에 기술준비실 조수예  
요.》 맞받아 울리는 딸의 당당한 어조.

《뭘뭘, 허참, 똘다.》 신주석의 목소리가 속 빈  
웃음속에 먹히워 들었다.

《옛날부터 이부자리 보구 발 퍼랬다구 제가 디  
디고 사는 땅형편두 더러 봐야지 이걸 그저 덮어  
놓고 새것, 새것 하는데 그 사람이 내놓은게 우  
리 실정에 꼭 들어 맞는가 말이다.》

《아버진 말끝마다 우리 실정, 우리 실정 하는  
데 낮은 실정타령만 하면서 앓은방아만 계속 쪼  
다간 우리 기업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기  
술을 연구개발하고 받아 들인 덕으로 쭉쭉 발전  
해 나가는 다른 기업소들을 어떻게 따라 가겠는  
가 말이에요?!》

누나의 여성이 높아 지자 방안에 우두커니 서  
서 내 표정을 살피던 아들녀석이 《누나!》하고  
부르며 마당으로 뛰어 나가더니 문을 꼭 닫아 버  
렸다. 그바람에 푹 끊어 졌던 둘의 말소리가 조  
용조용 몇마디 더 울리더니 부엌문 열리는 소리  
가 나고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아래방문이 열리  
며 신주석이 쑥 들어 왔다.

《허허, 이래서 같은 사업소에 딸 두는걸 반대  
한 건데... 지애비에 대한 시비감이라가 그런게  
전혀 형성되지 않거든요.》 하고 혼자소리처럼 중  
얼거리며 그는 상앞에 와 마주 앉았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남의 집에 와서 부녀간에  
주고 받는 이야기를 귀동냥해 들었다고 하는것  
도 도덕이 아니거니와 맞장구치거나 부정할 그런  
확실한 말이 나에게는 없었던것이다.

이윽고 정지방과 통하는 부엌문이 열리더니 소  
반에 음식을 가득 쟁겨 든 딸이 들어 왔다.

《저... 늦어서 미안합니다.》

낮은 소리로 인사를 하며 고개를 소곳이 숙인  
채 다가오는데... 이 기증기 같은 사나이에게 어  
떻게 이렇듯 곱고 얹전하게 생긴 딸이 생겼을가

하는 생각이 대뜸 들었다. 회고 반듯한 이마아래  
그옥한 조화를 이루며 들어 앉은 이목구비에 파  
르스름한 가을세타의 목깃사이로 상큼하게 드러  
난 흰 목, 벌에 가뭇이 탔으나 결만 살짝 그스듯  
이 느껴 지는 연하고 투명한 살결이며가 모든것  
이 턱자없이 크고 길쭉길쭉 하게 생겨 먹은 아버  
지 같은데는 조금도 없어 보였다. 수저그릇을 들  
고 뒤 따라 올라 오는 아들도 사내치고는 곱살  
하게 생겼다 했더니 체격은 제 아버지를 닮았지  
만 이목구비는 신통히 제 누나를 닮았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저 애들의 어머니가 그렇게 고왔  
으리라는 생각이 야릇한 아픔을 불러 냈다.

처녀는 들고 온 음식들을 소리 안 나게 큰상에  
다 옮겨 놓고는 조용히 나갔다. 아들녀석도 수저  
를 갈라 놓고는 그림자처럼 따라 나갔다.

성찬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생선지지개며 닭알  
부침이며 산나물볶음 그리고 푸르싱싱한 부루,  
썩갓... 정성껏 마련한 음식상이었다.

《그건 좀 있다 들어 오지?》

부엌에다 대고 말머리나 없는 말을 한마디 하  
고 난 신주석이 책상아래 낮은 장문을 열더니 술  
한병을 꺼내여 마개를 뺐다.

《집사람이 없이 우리끼리 살자니 먹는것두 그  
렇구 그저 늘 이 모양입니다. 그리 알구 듭시다.》

그는 조금 잠근듯 한 어조로 한마디 하고 내앞  
의 목이 긴 유리잔에다 술을 따랐다. 그 앞의 잔  
에는 내가 부었다. 그새 관심하지 못해 안됐다느  
니, 성과가 있느냐느니 등등... 주로 우리 사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술이 몇잔 들어 가자 그는  
얼굴이 벌개 져서 부엌에 대고 소리쳤다.

《을범아, 그걸... 누나 보고 그걸 들어 오래라.》

《예.》 누나가 대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 애가... 우리 을미가 고생이 많지요. 제 어  
머니를 대신해서 이 못난 애비를 내세울래, 제  
동생을 돌봐 줄래... 아, 참 내가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썰렁한지 그 애길 안했지요?》

《다 들었습니다.》 내가 얼른 받았다.

《몇년전에 상처했다는거랑 아직 홀몸으로 산다  
는 소리랑...》

《홀몸이야 아니지요. 저 을미, 을범이가 있는데  
내가 왜 홀몸이겠습니까? 허. 그런데두 나 보고  
이젠 저 애들 어머니 3년상도 치렀는데 새 녀자  
를 맞아 들이라는겁니다. 과부는 홀로 살아도 홀  
아비는 혼자 못 산다나요. 다들 체힘이나 해본것  
처럼 말입니다. 허허. 하지만 내가 어떻게 채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군소리 한마디없이  
자기를 다 바친 저 애들 엄마모습이 아직도 눈에  
삼삼합니다.》

그는 울음에 먹히워 말끝을 흐렸다. 이 억대우  
같은 사나이한테도 이렇듯 섬약한데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우묵하  
니 꺼져 들어 간 그의 눈굽에 눈물이 글썽글썽

고였다. 그 모습을 보자 나도 불현듯 속이 아파났다. 그레 핑그르르 젖어 드는 눈길을 아래로 떨구는데 부엌문이 열리더니 다반에다 김을 내뿜는 곱돌장단지를 담아 든 올범이가 나타났다.

신주석이 황급히 눈굽을 찍더니 그것을 조심히 받아 내가 앉은 상우에다 내려 놓았다.

《드십시오. 우리 집 특산인 추어탕입니다.》

하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단지뚜껑을 감싸진 그는 보물단지나 헤쳐 보이듯 뚜껑을 열어 제꼈다. 발기우리한 토장국이 얹은 거품을 밀어 내며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소품치는 장물속에서 손가락 마디만큼씩 한 물고기토막들이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며 숨박꼭질하고 있었다.

《<고난의 행군>때 며칠씩 난알구경을 못하다 보니 근력이 딸려 일 못 나오는 동무들이 더러 있었지요. 당에서는 자재사업이나 하던 날 크게 믿고 지배인을 시켰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궁리를 거듭하던 끝에 우리 집 뒤울안에다 이 미꾸라지서식장을 하나 만들었지요. 별거 없습디다. 논판이나 개바닥흙을 파온데다 소똥을 주어 모아다 뒤섞고 미꾸라지새끼들을 구해 넣었더니 그것들이 와글와글 크더군요. 그걸 건져다 이 곱돌장에 보글보글 끓여 가지고 가면 힘들어 주저 않았던 사람들도 용기를 내고 일어 서더군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장마당에 내다 팔라고 하지만 그건 돈밖에 모르는 나쁜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식량사정들이 그리 넉넉치 못해 힘들어들 하지요. 내 그레 이걸 더 확장해서 온 기업소에 다...》

순간 부엌쪽에서 쟁그렁- 하고 무엇인가 깨어지는 소리가 나고 이어 《누나!》하는 사내애의 다급한 부름소리가 들렸다. 신주석이 말하다 말고 얼른 부엌으로 뛰쳐 내려 갔다.

《아니 너, 장단지를 깨뜨렸구나! 어디 데지는 않았니?》

《그만하세요. 아버지!》

걱정에 젖은 아버지의 목소리와는 너무도 상반되는 딸의 목소리였다.

《아버진 이름 있는 학자선생님앞에서 그런 말씀 하시기가 부끄럽지 않으세요?!》

자기의 부주의로 귀한 그릇을 깨쳤다고 용서를 빌줄 알았던 딸의 뜻밖의 핀잔에 나는 어지간히 긴장해 졌다.

신주석이라도 의외의 타격인듯 대답이 없었다.

《아버지, 제 오늘은 솔직히 말씀 드리겠어요. 전 그 동무와, 강무동무와 한생을 약속했어요. 아버지와 올범이를 그냥 두고 떠날수 없어 하는 내 심정을 생각해서 그 동문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것을 결심했어요. 물론 이 모든것은 아버지가 승낙하셔야 될 일이긴 하지만... 아버지, 그런 동무가 아버지를 신소까지 하자니 가슴이 오죽 아팠겠어요?》

처녀는 말을 툭 끊었다. 목이 잠겨 더 잇지 못하는것 같지는 않았다. 너무도 엄청난 가슴속비밀을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터놓고는 어쩔수 없어 하는듯 했다.

신주석이라도 청천벽력 같은 딸의 고백앞에 한순간 어리둥절해 진듯 반응이 없었다. 아들녀석마저 너무도 심각한 정황에 움츠러 들었는지 아무 기척이 없었다.

나도 숨을 죽이고 나자신도 모르는 사이 처녀의 앓은뱅이책상우, 신간기술서적들이 빼곡하니 꽂혀 있는 책꽂이에 눈길을 주었다. 사이문더머 아버지 책장에 가득 꽂혀 있는 낡은 책들과 기이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저 신간기술서적들에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처녀의 지향만이 아닌, 그와 더불어 한생을 약속한 한 지식인청년의 지향도 함께 깃들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전에 나를 건재연구사로 잘 못 알고 자기네 지배인 동지가 새로운 기술에 낫을 돌리도록 해달라고 애원하듯 호소하던 그 젊은이의 모습이 금시 눈앞에 밝혀 왔다. 그와 저 처녀사이에 지배인을 두고 안타까운 이야기인을 얼마나 오갔으랴! 그러면서도 자기들만은 새로운 현대기술의 세계로 줄달음치는 시대에 뒤떨어 지지 말자고 저렇듯 보퐁이 일도록 신간기술잡지들을 구해다 읽기도 하고 밤을 새워 가며 빌려 온 책을 전부 옮겨 베끼고 정성들여 장정까지 했을것이다. 그러고보면 저 자그마한 앓은뱅이책상우의 역시 자그마한 단층 책꽂이야말로 새로운 세계에로 끝없이 지향하며 몸부림치는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세계, 그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유리문이 꼭 닫겨져 있는 신주석의 책장을 보았다. 그렇게 보아서 그런지 품들여 짠 검은 밤색의 책장이며 그안의 누렇게 탈색해 버린 책들이며가 그가 살아 온 과거만을 상징하며 또 그 과거만을 고집하는 그 어떤 낡은 세계의 유물처럼 생각되는것이였다. 어쩌면 한지붕아래 앓다란 사이문을 가운데 두고 이처럼 대조되는 두 세계가 여태 한가마밥을 나눠 먹으며 존재해 왔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가 돌아 가신후에도 우리를 생각해서 여태 홀몸으로 사시는 아버지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가슴이 아파요.》

잠시 끊어졌던 처녀의 목소리가 조금 담담해진 어조로 다시 울렸다. 때를 같이 하여 밖으로 향한 부엌문이 열렸다 달기는 소리가 나더니 이어 딸랑딸랑... 대문의 방울소리가 긴 여음을 끌며 찾아 들어 버렸다. 제가 있을 장소가 안된다고 생각한 아들녀석이 슬그머니 나가버린 모양이였다. 나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러지 못하고 잠자코 앉아 있었다. 열려진 부엌문사이로 딸의 목소리가 또렷또렷 날아 넘어 왔다.

《하지만 해야겠어요. 아버지, 전 언젠가 우리 기업소에 현지실습을 나온 대학졸업반 학생들과 이야기를 주고 받던 아버지가 그들의 입에서 문득문득 튀어 나오는 새로운 첨단기술용어들을 알아 듣지 못해 처음에는 말귀 어두운 사람처럼 되묻다가 다음에는 덤덤히 앉아 그들의 얼굴만 쳐다보고 나중에는 손수건을 꺼내 공연히 땀을 씻으며 몇십년전 대학을 다닐 때 이야기로 어색한 공간을 메우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울었어요. 내가 오늘 왜 아버지방에 왔던가? 저분이 나의 어머니가 한평생 자신을 다 바치며 내세운 자랑스러운 나의 아버지가 옳긴 옳은가?

아버지, 아버지가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서 그 누구에게도 작용하는 일없이 사는 존재라면 이렇게 아픈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나라앞에 한개 기업소를 책임진 지배인이 아닌가요? 연구사선생님이 그러는데 아버지장군님께서 말씀하셨데요. 자신께서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도하실 때 공장의 부지면적이나 공장연혁을 환히 꿰뚫고 설명해 주는 지배인은 많아도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 세기에 공장이 해결해야 할 기술적목표들을 가지고 있는 지배인이 적은것이 제일 가슴 아프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지배인네 집엔 이런 민물고기식식장도 좋겠지만 기업소를 새로운 기술적수준에 끌어올릴 과학기술을 터득하는 첨단기술서재가 꾸러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자 연구사선생님을 모시러 갔다가 강무동무에게 열정에 넘쳐 첨단과학기술강의를 해주시는 연구사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통절히 느꼈어요. 저분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하고 말이에요.》

다음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타박타박 마당을 가로지르는 발자국소리, 이제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

하지만 방울소리는 들리지 않고 부엌문이 열렸다 닫기는 소리가 다시 울렸다. 대문을 잡고 서서 자신을 다잡은 딸이 부엌에 들어 온 모양이었다. 이제 신주석이 반쯤 열려진 부엌문을 열고 들어 올것이다. 웃으면서? 혹은 심중한 낮빛으로?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것처럼 혼연스런 표정으로?

나는 저도 모르는 충동에 움쭉 일어 섰다.

이제 그의 얼굴을 어떻게 마주 본단 말인가?

딸에게서 그토록 듣기 어려운 지란을 받고 들어 서는 그의 얼굴을...

웃으며 들어 서든 울며 들어 서든 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

나는 천막을 나섰다.

저녁무렵이어서 하늘은 락조에 물든 옅은 구름이 솟아 있는 수예사가 연청색 바탕의 천에다 수

를 놓은듯이 아름답게 덮였고 강물은 진홍빛 쇠물처럼 일렁거리며 느물느물 흐른다. 벌써 땅거미가 깃들기 시작한 건설장구역엔 그 사이에 새로 들어 앉힌 혼합기들이 와룡거리며 돌아 간다.

가을날의 저녁이라 대기는 낮동안 언제 그렇듯 따거웠거나 실게 곧 서늘하게 식어 들고 무엇에 놀란듯 찌룩, 찌르룩- 하고 날아 오르는 찌르르기의 울음소리에서도 한여름에 들던 때의 생의 활기가 느껴 지지 않고 문자 그대로의 《가을냄새》가 난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것을 별로 흥심없이 바라보면서 천막밖, 건설자동무들이(구체적으로는 신주석의 지시로) 품 들어 만들어 준 나무결상에 가 앉았다.

무엇인가 사색하고 싶었다. 그것도 늘 그러하듯 웅근 닳새동안 불안고 씨름한 《화석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싶었다. 그래 지그시 눈을 감았으나 이렇게 할 명백한것은 잡히지 않고 무어라고 형언할수 없는, 어딘가 둔한 동통 같은것이 가슴 한구석에 소리없이 자리 잡는것이였다.

그만 하면 연구사업은 잘되어 가고 있다. 며칠 안으로 현지조사는 성과리에 매듭할수 있다. 그런데 속이 왜 이렇게 묵직한가? 어제 밤에 받은 충격때문인가? 그래, 《현대》에 대해, 《현대인》에 대하여 생각하고 싶었지...

《사색하긴 참 좋은 저녁이군!》

머리우에서 울려 오는 궁글은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손이 어깨에 와닿는 바람에 생각을 중동무이하고 머리를 들었다. 뜻밖에도 윤하명연구사가 내 어깨를 짚고 서서 멀리- 강기슭에 어는 새 와 앉았는지 알수 없는 밤낚시군들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고고학자선생네 <화석인>들도 저렇게 고기잡이는 했겠지? 물론 천렵도구는 달랐을테지만...》

혼자소리처럼 말하며 그는 엉거주춤 일어 나려는 나를 꼭 눌러 앉히고 자기도 내옆에 나란히 앉았다.

《어제 밤 신주석지배인이 고고학자선생님앞에서 딸한테 단단히 일을 당했다면서?》

《아니, 그건 언제?!》

《오늘 아침 딸이 찾아 왔더군. 아픈 소리 해놓군 너무 가슴에 맺혀서 말ियो.》

《그런데 선생님은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딸까지 모시러 갔겠는데...》

나는 그만 왔더라도 그런 딱한 일은 벌어 지지 않았을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탓했다.

《갈수가 없었소.》 나를 힐끗 돌아 보며 그가 대답했다, 《솔직히 고백하면 나도 인간인데... 가서 그와 무릎을 마주 하고 앉으면 인정에 못이겨 그의 요구를 받아 들이게 될가봐 겁나서 가지 못했소. 이걸 정말ियो.》



나는 로연구사의 솔직성에 가슴이 뭉클하여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우리가 앉아 있는 둔덕에서 열댓걸음앞에서 있는 키 큰 뽕나무를 쳐다보며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아직 마가율이 아닌데도 누릿누릿 황이 든 잎새들을 헐렁하니 털어 버린 그 나무를 쓸쓸하게 쳐다보며 그가 무슨 말인가 하기를 기다렸다.

《고고학자선생도 들었겠지만 발명은 아주 단순한거요.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일군들의 립장에는 심각한 사회적문제, 인간문제가 있단 말ियो.》

그는 설렁설렁 불어 오는 강바람에 우실우실 흠어 저 내리는 뽕나무잎새들을 하염없이 올려다 보며 말을 이었다.

《사실 중앙급 연구소에서까지 개입해야 될만큼 그리 큰 문제는 아니요. 하지만 이자도 말했지만 거기에 한 인간이, 당을 받들어 일을 잘해 온 한 좋은 일군이 새롭게 도래한 첨단기술시대에도 훌륭한 일군으로 그냥 일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당을 받들어 10년은 더 일할수 있는 한 일군이 시대의 락오자로 생활의 뒤꼍방에 구겨 박히느냐 하는 심각한 운명문제, 사회적문제가 있기때문에 이렇게 왔소.》

마디마디를 그루 박듯 쪼아 박는 그의 표정은 준절했다. 서컨 하늘을 물들였던 불깃불깃한 석양이 거뿔한 빛으로 어두워 지고 슬금슬금 물려들던 땅거미가 완전한 어둠으로 덮이여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볼수 없었지만 나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보였다. 그것은 그 어조에서 그리고 내 손을 꼭 잡고 놓을줄 모르는 그의 손의 떨림에서 오는 느낌이었다.

《난 며칠동안 신주석동무를 보면서 언젠가 어느 대학 생물실험실에서 본 포르말린용액속의 말뚝망둥어생각을 했소. 백만년이 흐르도록 진화되지 않았고 포르말린용액속에 집어 넣는 바람에 수십년동안 자기 모양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그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를 말ियो. 하지만 누구도 신주석을 포르말린용액속에 집어 넣지 않았소. 그 자신이 스스로 자기주위를 포르말린용액화해 가지고 그 속에 들어 가 당신네가 연구하는 그런 화석이 되어 버리고 말았거든. 산 화석이!》  
《산 화석이요?!》

나는 얼결에 그 말을 받아 외웠다.

《아니, 산 화석은 지구물리화학적요인에 의하여 변화되지 않고 보존됨으로써 인류력사연구에 커다란 도움을 주는 당신네 그 화석이 진짜 산 화석이고 발전하는 현실을 외면해 버리는 바람에 지적생장이 정지되어 버린 사람들은 아무 쓸모도 없는 죽은 화석들이지.》

말을 끊고 그는 천천히 일어 섰다. 나도 따라 일어 섰다. 현미경아래, 화석우에 자꾸만 덧놓이며 애를 먹이던 신주석의 모습이 다시금 떠올랐

다. 손수건으로 땀이 흥건히 내뻐 얼굴을 씻으며 눈 줄대를 몰라 허둥거리는 그 《거인》의 모습이... 10여년전 수도건설장에서 보았고 어제 밤 그의 책상우에서 본 낡은 주산이 떠오른다. 10여년전 자재과장의 사무실 책상우에 있었고 지금 지배인의 책상우에 그대로 있는 책들이 밝혀 온다... 《산 화석》, 《죽은 화석》...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오. 내 그래서 력사학자선생을 찾아 왔소.》

검은 기름갈이 번들거리며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 보며 윤하명연구사는 갈린 소리로 말했다.

《사소한 리기심도 없이 기업소를 위해 자기를 다 바친우에 몇년전엔 안해까지 바친 그 좋은 일군이 공부를 하지 않고 현대기술을 외면하는 바람에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고 기업소의 생산발전에 지장이 되는걸 생각하면 어쨌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단 말ियो. 오히려 그가 혹독한 관료주의 자이던가, 개인리기주의자였으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무겁지는 않을게거든! 아, 왜 그렇게 됐는가.》

《선생님!》

뒤에서 울리는 남녀의 조용한 부름소리에 그는 말을 툇 끊고 돌아 섰다. 나도 따라 돌아 섰다. 천막안에서 비쳐 나오는 전등빛에 몇걸음뒤에 서 있는 두 젊은이의 모습이 뻔히 보였다. 한걸음 앞의 남자는 며칠전에 내앞을 막아 섰던 젊은이였고 뒤의 녀자는 그의 애인인 지배인의 딸이었다.

《저... 선생님을 잘못 알고 실례한 절 욕하십시오.》 젊은이가 나를 알아 보고 용서를 구했다.

《어제 저녁엔 정말 안되었습니다.》 처녀도 소꿉이 머리를 숙여 잘못을 빌었다.

《허허. 벌써 다 구면들이지. 그래 어떻게들 왔소?》 윤하명이 그들한테로 다가서며 물었다.

《아버지가...》 하고 말머리를 땀 처녀는 어찌선지 젊은이를 쳐다보았다. 청년이 대신 대답했다.

《지배인동지가 고열로 오늘 아침 일어 나지 못했는데 지금도...》

《허허. 울미가 너무 세계 강타를 먹인 모양이군! 알겠소. 가겠소. 병문안이야 가야지.》

젊은이들은 금시 얼굴들이 밝아 지더니 인사하고 돌아 서서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훌륭한 젊은이들이요.》

저벅저벅... 자박자박...

야릇한 화음을 이루며 멀어 저 가는 그들의 발자국소리를 잠시 여겨 들던 윤하명이 감동에 겨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제일 어려운 때 군대에서 제대되어 통강냉이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대학공부를 착실히 했소. 학교에서 배워주는것외에 자습으로 첨단지식을 놀랄만치 습득했을뿐 아니라 과학을 대하는 그 자세가 좋거던!

우리 장군님의 총대중시, 과학중시사상을 받들고 자란 새 세대가 파시 다르거든.

신주석이를 생각하면 가을비에 젖은 잎이 떨어져 내리는 활엽수밑에 선것처럼 가슴이 쓸쓸해졌다가도 저 동무들을 보면 봄비에 젖은 우에 햇빛이 함뿍 쏟아 지는 봄들판에 나선것처럼 속이 탁 열린단 말이요. 아마 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늙은이의 잔근심이겠지.》

《아니, 아닙니다.》

저도 모르는 마음속 격동으로부터 나는 그의 마지막말을 부정했다.

《그것은 결코 늙은이의 로파심에서 오는 잔근심이 아닙니다. 조국의 오늘과 래일을 두고 잠 못드는 공민의 참다운 애국심입니다.》

《허, 너무 요란하군!》 그가 웃으면서 받았다.

《하긴 고고학자선생도 저 동무들을 생각하면 <미누스행군>을 하는 보람이 크게 느껴 질거요. 어느 나라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적이 있소. 앞으로 더 전진하기 위하여 뒤를 늘일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새 세대들을 보면 뒤로 들어 가는 동무대들의 발걸음이 한결 험해 질거란 말이요. 자. 그럼 난 가겠소.》

그는 즐거운듯 한손을 들어 뺨 내리쳤고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나는 따라서며 물었다.

《신주석지배인한테로 말입니까?》

《거긴 래일모레쯤 둘이 같이 가지요.》

《예?!》

《래일 밤까지 혼자서 좀 더 앉으라지. 그한텐 고민이 필요하오. 그럼 다시 만나지요.》

천막에서 비스듬히 새여 나오는 전등밑에 그의 모습이 우뚝이 드러났다가 얼핏 사라져 버렸다. 그다음 어둠속으로 동안 뜨게 멀어 저 가는 발자국소리... 혹시 넘어 지지나 않을가 하는 걱정으로 숨을 죽이고 서서 그 발자국소리를 새겨 들노라니 절로 머리가 숙어 졌다.

나는 저 연구사선생처럼 우리 뒤를 이어 선 새 세대들의 모습을 놓침없이 지켜 보면서 피로움에 속을 앓기도 하고 희열에 몸을 떨기도 하며 살아 왔던가? 몸 담고 사는 이 현실, 우리 자식들이 살게 될 미래에 대한 공민적책임감에서 벗어나 문자 그대로 과거속에서만 살아 오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내 또한 《산 화석》 아니 《죽은 화석》의 또 다른 변종이 아니겠는가!

딱, 딱, 딱...

천막속에서 조심스러운 망치질소리가 울려 나왔다. 아득한 과거에 산 《화석인》들의 생활흔적을 찾아 돌을 까는 소리였다.

문득 끄트머리를 잡았다가 그만 둔 《현대》에 대한 그 어떤 사색의 실머리가 떠올랐다.

《현대》란 무엇인가? 어제에 비하여 오늘은 《현대》이다. 이 순간에 대하여 다음 순간은 벌써 《현대》이다. 그러나 어제에 비하여 오늘에 변화

발전된것이 없다면, 이 순간에 비하여 다음 순간이 고정불변하다면 그것은 《현대》로서의 가치가 조금도 없는것이다.

저 천막속의 《화석인》인들도 저들이 사는 시대를 가리켜 《현대》라고 불렀고 자신들을 《현대인》이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 벌써 《현대》에 대한 의식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의 시간적개념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것이다.

그때는 《현대》라는것의 시간적길이가 몇십 혹은 몇만년에 해당되었을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중세, 근세를 걸쳐 현세에 오면서 《현대》의 시간적길이는 몇천, 몇백, 몇십년으로 짧아 졌다. 특히 20세기 중엽에 출현한 전자공업, 그중에서도 컴퓨터공업의 눈 부신 발전으로 하여 도래한 속도시대인 오늘에 와서 《현대》의 시간적길이는 비할바 없이 짧아 진 대신 폭은 대단히 넓어 지고 내용이 심오해 졌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순간의 정지도 없이 변화발전하며 고속도로로 내달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자신을 따라 세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거나 지어 외면해 버린다면 그는 현대인으로서 살 가치가 없다. 몸은 비록 현대에 살아도 정신은 과거에 두고 사는 《죽은 생명》인것이다...

나는 우리 동무들이 《과거사람》과의 마지막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천막앞에 섰채 오래도록 《현대》에 대한 내나름의 생각속에 묻혀 있었다.

×

이틀후, 해질무렵.

출장 왔던 일을 각각 끝낸 나와 윤하명연구사가 떠나기 앞서 병문안을 갔을 때 몇달동안 중병이라도 앓고 난 사람같이 꺼칠해 진 신주석이가 까스로 몸을 일으켜 우리를 맞았다.

그는 열이 있는가 하여 이마도 짙어 보고 맥도 짙어 보는 윤하명의 손을 덥석 잡고는 오래도록 놓을 줄 모르더니 목 갈린 음성으로 말했다.

《선생님, 안심하고 올라 가십시오. 내 저 동무(그는 자기 딸과 함께 아래방에 엉겨주춤 서 있는 미래의 사위를 가리켰다.)의 안을 무조건 그대로 받아 들이는건 물론이거니와 이제부터 공부를 다시 하겠습니까. 머리가 반백이 되긴 했지만...》

《반백이 어쩔다는지요?》

윤하명이 랭정한 어조로 반박했다.

《백발이 되도록 살며 일하려면 죽는 순간까지 공부를 해야 하오. 그런데 우리들속엔 대학에서 배운것으로 일생공부를 아주 마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

윤하명이 그렇지 않느냐는듯 나를 돌아다 보았다. 신주석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로 새겨 듣고 고개를 숙였다. 윤하명이 그의 책장을 훑어 보며 말을 이었다.

## 래일

송명근

《대학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세상을 보는 과학적인 눈을 주었고 장차 발전하는 새로운 지식의 세계를 터득할수 있는 초보의 초보적인 기초를 닦아 준데 불과하오. 그런데 그것으로 공부를 아주 마쳐서야 발전하는 현실을 어떻게 따라가 내겠소? 사업이 바빠서 공부할 짬이 없다고들 변명하는데... 그건 말도 되지 않소. 바쁘면 경애하는 장군님처럼 분망하신분이 어디 있겠소? 이렇게 말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 그러오.)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우리 장군님께서도 공부를 하신단 말이요. 그래서 첨단과학의 어느 분야에도 막히시는 일이 없이 멀리 앞을 내다보시며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으로 앞장서 이끄신단 말이요. 그런데 장군님의 손발이 되어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겨 와야 할 일군들인 우리가 공부에서 게으름뱅이가 되어 전진하는 조국에 짐이 되어서야 안되지! 내가 말하고 싶은것은 이뿐이요.》

이야기를 시작할 때 갈아서는 장시간 품을 놓고 할것 같더니 이렇게 문득 끝마친 그는 움쭉 일어 섰다. 그리고는 신주석이네들이 볼들새없이 마당에 나섰다. 부엌에서 한창 음식을 준비하던 딸이 따라 서고 젊은이도 허둥지둥 따라 나왔다.

《참, 이걸 아버지한테 들려라.》

대문밖까지 볼들며 따라 서는 처녀에게 자그마한 전자수산기를 꺼내주며 그가 말했다.

《내가 쓰던 휴대용인데 좀 낡았지만 이걸 쓰도록 해라. 책상위의 그 주산은 아버지 모르게 어디 치우던가 하고 말이다.》

떠나가는 귀한 손님에게 한끼 음식대접이라도 시켜 보내려고 대문밖까지 따라 나왔다가 뜻밖의 것을 받아 든 처녀는 받아 두어야 할지 사양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조심히 받아 들고 그를 쳐다보며 조용히 물었다.

《저...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이제 될가요?》

《허허. 되지 않으면. 후회는 때 늦게 오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늦는 법이 없다. 그러구 너희들이 있지 않니?》

《정말 그럴가요?!》

딸의 얼굴에 밝은 웃음이 피어 났다.

대문가에 서 있는 젊은이의 얼굴에도 밝은 미소가 어렸다. 토방우에 나와 이마가 처마에 닿을 듯이 꺼꺼부정하니 선 신주석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하며 손을 흔들었다.

나에게는 그가 벌써... 그 어떤 《산 화석》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의 옛 스승인 윤하명의 눈에 또 그렇게 보였으리라고 나는 믿었다.

그들을 뒤에 남긴채 역으로 향한 우리의 마음은 개운하고 발걸음은 가벼웠다.

인생은 기다림이라 하더라  
바라는것이 없다면  
기다리는것이 없다면  
삶이 허무하리라  
굽이굽이 머나먼 한생이 힘겨우리라

금방 찾아 올듯  
손에 닿을듯  
가슴 울렁이며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래일을  
기다림속에 나는 사노라

목 마르게 기다리는 그것은  
예고도 없이 집집의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때로 늦어 지기도 하고  
안개속에 쌓인듯 희미한 때도 있거니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수 없으리  
험난한 길 웃으며 갈수도 없으리  
우리의 래일은 어떻게 왔던가  
고난의 시련속에서  
눈보라길의 진거름썰매행렬에 실려 왔고  
마대전, 등짐으로 쌓아 올린  
발전소언제우에 받들려 오지 않았던가

저 멀리 그려 보던 강성대국의 래일을  
벌써 흐뭇이 안아 보는 오늘이여  
굶임 없는 장군님의 선군길 자욱자욱우에  
련이은 준공식과 새집들이 경사...  
기다릴 사이도 없이  
또 새것을 기다리는 숨가쁨이여

래일, 우리의 래일은  
다닥다닥한 땀기논을 밀어 제긴  
지평선에 아지랑이마냥 펼쳐 지고  
굴뚝 없는 백두산 선경마을  
죽가마처럼 끓는 양어장물결우에 넘실거리고  
굽이굽이 흐르는 개천-태성호 물길 따라 오고  
있다

오오 래일! 래일은  
멀리에서 오지 않나니  
흥건히 땀배인  
우리의 손에 받들려 오고 있다

## 붓을 총대로!

지금도 나는 취재길에서 공화국정부성명을 접하던 때의 일을 커다란 격동속에 그려 본다. 핵문제를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미국과 그의 하수인, 대변인으로 굴러떨어 진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에 대처하여 취해 진 우리 인민의 단호하고도 원칙적인 립장을 밝힌 성명이 었다. 성명을 들으면서 나는 가증스런 원썬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금할수 없었다. 동시에 우리 공화국의 당당한 자위적조치에 끓어 오르는 흥분과 감격, 크나큰 긍지와 자부를 뜨겁게 느꼈다. 나의 생각은 어느덧 머나먼 35년전의 옛 추억으로 줄달음쳐 갔다.

미국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나포되었다는 소식을 내가 전해 들은것은 최전연에서 그리 멀지 않은 903고지에서였다. 그 시기 나는 포부대의 분대장으로 군무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부대에 비상소집령이 내려 우리는 모두 대기상태에 들어 갔다. 처음 나는 이것이 그 어떤 훈련이거나 아니면 상급 참모부에서 내려와 일상적인 동원준비상태를 검열하려고 일오킨 비상소집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차후임무를 받으려 대대참모부로 올라 간 중대지휘관들이 한시간이 지나도록 돌아 오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 었다.

여느때 같으면 열번도 더 내려 왔을 지휘관들이 이처럼 오래 지체되는것이다. 우리는 소대별로 모여 이제나 저제나 다음 지시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럴 때 기다리던 지휘관들이 내려 왔다. 철갑모를 쓰고 위장망을 걸친 지휘관들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긴장하고 흥분된 빛이 어려 있었다.

《중대 모였!》

1소대장이 복도에 나서며 짧고 엄한 어조로 구령을 쳤다. 우리는 모두 벌떡벌떡 일어 나 제 자리를 차지했다. 중대는

곧 소대, 분대 단위로 나란히 섰다.

대오앞에 중대장이 나섰다. 《동무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 내렸소.》

그리고는 미제의 무장간첩선을 나포했다는 소식이며 그 보고를 받은 미국대통령이 새벽 3시에 침대에서 뛰쳐 나와 부랴부랴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그 무슨 《보복》을 가하겠노라며 으르렁댔다면서 이에 대처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께서 전군에 비상동원령을 내리셨다는것을 공포하였다.

그제서야 나는 이것이 여느때 일상적으로 진행하던 그런 훈련과는 질적으로 다른 비상소집이라는것을 깨달았다.

(전쟁이다!) 하는 생각이 들자 나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아, 때는 왔고나.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리라던 그 꿈을 실현할 때는 왔다고...

우리는 만단의 출동준비를 갖추고 명령만 기다리고있었다. 그러던 그해 2월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시였다.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아, 그때 가슴속에 끓어 넘치던 환희의 웨침, 우리는 이겼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 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여 우리는 그 어떤 대적과도 싸워 이길수 있다는 철의 신념이 산악처럼 뿌리 내려 병사들모두가 평양하늘을 우러르며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그리고 멸적의 총창을 높이 추켜 들었다.

그때로부터 35년이 지난 오늘 적들은 또다시 우리를 압살 질식시키려고 핵문제를 걸고 강도적요구를 가해 오고 있다. 미국이 압력과 위협으로 그 누구를 굴복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우리는 결코 그 누구의 압력과 전쟁이 두려워 민족의 자주권을 포기

## 조승찬

할 그런 나라도 아니며 구결로써 평화를 바라는 인민도 아니다.

전쟁에는 전쟁으로, 강경에는 초 강경으로 맞서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의 변함 없는 립장이고 혁명적기질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의 배짱이다.

돌이키면 적들의 강도적론리와 횡포한 《힘의 시위》로 하여 지구라는 이 행성우에는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인민들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으며 평화로운 도시와 마을들이 무참히 불 타버렸던가. 심지어 적들은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핵선제공격대상에 올려 놓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오산하고 있다.

어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미국놈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 놓았다면 오늘은 천하무적의 장군,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여 우리 인민은 결음결음 적들의 준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결히 지켜 나갈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노라니 나는 어버이수령님 그대ροι이신분, 경애하는 장군님을높이 모신 끝 없는 영예와 긍지로 가슴 부풀어 올랐다.

정세는 각일각 준엄하고 엄혹해 지고 있다. 엄혹한 정세는 우리모두에게 사생결단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싸워 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는 30여년전의 총 권 병사였다.

군복을 벗은지는 비록 오래여도 나의 가슴에는 최전연초소에 섰던 병사의 피가 끓고 있다.

붓을 총대로!...

이것이 공화국정부성명을 받아 안고 내 마음속에 굳게 다진 그날의 맹세이며 적들과의 최후결전에서 기어이 이기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문필전사로서의 사명과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우리 나라 작가들의 드림없는 결심이기도 하다.

## 혁명의 필봉을 멸적의 총창으로 버리어...

핵무기전과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한 공화국정부성명에 접한 그날로부터 멸적의 투지를 가다듬으며 창작전투를 벌리고 있는 우리 평론가들의 가슴은 오늘도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다. 얼마나 통쾌한 폭탄선언이었던가.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명한 미국이 또다시 국제원자력 기구를 사촉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한것은 미제의 책동이 얼마나 극도로 위험한 계선에 이르렀는가를 말해 주고 있다. 기구는 《결의》에서 우리가 그것을 리행하지 않으면 《유엔》을 통해 제재를 가할것이라는 최후통첩까지 하였다.

참으로 격분을 금할수 없다. 조미기본합의문을 체계적으로 위반한것도 미국이며 이른바 《핵개발》을 겹고 중유제공중단을 결정함으로써 조미기본합의문을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만든것도 다름 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나중에는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여 우리에게 대한 압살

책동을 국제화합으로써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할수 있는 마지막가능성마저 막아 버렸다.

우리가 국가의 최고리익이 엄중히 침해 당하는 사태앞에서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 있을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우리 공화국정부가 핵무기전과방지조약에서 탈퇴한것은 천만번 지당하며 그렇게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의 하수인, 대변인으로 돌아 나는 국제원자력기구에 있다. 참으로 공화국정부성명은 오만무례한 미국에 대한 철추이며 준엄한 론고장이었다.

미제의 발악이 극도에 달할수록 우리 평론가들은 더욱더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혁명의 필봉을 멸적의 총창으로 억세게 틀어 잡고 강성대국건설의 공격전에 떨쳐 나섰다.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다.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시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우리 평론가들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과 생존권, 존엄을 수호하기 위하여 멸적의 평필을 힘 있게 달리고 있다.

바위가 타고 강물이 끓어 번지는 1950년대의 조국결사수호전에서 불 타는 전호가에서 투쟁과 승리에로 부르는 작품을 쓰던 종군작가들의 그 투지와 그 기세로, 온갖 시련을 뚫고 적들의 고립압살 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수호전을 벌리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의 혁명적창작기풍으로 신념의 불을 달리는 작가들의 창작을 선도하는 평론활동으로 미제의 가슴팍에 철추를 내릴것이다.

미제는 함부로 날뛰지 말라! 위대한 선군령장 천출위인의 두리에 천겹만겹으로 일심단결된 총폭탄정신, 육탄정신, 자폭정신의 소유자들은 언제나 만단의 준비가되어 있거니.

위대한 백두령장이 계시는 이 땅에서 침략자들에게 차레질것은 무자비한 징벌뿐이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평론분과위원장 최길상**

## 가사

### 아들아, 네 탄창속에 재워 져 있다

김열송

아들아 너의 전호 바로 거기란다  
달아 오른 총신강 식힐새없이  
탄창을 물리던 아버지 옛 전장이  
잊지 말어라 내 아들아  
그날에 못다 쏜 아버지 총탄이  
네 탄창속에 재워 져 있다

아들아 너의 전호 바로 거기란다  
피 흐르는 두팔에 봉대가 아니라  
총탄을 쥐여 달라 아버지가 웨치던 곳

잊지 말어라 내 아들아  
조국의 병사로 산 아버지땡세가  
네 탄창속에 재워 져 있다

아들아 너의 전호 바로 거기란다  
**김일성**장군님 만세높이 부르며  
아버지가 결사전에 달려 나간 곳  
잊지 말어라 내 아들아  
기어이 결산할 아버지 복수가  
네 탄창속에 재워 져 있다

## 해후

류민호

## 1

동평양지구에 가면 우리 나라에서 전후에 건설한 6층짜리의 살림집이 있다. 1958년 봄에 첫 입사자들을 받아 들였으니 40년이 꼭 넘었다. 그 집으로 말하면 그 당시 건설분야에 있던 종파분자들이 조립식주택건설은 시기상조이며 우리 기술로는 안된다고 혈뜰을 때 제대군인건설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목조기중기까지 만들어가며 일으켜 세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일떠세운 조립식주택이다.

더우기 40여년전에 이 집에 처음으로 입사한 제대군인건설자의 한사람인 전기수는 지금도 그대로 살고 있다. 큰 건설사업소의 기사장으로 일하는 그의 맏아들은 중구역 현대적인 탑식살림집 세칸짜리 덩실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그는 이 집을 떠날 궁리를 애당초 하지 않고 있다.

《내가 왜 가? 난 이 집이 제일 좋아. 로친네와 들어서 살기엔 안성맞춤인데!》

그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이 집에 처음 입사하던 때 이야기를 하기 좋아한다.

《그때 이 주변이 온통 단층이구 폭탄구멍이가 많았어. 이 집에 입사하니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 오던지. 아래층에선 가족끼리 조용히 밥 먹기도 힘들 형편이었어. 그때가 어제 같은데...》

그 동안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섰는가. 락원거리, 문수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

이 집주위에만도 현대적인 고층살림집들이 가득 들어 섰다. 마치 체격이 쪽쪽 빠진 늙은이들 속에 체소한 늙은이가 끼워 서 있는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대로의 긍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일떠선 조립식살림집에서 산다는 긍지이다.

그 살림집건설자였던 전기수가 그곳 사람들에게서 류다른 존경을 받는것은 너무도 웅당한 일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는 이 집을 짓던 때부터 고스란히 건설자로 일하였고 룽십나이가 훨씬 지나서 은퇴한후에도 사람들은 그를 《러단장의 옛 상관》이라고 부르곤 하였다.

그밖에도 그가 이 고층살림집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한가지 리유가 또 있는데 그것은 살림집이 지은지 오래 다보니 종종 《탈》이 생길 때가 있

는데 그 《탈》을 처리하는데서 그를 대신할만 한 사람이 없기때문이다.

고장개소를 발견하는것쯤은 그에게는 식은죽먹기이다. 《좌측으로 두뿔정도 파라구. 그러면 상수도 이음짚이 나올거야.》 하는 식인데 그의 말대로 하면 틀림이 없다.

어데쯤 판이 이어 졌고 거기엔 방수제를 얼마나 발랐다는것까지 손금 보듯 환히 꿰뚫고 있으니 말이다. 그럴 때면 그의 입에서는 《빌어 먹을》소리가 련속 쏟아져 나오는데 그에게서는 이 말이 《조선말사전》의 해석과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더 많다.

《이것 봐라. 그 빌어 먹을 공병하사의 숨씨야. 건설장옆을 지나가는 처녀들을 흘끔흘끔 결눈질 하더니 이렇게 했군.》 하는 경우에는 《조선말사전》에 있는 해석에 어지간히 가깝다고 해야 할것이나 《이렇게 옛날 했던걸 다시 하느라니 그때 우리를 자주 찾아 와 일손을 돕던 해군하사처녀의 모습이 떠오르는군. 곱게 생긴데다가 노래는 얼마나 잘했다구. 술한 총각들의 속을 태웠지. 빌어 먹을.》 할 때에는 무한한 애정이 담겨 있어 《조선말사전》의 해석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곤 한다. 하여튼 그는 이 살림집의 《걸어 다니는 설계도면》으로 불리웠고 자신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그런데 바로 어제는 그 동갑나이의 한 아바이가 불쑥 나타나 일이 벌어 졌다.

토요일 저녁녘 전기수가 2층 3호의 대학생한테서 다음날 하게 될 아이들의 충별 체육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였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이 살림집에서 벌어 지는 아이들의 체육경기는 그 주위사람들까지 구경을 정도로 이채를 띠는것이였다.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거나 축구, 룽구를 하면 이 살림집이 외랑식이다보니 어른들까지 모두 나와 서서 내려다 보며 웃고 응원을 하는데 그 모습은 6개 층의 관람석을 가진 경기장을 련상시킨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걸음까지 멈추어 세우는것은 경기자체보다 경기를 응원하여 떠드는 살림집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정도이다. 어쨌든 그것이 점점 흥을 돋구어 이제는 충별로 경기를 할만큼 조직화되였고 승벽도 보통이 아니였다.

바로 그 계획을 들으며 전기수가 히죽이 웃고 있는데 풍채 좋은 한 늙은이가 굵은 목소리로

《말 좀 물읍시다!》 하였다. 《예-》하고 돌아 보던 전기수는 눈이 휘둥그레 저서 말은 못하고 건너다만 보는데 상대편 역시 입을 딱 벌리고 쳐다보기만 하였다.

잠시후에야 드디어 전기수의 입에선 먼저 거의 고향에 가까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니?! 이런, 빌어 먹을! 해군중사 김우진이 아닌가?!》

《전기수!》

그들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불안고 돌아갔다.

《웬일인가? 어디서 국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식을 듣구 있긴 있었구만. 금속기계공업성에 있네... 자네두 잘 알지? 건설성에 있는 땅크중사 말이야. 그 친구가 자네 소식을 알려 주더군. 아직도 이 살림집에 있다가. 언제부터 한번 찾아 온다고 하던 노릇이 이제야 막내결혼식에 와달라구 초대하러 왔네.》

《이런 반가울데라구야, 빌어 먹을... 방직공장에 있던 해군하사는 잘 있나, 영?》

《여기 서 있지 않나.》

전기수가 돌아 보니 반백의 호리호리한 로친이 옆에 서 있었다. 이 로친이 까만 해군세라복을 입고 노래 잘하고 웃기 잘해서 그렇게도 총각들의 애간장을 말리던 어제날의 《미인》이 과연 웬단 말인가. 주름살이 가득 덮인 얼굴에 틀이까지 잘못해서인지 입은 호물어 지고... 그래도 허리만은 꼳꼳하다,

《거 분명 련희동무가 옳소? 원 이런, 빌어 먹을.》

이 조립식주택의 건설자들의 상봉에 한명이 빠졌다. 그 불 같은 시절에 통계나 들고 다니며 창고일이나 하다보니 살림집구조도 잘 모르는 《2부류 건설자》였다.

《위생병하사》라고 불리우던 건설사업소 부기장 강철룡, 그는 지금은 눈만 떨어 지면 장기관을 불안고 있는 《장기광》인데 장기상대가 없을 때면 혼자서 장기수풀이에 시간을 보내곤 한다.

이때도 그는 장기관에 얼굴을 갖다 대고 장기수풀이에 정신이 쏠려 있었다.

《이보게, 또 장기요? 빌어 먹을! 이리 와 누가 왔나 보라구.》

전기수가 소리치는데도 대답이 없다. 그때에야 한 걸음 나서던 국장은 방에 앉은 사람의 옆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야, 이거 <곱세크하사>로구만!-》

장기관에 붙박혔던 강철룡은 그제야 머리를 번쩍 들었다.

《옛날 내 별명을 부르는데 누군가?》

《날세, 김우진이를 모르겠나?》

그제야 강철룡이 안경을 코에 걸고 엉거주춤 일어 서서 멀뚱멀뚱 건너다 보더니 《원 이런?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며 허둥지둥 달려 왔다...

《자네가 어떻게 장기광이 되었나?》 하는 김우진의 물음에 강철룡이 대답이 궁해 히죽이 웃을 뿐이다.

그러자 전기수가 《건설사업소에서 오락경기를 하는데 회계실에서 장기선수로 나갈 사람이 있나. 그래서 억지로 장기경기에 내보냈는데 늦바람이 무섭다구 장기광이 돼버렸네 그러.》 전기수가 너그럽게 《훈수》해 주었다. 이윽고 그는 대학생에게 돌아 서서 귀속말로 속삭이였다.

《그렇게 하게나. 룡구대는 며칠 있어야 올테니 그건 다음일요일에나 쓰게 되겠지.》

김우진이 의아해서 무슨 말인가고 묻자 전기수는 담배 한모금을 맛 있게 들이키며 말했다.

《래일 여기선 아이들의 충별 체육경기를 한다네.》

《체육경기?》

《그럼! 새벽 6시면 호각소리가 울리구 유치원 아이들로부터 큰 학생들까지 달리기도 하구 일요일에는 또 체육경기를 하구.》

《그거 볼만 하겠구만!》

《이를 말인가.》 하던 전기수는 문득 한가지 생각이 떠올라 김우진의 어깨를 툭 쳤다.

《여보게,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구 래일 아침엔 체육경기를 보게. 그래야 자네 아들 결혼식에 가겠네.》

전기수가 김우진을 못 박아 놓는다. 더우기 어느 사이 달려 나온 전기수의 로친네가 련희의 두 손을 잡아 끄는통에 그들도 어찌지 못하고 수락하였다.

## 2

그렇게도 기다리던 일요일 아침에 공교롭게도 하수도가 메여 소동이 일어 나게 될줄은 누구도 예상 못했던 일이었다.

소동은 강철룡의 집 부엌에 갑자기 물이 차오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밤을 전기수의 집에 가서 옛날이야기를 풀어 놓던 끝에 새벽에야 잠자리에 누웠던 강철룡은 마당 청소를 하고 들어 온 로친네가 고아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났다.

원래 다혈질인 그의 로친네는 팔을 내저으며 소리를 질러댔다.

《얼른 일어 나요! 부엌에 배 띄우게 됐는데 잠만 자면 어떻게 해요?》

《무슨 소동이요? 기막힌 장기수풀이를 하는 꿈을 꾸었는데.》

《꿈이 다 뭐요? 집이 물에 떠내려 가게 됐어

요!》

그제야 일어 난 강철룡은 부엌을 내려다 보고 눈이 화등잔처럼 되었다.

《영? 이게 뭐야?》

하수도가 댔는지 물이 빠지지 않고 한뿔은 잘 되게 차 있었던것이다. 가는 막대기로 하수도를 쭈셔 댔으나 물은 계속 차오르기만 하였다. 뒤이어 아래층 집들에서도 하수도로 물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차오른다는것이 알려 졌다.

《이제 무슨 도깨비판이야?》

강철룡은 전기수네 집으로 허둥지둥 달려 가 문을 마구 두드렸다.

《령감 있소?》

전기수가 아니라 그의 로친네가 문을 열었다.

《온실에 갔다 오겠다고 했는데요.》

《허참, 야단이군. 일요일이어서 상하수도작업반도 휴식할텐데.》

방에서 밥상을 받고 있던 김우진내외도 내다보았다. 사연을 들은 그는 수저를 놓고 밖으로 나왔다, 련희도 까만 눈을 크게 뜨고 령감을 따라 나왔다.

김우진은 아래집들의 부엌을 몇집 돌아 보고는 머리를 흔들었다.

《이건 부엌에서 멘것이 아니라 밖의 하수도가 잘 못된거요.》

《그 그럼 어떻게 한다?》

강철룡이 어쩔줄을 모르는데 김우진은 밖으로 나가 빙 둘러 보다가 벽체옆의 한곳을 가리켰다.

《여기를 파봐야겠소!》

강철룡과 그의 처가 삽을 들고 급히 파기 시작하였다.

옆의 세대들에서도 나와 합세하였다.

김우진은 그들이 한삽한삽 퍼내는 흙밥을 눈여겨 살피고 있었다.

저것이 그때 우리가 한삽한삽 떠서 덮은 흙이 아닐가. 그 흙일것이다.

벌써 40여년이 지났다. 40여년이...

그때 일이 어제런듯 방불히 떠올랐다. 그러자 얼마나 깊이 파야 되겠는가도 가늠이 갔고 고장 정도도 대략 가늠이 갔다. 아니나다를가 얼마를 깊이 파지 않았는데 흙짚으로 물이 스며 올라 오기 시작하였다. 조금 더 파자 삽날에 콩크리트가 덜컥하고 마주치는 소리가 났다. 그제야 김우진은 고개를 들었다.

《이게 아마 하수도를 덮은 블로크일거요. 저놈을 제껴야 할텐데 어떻게 들어 낸다?》

《아니 령감은 무슨 혼자소리만 하고 있소? 대책을 세울 대신... 아이구, 이게 뭐예요?》

련희는 지청구를 하다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그의 발치에서 물이 왈각 솟구쳐 올랐던것이다. 블로크뺨으로 솟아 올라 오는 물이었다.

그 물은 그들이 서 있던 자리로 밀려 들더니 온 살림집앞마당으로 퍼져 가기 시작하였다.

《아이구, 이걸 어쩌나?》

어느새 강철룡의 로친네도 따라 나와 안타까이 발을 굴렀다. 했으나 김우진은 머리를 끄덕거리었다.

《글쎄, 그렇다니까... 그러니 문제는 저놈을 들어낼 대책부터 세워야겠군. 가만, 그 큰 블로크장을 어떻게 들어 낸다. 맨손으루 제낄수는 없는거구...》하고 중얼거리며 사위를 둘러 보던 그는 마당 한쪽에 가려 놓은 댓개 되는 원목들을 가리켰다.

《저 나무면 되겠군.》

전기수의 로친네와 이야기를 나누던 련희는 펄쩍 놀랐다.

《저 나무는 유희시설을 만들 때 쓰려고 가져다 놓은것이라는데 무슨 생똥같은 소리를 하누. 그건 안돼요. 하수도때문에 야단인데 생똥같이 웬 나무를 찾누?》

련희가 지청구를 했으나 김우진은 제 생각만 앞세우면서 어데론가 사라져 버렸다.

이윽고 기다리던 전기수가 마치 김우진과 교대라도 한듯 나타났다.

그는 눈이 휘둥그레 졌으나 살림집의 좌상답게 당황해 하지는 않았다.

한번 쪽 훑어 보더니 버럭 소리 길렀다.

《뒷트하고 있소? 빨리 매총들에 올라 가 하수도에 일체 물을 버리지 말라고 알리오! 수도물도 다 막구!》

급기야 매총들에서 아낙네들의 청 높은 목소리들이 울렸다. 뒤이어 외랑식복도는 내려다 보는 술한 사람들로 가득찼다.

전기수는 태연히 웃었다.

《빌어 먹을! 다른데서 보면 벌써 체육경기를 시작할줄 알겠군!》

그가 취한 조치는 효과를 발생하여 잠시후에는 팔팔 솟구치던 물이 멎었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물이 온 마당에 질벅히 젖어 체육경기는커녕 걸어 다니기도 말쑥해 되어 버렸다.

《빌어 먹을, 그런데 김우진인 어데 갔나?》

강철룡이는 얼머름해 졌다.

《금방 있었는데. 어데 갔나?》

전기수는 잠시 생각을 더듬었다.

이 공사를 언제 어떻게 했던가. 분명 이곳 하수도 공사를 한 때는 이른 봄날이었을것이다. 4월 중순경에 벌써 준공검사 받을 준비가 거의 끝났을 때였으니까.

그때 하수도배관공사는 김우진이가 맡아 했다. 세포위원장을 하면서 힘든 일은 그가 거의 맡아 했던것이다.

《김우진은 어데 갔소?》



전기수가 또다시 묻자 런희는 머리를 흔들며 푸념처럼 말했다.

《땀어리속은 제 어미도 모른다는데 아무 말도 없이 훌쩍 가버린 령감이 어데 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늘쌍 이런다니까요.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혼자소리만 해서 사람을 속 태우면서...》

전기수는 허허 웃었다.

《런희동무도 늙었구려, 잔소리가 많아 진걸 보니.》

《마음 편하우다레, 마당이 물탕수가 됐는데 두 통담이 나와요?》 하고 런희는 눈을 흘겼다.

눈을 흘길 때 보니 젊은 시절 총각들의 넋을 뿜던 그 매혹적인 모습이 얼핏 엿보인다.

순간 전기수의 머리속엔 번개처럼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지, 생각이 난다. 바로 저 런희다. 그때 김우진이가 분명 저 런희를 만나러 나갔던 날에 이 공사를 했다. 바로 이 자리는 그날 자기가 관을 령결하고 골탄까지 칠한 곳이다...

그날은 봄날치고 꽤 쌀쌀한 날씨였다.

마침 토요일저녁이라 작업반원들은 대동교 건너 영화관으로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 영화를 보러 가고 반장인 자기와 세포위원장인 김우진이가 남았다.

낮에 하수공사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는데 그것을 마저 하려고 둘이 함께 남았던것이다.

관의 수평을 보장하느라 땅을 공그르려고...

그때 우진은 웬일인지 시계를 자주 보면서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했다. 전기수는 처음엔 그가 영화를 보지 못하는게 아쉬워서 그러는줄로만 알았었다. 저녁해빛이 엷어 질무렵 김우진이 느닷없이 혼자소리로 《기다려 주겠지.》 하는것이 아닌가.

《아니 누가 기다려 준다는건가?》 하고 전기수가 끄집어 묻자 김우진은 《응?》 하며 뒤더수기를 긁적거렸다.

《별게 아닐세. 저... 사실은 오늘 저녁 방직공장 런희동무 있지.》

《응?! 그래서?》

《그저 그렇다는거지... 지금 동쪽에서 기다릴 거야.》

《뭘! 런희동무가? 그런데 뭘 꾸물거려. 빌어 먹을, 어서 가라구. 이제 관만 맞추면 되는데 그건 내 혼자서두 마저 하지 않으리.》

전기수는 막무가내로 김우진의 등을 밀어 냈다.

전기수가 고개를 빼들고 보니 우진이 몇걸음은 주저주저하는듯 하더니 웬걸, 달려 가는것이 보였다. 전기수는 그 모양을 보면서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혼자서 코노래를 흥얼거리며 일을 마무리하던 전기수는 눈이 커졌다. 아무리 관을 맞추

려고 해도 팔 한 기장쯤 모자라는것이다.

전기수는 벗어 놓았던 모자를 쓰고 직장창고로 달려 갔다. 먼눈도 팔 사이없이 뛰다실이 하여 당도하니 강철룡이 마침 창고정리를 하고 있었다.

남들은 다 영화를 보러 갔는데 자기는 창고정리를 해야 한다는 불만에서 잔뜩 부르러 있었다.

좋지 못한 때에 찾아 간셈이었다.

《강동무, 토막관 하나 주게나.》

강철룡은 힐끔 쳐다보더니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툭 내쫓았다.

《출고전표!》

《마무리하다가 좀 모자라서 왔어. 후에 꼭 전표를 가져 오지.》

《출고증이 없이는 못 한개도 낼수 없어!》

전기수는 화가 났다.

《이름이 아깝구만. 빌어 먹을!》

《이름? 내 이름이 어쩔다는거야?》

《이름은 강철룡이라구 요란스러운데 속통은 한 줍도 못되게 조물썩하단 말이야. 빌어 먹을.》

《나중엔 별소릴 다 듣겠다,젠장.》

강철룡은 문을 닫아 버렸다.

전기수는 《빌어 먹을! 그러니 <प्세크하사>라는 말을 듣지.》

전기수는 속이 뒤틀려서 작업장으로 되돌아 왔다. 여기저기 돌아 보느라니 바로 현관 턱밑에 판토막 하나가 놓여 있는것이 아닌가!

(아하, 이 친구가? 그러면 그렇겠지. 김우진이가 누구라구!)

김우진은 이미 관이 모자랄수 있다는것을 예견하고 맞춤형 얇은 판토막을 마련해 놓은것이였다.

《빌어 먹을, 괜히 잤군.》

그걸 가져다 맞춰 보니 새것보다는 못했지만 그런대로 쓸만 했다...

전기수는 얼굴빛이 흐려 졌다.

(분명 그때 맞춘것이야!)

그때 그 관이 40여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보니 더진것이 분명했다.

왜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가. 40년나마 살면서도 제 발밑에서 빌어 지는 일도 예견 못했더니 이게 무슨 건설자란 말인가.

그는 후들거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물었다.

### 3

갑자기 《작업을 중지하시오!》하는 웨침소리가 울리였다.

《이건 또 웬 너석이야? 빌어 먹을.》

그러지 않아도 속이 부르러 있던 전기수는 소리 난쪽을 돌아 보았다.

웬 낮 모를 중년사나이가 소리치고 있었다.  
《왜 그러오?... 거긴 도대체 누구요?》  
《보수사업소 작업반장이요. 내가 여기 담당이요.》

아마도 인민반장이 숨차게 달려 가서 알린 모양이었다.

《처음 보겠는데?!...》

《나도 아바일 처음 봅시다.》

재빨리 응수한 반장이라는 사람은 그에게서 몸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하여튼 작업을 중지하라고요! 오늘 일요일이 돼서 사업소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구 또 이런 큰 공사는 마구 벌리는게 아니라고요. 옷층에서 물을 내려 보내지 않게 대책을 취하고... 보수는 래일 해야겠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녀자들이 일제히 한마디씩 고아냈다.

《아니 그러면 빨래는 어떻게 하구 위생실리용은 어떻게 하라는거예요?》

갑자기 물방으로 날아 드는 《집중사격》에 반장은 당황한듯 눈을 껌벅대더니 버럭 화를 냈다.

《아주머니들은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소? 그럼 어디 가서 휴식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내란 말이요?》

녀인들이 짙곰하여 조용해 지자 그의 어성도 좀 낮아 졌다.

《이제 보시라고요. 파보면 알겠지만 블로크들을 들어 내야 하겠는데 아주머니들이 다 달라붙어서도 들어 낼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중기차도 있어야 할텐데 그게 이 반장주머니에 있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

《기중기... 기중기...》 전기수는 이마를 잔뜩 찌프리고 중얼거렸다.

저런 말을 언제 들었는가. 《기중기... 기중기...》 그렇지, 40여년전 바로 이 집을 지을 때였지.

그때 조립식건설을 달가와 하지 않는 종파분자들이 바로 이 기중기문제를 들고 나왔었다.

《기중기없이 조립식건설을 한다는것은 지상공론이요!》

당시 건설성의 부국장이라는 자는 제대군인작업반에까지 나와서 작업을 중지시켰다.

저녁무렵이었다.

그는 작업장에 나타나더니 기초구덩이를 내려다 보았다. 그는 잡도리를 보고도 제격 그것이 다층집기초라는것을 한눈에 알았다.

《여기 반장이 누구요?... 동무요? 그래 부디 다층집을 조립식으로 짓자는것 같은데 그래, 블로크를 어떻게 올리겠다는거요? 등집으루? 블로크가 벽돌인줄 아오?》

전기수는 끝내 참지 못하였다.

《우린 해내겠소.》

《뭐요! 이 동무들이? 내가 룡담이나 하자고 여기 온줄 아는가, 응? 동무네가 기중기를 어디 가서 만들어 오겠소?》

그가 아무리 그래도 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있을뿐이었다.

전쟁시기에 그 육중한 직사포를 빈몸으로도 오르기 힘든 가파로운 돌박산에 올려 놓을수 있다고 생각한 전사가 누가 있었던가! 그렇지만 결국은 어깨로 밀고 당겨서 끝내 그 높은 고지에 직사포를 올려 놓았고 직사로 사격하여 적화점들을 날려 버렸다.

기중기라고 무슨 특별한것이겠는가. 어쨌든 블로크를 올려 놓으면 될게 아닌가!

작업이 끝나면 휴게실에 모여 그림을 그려 가며 열들이 나서 토론들을 했다.

남 다 자는 마을에 온밤 불이 켜져 있는곳은 제대군인숙소뿐이었다. 그래서 주변살림집에 살던 술한 학생들이 외등이 밝은 숙소주변에서 공부들도 하고 자기네끼리 놀기도 하면서 함께 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그렇게 몇날 몇밤을 새운 보람이 있어 드디어 목조기중기가 완성되었었다.

지금 본다면 어설픈 기중기였지만 그래도 그때 처음 제 손으로 만든 《기중기》로 블로크를 들어 올렸다....

《우린 체육경기를 해야 되겠는데...》

손자녀석또래의 응석에 전기수는 회상에서 깨어났다.

반장은 아이들에게 눈을 부릅떴다.

《야- 지금이 어느 때라구 체육경기야? 아무리 철이 없기로서니...》

전기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반장동무는 언제부터 반장일을 하오?》

《한주일... 그런데 그건 왜 묻습니까? 그게 아바이와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없지. 그러나 반장동무가 한 말에는 상관이 있소! 그래 지금 아이들이 체육경기를 하면 안되오?》

《아니? 이 아바이가?》

전기수는 주위에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뭘하고 있소? 빨리 흠을 파제껴 놓아야 다음 일을 할게 아니요!》

모두들 다시 일에 달라붙었다.

얼굴이 붉어 진 보수반장에게 인민반장이 전기수를 가리키며 무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제야 보수반장은 전기수쪽을 다시 돌아 보았다. 전기수는 점점 확연히 드러나는 육중한 블로크장만 지켜 보며 투덜거렸다.

《빌어 먹을... 시간만 밀졌군.》  
 드디어 블록장이가 완전히 드러났다.  
 (저놈을 어떻게 들어 낸다.)  
 전기수는 생각을 굴렸다.  
 (지레대로는 조금 제껴 놓을수 있을뿐이구...  
 시간도 끝이 없이 걸릴게다.)  
 옆에서는 강철룡이 한숨만 쉬고 있었다.  
 전기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버럭 소리치  
 듯 물었다.  
 《김우진은 어데 갔나?》  
 누구도 대답이 없자 그는 재차 삼을 쥐고 블로  
 크의 흠을 말짱 긁고 있는 련희에게 물었다.  
 《령감이 어데 갔는지 짐작되는 곳도 없소?》  
 《글쎄요. 저 나무더미를 보면서 혼자 중얼대다  
 가 가버렸는데...》  
 《저 나무도 보고 갔소?》  
 《예, 보고 갔어요.》  
 그러자 전기수는 현관문앞의 계단에 털썩 앉  
 며 말하였다.  
 《젠장, 그 말부터 할것이지. 하여튼 그 사람을  
 기다려야지.》  
 모두들 어리둥절해 그를 보기만 했다.  
 저만치 서 있던 보수반장은 쓰거운 웃음을 지  
 었다.  
 전기수는 벌써 담배를 석대째 붙여 물었다.

#### 4

그때 《어이구, 벌써 다 파제졌구만!》 하는 소  
 리가 들려 왔다.  
 전기수가 돌아 보니 김우진이 땀을 철철 흘리  
 며 활차 2개에 바줄통구리를 겹쳐 메고 오는것이  
 었다. 전기수는 무릎을 치며 일어 섰다.  
 《그러면 그렇겠지. 김우진이 누구라구. 빌어 먹  
 을.》  
 그는 김우진과 함께 원목을 메고 3층으로 올라  
 갔다. 전기수는 활차에 바줄을 물렸다.  
 고층살림집은 기중기몸체요, 원목은 기중기팔  
 이요, 바줄은 기중기의 쇠바줄대신이요, 거기다  
 쌍활차까지 설치하니 정말 기중기가 다된셈이었  
 다.  
 드디어 무거운 블록장이가 허공중에 등실 떠올  
 랐다.  
 녀인들과 아이들은 하나같이 환성을 올렸지만  
 전기수는 화가 난 얼굴로 구멍안을 들여다 보기  
 만 했다.  
 아니나다를까 사고는 전기수가 예견했던대로  
 그 관이 삭아 터진것이였다.  
 아니, 아니다. 전기수도 머리를 흔들었다.  
 그때는 그랬다치구 40여년동안 왜 한번도 생각  
 해 보지 않았던가.

(만족해 있었지. 두상태기 같으니!) 하고 자신  
 에게 화를 냈다.  
 《이 관이 왜 터졌을가?》 하고 묻는 강철룡의  
 말에 전기수는 망치로 낚은 관을 왕 소리가 나게  
 두드렸다.  
 《왜라니? 이 집 배관공사를 할 때 생각나나?  
 내가 관토막을 달라구 찾아 갔을 때 주기만 했어  
 두 일없었을거야. 빌어 먹을.》  
 《가만가만, 뭐라구?》  
 강철룡은 겁 먹은듯 눈을 깜빡거렸다.  
 《이게 그럼 그때 련결한 관이란 말인가?!》  
 전기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였다. 그러자  
 강철룡은 펄쩍 뛰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가 왔다 간 다음  
 내 인차 관토막 하나를 가져다 왔단 말일세.》  
 《?!》  
 전기수는 고개를 기웃거리다가 김우진을 가리  
 켰다.  
 《나야 이 친구가 주어다 놓았던걸루 했지. 바  
 로 이것 말이네.》  
 옆에서 듣고 있던 련희가 하두 답답해서 한마  
 디 했다.  
 《아니 이 령감님들이 하수도를 다 헤집어 놓구  
 40여년전 주철관소리만 하구 있으면 어찌자는거  
 예요?》  
 그 말에 전기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밑을 내  
 려다 보았다.  
 《어떡 한다. 이놈으로는 아무리 땀질을 잘해도  
 얼마 못 가서 또 터질테니.》  
 그러나 강철룡은 여전히 그때 생각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 내가 가져 왔던 관토막은 어데로 갔을가.  
 이상한데...》  
 일이 끝난 다음이면 현장을 돌면서 여기저기  
 널려 있는 자재들을 도로 창고로 끌어 들이는것  
 이 습관으로 되어 있던 강철룡이었던것이다.  
 《이상한데? 그 다음날에 왜 내가 보지 못했을  
 가.》  
 《그 다음날?》  
 김우진의 눈이 빛났다.  
 《지대정리를 할 때 물도랑에 작은 관을 넣고  
 매우는걸 본듯 해. 혹시 그게 그 토막이 아니였  
 을가?》  
 《음?》  
 전기수가 눈을 크게 떴다.  
 《도랑에 관을 묻었다. 나도 생각이 나네.》  
 강철룡은 벌떡 일어 났다.  
 《그게 어디쯤인가?》  
 《아마 저쯤 뿔텐데.》  
 《그래?》  
 강철룡은 김우진이 가리키는 곳에 다짜고짜로

삽을 콧 박았다.

《그게 어떤 판이라구 도랑에 물어.》

전기수도 김우진도 같이 삽날을 박았다.

마침내 삽날에서 빠그덕하는 쇠 굽히는 소리가 났다.

흙을 박박 긁으니 정말 주철관이 나타났다.

《맞네. 이것이야, 이것! 그때 내가 가져 온 판이 분명해!》

강철룡이 너무 기뻐 환성을 질렀다.

《자, 빨리 쳐들기나 하라구!》 하고 전기수가 소리치는 바람에 한걸음 물러 섰다.

전기수는 먼저 한쪽을 들고 움푹 일어 섰다. 강철룡이도 덩벼 치며 다른 한쪽을 쳐들었다. 김우진이 익숙된 솜씨로 철관을 련결하는 동안 전기수는 내내 성난 기색이었다.

너인들이 오구구 모여 들어 김우진의 능숙한 이음작업솜씨를 두고 탄복할 때도 그는 말 한마디 없었다.

《40여년전에 처녀 보리 가는통에 미쳐 못한 일을 오늘에야 다 하는군.》 김우진이 껄껄 웃자 편희는 그만 고개를 돌렸다.

그가 왜 성났는지는 도저히 알수 없었다.

이윽고 김우진이는 너인들에게 소리쳤다.

《자, 이제 물을 아무리 쏟아도 일 없으니 마음대로 쏟으시오!》

파낸 깨여 진 판을 도랑에 대신 놓았다.

그것을 묻으면서 김우진은 말했다.

《40여년만에 이 자리에 함께 서고보니 그때 생각이 절로 나는구만. 밤에도 해불을 켜들고 일했지. 밤낮이 따로 없이 땀을 철철 흘리며 말이야. 그때는 정말 힘든줄 모르는 한창때였어...》

그의 말에 편희도 생각이 깊어 졌다.

전후시기 방직공장처녀들도 자기 교대에는 천을 짜고는 시간을 내어 파괴된 공장을 복구하느라 휴식을 몰랐다. 그러나 누구 하나 힘들다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다 뭉클해 왔다.

김우진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정말 그땐 우린 일밖에 몰랐지. 이 집을 한채 지으면 우리 수령님께서 또 기뻐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에 매일 한채씩 짓구 싶은 심정들이었지.

먹는 타령, 옷타령을 했겠나, 오직 건설뿐이었지. 그러면서도 그속에서 사랑두 하구 가정도 꾸렸구 자기의 꿈도 마음껏 펼쳤지. 과학자두 작가두 다 그속에서 나왔거든. 허허허...》

《아무렴, 얼마나 보람찼다구.》 강철룡의 음성도 감회에 젖었다.

《큰 부재들을 공중에서 척척 조립할 때면 오고 가던 술한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신기해서 올라다 보곤 했지. 그때 저 건너편 방직공장합숙 처녀들이 때를 지어 구경을 오곤 했지.》

《그래서 우리 건설자들이 방직공장처녀들과 짝을 수태 못지 않았나.》

《나두 그때 방직공 저 드살이로친네와 맞다들지 않았소.》 하고 강철룡이 자기 로친네를 가리키며 한마디 하자 그의 처가 한마디 내쏘았다.

《령감 같은 사람하구야 드살이를 피우지 않고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말은 바른대루.》

그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어느새 블로크장을 덮고 그우에 흙을 퍼고 다졌다.

전기수가 허리를 펴며 소리를 쳤다.

《자, 이제 체육경기를 시작해라!-》

이윽고 전기수는 블로크장을 덮은 자리우에 우두 커니 서 있는 사람에게서 눈길이 멎었다. 보수반장이었다. 그의 손과 옷에도 흙이 묻어 있었다.

《반장동무도 손을 씻소.》

보수반장은 앞에 쭈그리고 앉았으나 손을 씻을 대신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바이, 내 오늘 아바이들앞에서 많은걸 배웠수다. 아바이들이 주고 받는 말을 들으니 전 아직 멀었습니다.》

전기수는 담배를 붙여 물었다. 그의 기색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내 말을 노여워 말라구. 지금 나라사정 나라사정 하는데 사실 어렵소. 그러나 그때에 비기겠소. 허나 지금은 기증기가 없소, 자동차가 없소, 혼합기가 없소 타발을 하면서 나라에 손을 내밀기가 일쑤구... 아무것도 없고 재더미만 남은 빈터우에서 하나하나 일으켜 세울 때는 어렵다는 말도 타발도 몰랐는데... 오늘 반장동무한테 한 말은 사실 내가 나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오.》

《아바이, 알겠습니다.》

《말이 났으니 말인데 오늘 난 부끄러웠네. 옛날 살림집에서 산다고 하여 잘 꾸리려 하지 않았네. 오늘 우린 깨여 진 판과 아깝게 묻혀 있던 판을 파낸게 아니라 묵은 때를 씻었지.》

《말이야 바른대루 결불에 내가 정신이 버쩍 들었네.》

강철룡의 말에 전기수가 은근히 옆구리를 찔렀다.

《허, 묘한 장기수라도 풀렸나?》

《장기야 여가시간에 두는게지. 나도 채실했네. 지금 평양을 새 세기의 맛이 나게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모두 떨쳐 나서지 않았나.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우리도 한몫 해야지.》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 전후 재더미우에서 평양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일떠세운 첫 건설자의 긍지가 높뛰고 있는데 우리 함께 본때를 보이세나. 마음 먹기 탓이지.》

어느새 열을 올리는 그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

진 반장의 얼굴에도 웃음이 피어 났다.

《그럼 나도 한몫 끼워야겠네.

밤낮을 뛰어 다녀도 힘든줄을 모르던 그때의 큰 보람을 같이 누려야지 나만 빼놓으면 되겠나?》

김우진이라도 한발 나섰다.

《우리 마음이야 한뜻이니 여불이 있겠나. 우리가 련희동무를 잊을수 없지. 련희동무랑 밤 새워 일하던 그때처럼 다시 한번 힘 써봐야지.》

《글쎄 나두 지금 그 생각인데 우리 로친네가 어떨런지, 허허.》

《원 별걱정을 다하네. 련희동무한테 <해군하사>기질이 어데 갈라구.》

(아무렴, 전후 어려운 시기에 새 거리를 일떠세우던 기백으로 일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인들 못할라구. 하긴 그래야 일하는 맛이 있지.)

김우진이뿐아니라 강철룡이도 얼굴에 웃음을 피웠다.

그들의 흥그러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반장도 은근히 제 마음을 터놓았다.

《사실 일이야 마음 먹기탓이지요. 아바이들처럼 팔을 부르르고 몸을 내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해 내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고비를 겪고 있는 때 저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힘껏 일하겠습니다.》

그러자 강철룡은 그의 손을 꼭 틀어 쥐었다.

《마음만 맞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나. 우리가 거리를 번듯하게 꾸리세.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말이네.》

반장의 마음은 숙연해 졌다.

어느덧 호각소리가 울리었다. 체육경기가 시작되었다.

## 보내는 마음

김승남

나는 듣는다

깊은 막장속에서

두줄기 은빛케도우에 등실 실려

발전소와 조국땅 방방곡곡으로

나의 사랑 석탄이 달려 가는 소리를

지축을 울리는

기관차와 줄 지어

탄전을 떠나는 석탄은

한마디 말도 손저음도 없건만

어찌하여 나는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는가

땀을 흘려 났을 바쳐

한덩이 두덩이 캐낸 석탄

차관 가득 실려 가는 이 순간

애지중지 키운 자식

나라앞에 내세우는 부모마냥

하고 싶은 말도 이 가슴에 가득하다

열과 빛을 주는 석탄아

사람들 가슴마다 기쁨의 불을 지피거라

온실의 유리지붕아래선 봄바람되고

아기들 요람에선

엄마의 따뜻한 입김이 되거라

너의 고향-막장이 그림거든

발전소화실에서 번개로 솟구쳐

하늘길에 늘어 선 송전선 타고

채탄장에 달려 와 내 품에 안기거라

그러면 너와 나 맺은 정

새로운 석탄산을 쌓으리라

아 석탄아 내 사랑아

너를 기다리는 전선으로 어서 떠나거라

저기 샷갯봉마루에

선군의 기폭 같은 노을이 붉다

너도 그 빛을 받아 벌써 붉게 타느냐

탄부가 사는 이 막장은

석탄아 너를 뿜어 울리는 샘터다

어서 떠나거라 내 사랑아

너를 보내는 탄부의 마음은

맑아 오는 이 아침처럼

한없이 맑고 푸르다

네 할 일이 많은것처럼

내 할일 또한 많고 많기에

## 통일과 녀인

럼형미

## 1

통일이여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너를 두고  
고운 꽃 골라서 꺾듯  
내 류다른 제목을 고르려고는  
생각지 않는다

허나 어이하여 나는  
꽃다운 녀성의 이름을  
통일이란 그 말과 나란히 놓는것인가  
어이하여 나는 이 땅의 평범한 녀인으로  
이토록 통일을 안고 속 태우는것인가

나는 30대의 젊은 녀인  
전쟁의 화악내도 말아 보지 못했고  
60년대 푸른 하늘아래 태어나  
피도 바쳐 보지 못했다  
땀도 많이 흘려 보지 못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응석둥이 손녀로  
아버지 어머니의 지성 높은 사랑에 받들려  
나의 눈동자는 언제나 꿈하늘이었고  
내 모습은 언제나 산나리꽃마냥 싱싱했나니

아, 언제부터 나도 마음속아픔을 알게 되었던가  
내 고향 북대봉의 온천물가에서  
어머니 나를 안아 머리 감겨 주시던 그날  
-너의 외가집에도 이렇게 좋은 물이 있단다  
감나무도 있고 대추도 있고...

외가집! 외가집이란 얼마나 좋은 말인가  
대번에 마음 쏠리는 그곳으로  
금시 달려 갈듯 일어 서는 소녀를  
어머니는 말없이 더 꼭 품어 안으셨다  
먼 남쪽하늘 이윽도록 바라보며...

오, 이 세상 소원하는것이면 무엇이냐 다  
나의것이 될수 있다고 믿어 온 꿈하늘  
그 꿈하늘이 아프게도 깨어 져거니  
나를 제일로 사랑하는 어머니도 줄수 없었던  
분계선너머 내 땅 내 하늘이여

책상우의 지리교과서 벽마다 걸린 지도에도  
내 나라 조선의 모습은 하나이건만  
너무도 정답고 귀중한것이어서  
눈 감고도 그릴수 있는 목숨 같은 하나이건만  
어이하여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반쪽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한가위 밝은 달 뜨는 밤이면  
나의 어머니는 왜 남 몰래 울어야 하는가

통일이 너 언제... 언제 오려나...  
장마비마냥 하염 없는 어머니의 그 눈물  
가닿을 곳은 과연 어디란 말인가

부모의 피형이 내 피형이듯이  
어머니의 아픔은 곧 딸자식의 아픔  
어머니의 몸을 형크는 그 찌르르한 전류  
나의 온몸을 몸서리로 떨게 하고  
내 가슴에 피의 응어리를 못 박았거니

선조의 뚫이 줍줍으로 따스하고  
내 어머니의 귀여운 소녀시절이 숨배 있는 그  
땅은  
내 나서 자란 북의 땅과 한 강토가 아니냐  
아기 눈동자에서 아빠 엄마를 갈라 낼수 없듯이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을  
내 심장속에서 남북으로 가르지는 못한다

오, 일찌기 고향과 분계선을 알며  
일찌기 아픔도 눈물도 알게 된 소녀  
그 소녀가 어느덧 서른이 넘어  
일곱살 사내애를 거느린  
또 다른 어머니가 되었거니

아파라, 모질게도 아파라  
갓 깨난 병아리마냥 아무것도 모르는  
내 사랑 귀염둥이에게조차  
갈라 진 조국을 알게 하기에는  
분렬과 인간과 고통을  
그 고운 심장에 비수로 새겨 주기에는

그래서인가  
통일의 작은 희망이나마 보도될 때면  
화닥거리는 심장 달랠수 없어  
전차에서 뛰어 내려 눈바람속에 걸어 가고  
찬물에 와락와락 빨래를 행구어도  
도무지 식힐수 없는 통일의 흥분

그 숨 가쁜 열기로 일을 하고 또 하고  
한밤중에도 통일거리건설장으로 달음치던 내  
마음  
한층 두층 그 거리 다 솟으면  
통일이 금방 이사 올것 같아  
밤 새우며 지원물자 마련하던  
그런 날은 얼마였던가

오, 하기에 그날에  
기쁨에 울지 않은 녀인은 이 나라에 없었으리  
력사적인 6. 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던 그날  
가장 아름다운 조선옷을 차려 입고  
감사의 큰절 드리지 않은 녀인은 없었으리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살고 죽는  
이 나라 녀성들의 모성애였기에

한번 울어 본 그 기쁨을 잊을수 없어  
사무치게 사무치게 더더욱 그리워  
나섰다 유순한 검은 눈에 서리발 내뿜으며  
엄숙한 력사앞에 피 젖은 꽃잎들을 휘뿌리며  
나섰다 통일이며 네앞에  
조선의 남아들과 나란히  
조선의 녀인들도 목숨 걸고 나섰다

## 2

통일이여  
활화산 같은 너의 폭풍  
섬없이 때없이  
가슴속에 격노하건만

아는듯 모르는듯  
집집의 벽시계  
너무도 태연스레 가고 있구나

이른 새벽 부엌의 불을 켜며  
정성스레 밥을 짓는 주부들  
그 재빠른 작은 손안에  
통일이여 너는 없는지

구김새없이 매달리는 아기의 뺨에  
고운 입술 비비는 저 젊은 엄마  
다 자란 아들의 편편한 잔등을  
놀라움속에 만져 보는 반백의 어머니  
사나이들 감히 상상도 못해 보는 저 행복속에  
통일이여 너는 정녕 없는지

식료상점에서 수도가에서 울리는  
녀인들의 활기로운 웃음소리  
집안일 걸어 안고 바쁜  
할머니의 애정어린 잔소리  
탁아소로 재우치는 애기엄마의 부푼 앞가슴  
그속에 통일이여 너는 진정 없느냐

무엇을 지니고 있어 이 나라 녀인들은  
이렇듯 하늘땅에 밝은 미소 뿌리며  
자그마한 몸매에 늘 수고를 걸머지고  
타고 난 천성인듯 소녀시절부터  
그렇듯 열렬하고 성실하던가

정녕 그 가슴들엔 무엇이 타번지고 있어  
그 무엇이 웅달샘처럼 솟구쳐 올라  
그 품에 기대면 배 고파도 잠들고  
열 뜨던 병마도 금시 가라앉던가  
어이하여 강철의 대장부들도  
그 품에선 어린애마냥 공손해 지던가

그것은 사랑  
바치지 않고서는 건딜수 없는  
녀인들의 온몸에 타는 불길이며라  
너무도 사심 없고 헌신적인것이기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바 없는  
승고하고 열렬한 신비의 힘

그 신비로운 온몸의 자양으로  
달콤한 젖을 만들고  
소용돌이치는 그 애무를 함뿍 쏟아  
끝끝한 자식들을 나무랄데 없이  
나라의 기둥으로 키워 내는것  
이것은 너인의 제일 큰 소망

오, 이 고귀한 소원도  
분별된 강토에서는 이룰수 없으랴  
세상위에 우리밖에 없는 통일이란 말  
철 없는 어린 뇌리에 심어 줘야 하고  
수학려행 떠나는 희망의 책가방에  
언제까지 끌어 진 철길 원한의 분계선을 넣어  
줘야 하는가

바치는 모성에 절반은 비어  
조국의 온넋을 담아 주지 못하는 어머니를  
이 땅의 녀성이라 이름할수 있더냐  
조국땅 절반은 밟아 보지 못한 절름발이로  
어언 50대의 자식들을 키웠고 또 키우고 있는  
이 나라 녀인들의 애 끓는 모성애여

흐르는 세월속에  
산과 강은 갈라 질수 있어도  
혈육의 피는 달라 지지 않더라  
하늘이며 땅이며 보지 않았더냐  
북측응원단으로 부산에 갔던 우리의 딸들  
남녘의 동포들이 어떻게 맞았는가를

하늘높이 차오르는 축구공보다  
우리 처녀들에게 날으는 환성과 함성 더  
열렬했거니  
그들의 얼굴이 고와서더냐  
몸매가 고와서더냐  
아니여라 아니, 그것은 아무리 봐도 틀림 없는  
제 누이, 제 동생, 제 딸이기때문  
눈을 비비고 봐도 짜늘한 조각상이 아니라  
한가슴에 비벼 안고 뜨거운 눈물에 얼룩지고  
싶은  
제 혈육 제 피줄이기때문

오, 기막혀라 기막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치마주름인양 끝없이 잡혀 지는  
고통으로 짓물리는 심장의 주름살이며  
한혈육 갈라 저서 더는 못 살아  
죽음보다 아픈 삶 더는 못 살아

우리 정녕 아들과 통일  
통일과 딸을 함께 낳지 못한다면  
자식은 후손만대 낳을수 있어도  
통일은 끝끝내 이룰수 없다면  
어이하라  
불행의 후대를 남기는 이 땅의 녀인들

어이 머리에 푸른 하늘 이고 살라

오, 반세기나마 굴고 군 눈덩이마냥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서  
더는 더는 커질 길 없는 피덩이  
통일이여 통일이여  
참을수 없이 심장을 떠박지르는 너의 고고성  
온 7천만이 가슴을 움켜 쥐고 기다리고 있구나

### 3

통일이여  
너는 마침내 태어나리  
빨간 주먹 마구 흔들며  
자랑찬 첫 울음 터치는 아기처럼

그날에는 그날에는 통일이여  
너를 부둥키고 웃기보다  
울리라 실컷 울리라  
서리서리 앙킨 원한의 해해년년을  
눈물로 사뭇쳐 떠나보내리라

네가 태어나는 그날에는  
통일이란 단어로 숨 막히던  
우리 생활의 공기 산산이 흩어 지려니  
혈육의 정에 주린 자식들에게  
한쪽 젖가슴만 물리던 어머니의 눈물도 없어  
지리라  
풍요한 행복으로 불어 난 가슴에  
남북의 단 젖 가득차리라

이 좋은 통일이 저 하늘에 있었더라면  
칠칠한 머리태 모두 뺏아 늘어  
통일을 벌써 끌어 왔을것을...  
이 기쁜 통일이 바다에 있었더라면  
이 세상 바가지 다 깨면서라도  
통일을 벌써 퍼왔을것을...

오, 그날의 눈물범벅을  
아들들이여 닥치지 마시라  
실성한듯 실성한듯 운다고  
너인들을 나무라지 마시라  
강인히 씹으며 참아 온 반세기가  
기쁨의 눈석이로 녹아 내리는줄  
남정들이여 묵묵히 리해하시라

너성은 연약하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예로부터 전해 오지 않았더니  
사나이의 두툼한 가슴에 안겨  
살뜰한 애무와 속삭임으로  
생을 더웁히는 귀중한 꽃이라고

정녕 그렇게 웃어 보리라  
통일의 그날에는  
웃음 많은 어머니, 안해로

애무의 포옹에 온몸을 맡기리라  
원한의 콩크리트장벽 쏘박쏘박 깨여  
한강의 빨래돌로 널어 놓으리라

통일을 위해 철쇄에 묶였던  
옥 같은 몸들에  
온 삼천리의 꽃을 따다 옷을 해입히리라  
백두-한나의 산삼꽃 수 놓은 통일의 이불  
애국투사들의 등어리에 정히 퍼드리리라

그날에는 꿈 같은 그날에는  
이 나라 늙은이들의 유언도 달라 지려니  
통일을 못 보고 갈것 같았던 그 서글픔  
환희의 눈물로 젖어 들려니  
-통일을 보았으니 원이 없도다...  
오, 이 나라 머느리 딸과 손녀들  
비로소 큰 숨 모아 쉬리라

통일앞에 사사로움 미루었던 이 나라 청춘들  
사랑의 창문 활짝 열어 젖히고  
축복의 꽃보라 앞 다투어 맞으리라  
그 어느 거리 어느 골목에서나  
둥기둥기 눈물 출판 벌어 지리라

오, 가슴 벅찬 통일의 그날  
창공의 고무풍선마냥  
온몸 들뜨고 온 정신 흩어 진대도  
잊지 않으리 누구나 잊지 않으리  
자기결에 어머니가 계시는가를  
통일의 꽃다발 받으셔야 할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는가를

그 저주로운 미국놈들때문에  
찢어 지고 갈라 진 이 땅, 이 하늘아래서  
누구보다 한숨과 눈물 많이 뿌렸고  
애 끓는 사랑을 비벼 온 심장들  
자식을 위해 누구보다 용감하고  
목숨도 기꺼움 없었던 고결한 인간들

이 땅의 성스러운 너인들을 위하여  
누구나 통일축배 기쁘게 들리라  
귀중한 첫잔을 어머니와 안해를 위해 부으리라  
그러면 너인들이여  
우리는 그 첫잔을 누구를 위해 비울것인가  
가장 값 높은 답례로 그 무엇을 말할것인가

누구보다 뜨거운 모성애를 지녔기에  
누구보다 평화와 행복을 사랑하며  
그토록 열망하고 념원해 온 통일  
꿈에도 소원이던 통일을 이루어 주신  
천출위인 **김정일**장군님을 위하여  
너인들의 첫 축배 높이 높이 들자  
하나로 기쁨진 땅위에!  
하나로 푸르른 하늘아래!



# 안해와 부엌

리진욱

너성들의 명절이라  
이 아침만은 안해여  
그대에게 따끈한 밥 지어 주고 싶어  
부엌에 들어 서니

어느새 먼저 차지했구려  
너인의 한생이 흘러 가는 이 부엌에  
정겹게 웃으며  
마주 보는 그 눈빛에 다 어려 있구려

시련이 고래치던 고난의 나날  
우리 집 부엌으로 찬바람 불어 올 때  
두어깨가 무거웠어도  
그대의 웃음이 곁에 있어  
나의 일터가 든든하였거니

정다운 안해여

독자편지

그대의 살뜰한 손길어린 정갈한 이 부엌  
너인의 의지에 떠받들린 것이어서  
볼수록 더 정이 드는가 보오

이 부엌으로 또다시  
엄혹한 찬바람이 휩쓸어 든대도  
이제는 끄떡 없으리  
그대의 웃음으로 덥혀 진 우리 집 부엌에  
작은 고드름도 맺히지 못하리라

아, 오늘은 너성들의 명절  
안해여 그대의 기쁨 더해 주고 싶어  
선뜻 부엌에 들어 섰건만  
오히려 나에게 웃음을 주는구려  
선군의 기치 따라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떨쳐 갈  
불 타는 맹세를 굳혀 주는구려

## 이런 소설을 더 많이 실어 주십시오

저는 《조선문학》잡지를 애독하는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잡지에 실린 작품들을 빠짐없이 읽곤 합니다.

최근에 나온 많은 작품들중에서 단편소설 《까툴골사람》(안동춘작)은 특별히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을 넘기고 눈을 감으니 까툴골의 전경이 눈앞에 선히 떠오르고 이 고장사람들의 후더운 인심이 가슴속에 스며 듭니다. 축적도가 매우 세밀한 지도에서도 찾아 보기 힘든 칠보산의 어느 한 계곡 외진 산간 마을이 풍기는 아늑한 정서에 취하면서 소박하고 의리 깊고 대 바른 이 고장사람들을 한번 만나고 싶은 충동까지 느껴 집니다. 그러나 이 외진 화전마을-까툴골이 인상깊이 안겨 오는 것은 자연의 풍치나 이 고장사람들의 인식에도 있겠지만 그것이 소설의 주인공 통일애국투사의 운명과 뿔수 없이 려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 집니다.

비전향장기수들의 신념과 의지의 근본원천에 대한 심오한 사상을 까툴골을 생활무대로 하여 생동하게 보여 준 단편소설 《까툴골사람》. 소설은 철학적인 종자를 심어 놓고 성격론리, 생활론리를 따라 가면서 주인공의 일생사에서 참된 인간

사랑을 처음으로 체험하는 과정으로부터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인간 사랑의 진리를 깨닫고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생을 마치게 되기까지의 생활을 세태적이면서도 진실한 형상으로 펼쳐고 있습니다.

소설은 까툴골사람들의 사랑을 단순히 세태적인것에 멈추어 놓지 않고 결정적계기를 통해 사람의 형상적의미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한규가 자기 군에 오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어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마을의 몇몇 당원들과 함께 찾아가 만나뵈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는 장면은 실로 많은 생각을 불러 줍니다.

비록 30분도 안되는 시간이었지만 엄한규는 김정숙어머님으로부터 혁명투쟁의 고귀한 진리를 터득하게 되며 평생 지침으로 삼아야 할 위대한 동지관, 위대한 사랑의 진리를 받아안게 됩니다. 또한 엄한규의 다리에 굵힌 상처를 보시고 약을 발라 주시는 어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목 메입니다.

세태적이고 범속한 인정과 사랑에 비할수 없는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받아 안은 30분!

주인공 한규에게 있어서 그

30분은 그가 한생 그 사랑을 지켜 자기의 신념과 의지를 지켜 싸우게 한 정신적기둥이었습니다.

백두산위인들이 안겨준 사랑, 자주적인간의 참된 삶의 가치를 규정해 주고 믿어 주는 그 사랑이 있어 주인공 비전향장기수는 그토록 강해 질수 있었습니다.

작가의 의도를 깊숙이 몰아두고 형상으로 펼쳐 보인 이 소설은 이렇듯 주인공의 성격발전의 결정적계기를 통해 평범한 한 인간이 어떻게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될수 있었는가를 훌륭히 보여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하여 작품이 나온지 근 1년이 되어 오지만 아직도 작품의 세계에 젖어 듭니다. 작품은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공화복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기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힘 있게 고무추동하는데 이바지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단편소설 《까툴골사람》과 같은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매력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편집해 주기를 바라며 《조선문학》잡지를 깊은 관심과 기대속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리성욱

## 남조선의 진보적시인 김남주와 그의 통일시

한중모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갈라 진 때부터 남조선 인민들은 통일되고 룡성변영하는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반미자주화, 사회의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왔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진보적문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것은 문학의 근본사명이다.》**

남조선에서는 일찍부터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진보적문학이 반동적부르조야문학과 날카로운 대립투쟁속에서 발전하면서 자주성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이바지하여 왔다.

주체49(1960)년 4월인민봉기를 계기로 하여 자기 모습을 뚜렷이 드러내고 성장발전한 《현실참여문학》은 남조선에서의 진보적문학의 발전정형을 보여 주는 하나의 실례로 된다. 남조선에서는 민중민족문학이 출현하여 그 범위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진보적문학이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 섰다.

남조선에서 1970년대에 들어 와서 선행한 진보적문학의 전통을 이어 점차 형성발전하기 시작한 민중민족문학은 1980년대에 이르러 《삼민리념》에 기초함으로써 그 발전의 새로운 고비에 올라 서게 되었다. 1980년대에 남조선에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보급되는 가운데 민족통일, 민중해방, 민주쟁취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삼민리념》이 정립되어 민중민족문화운동단체들의 지도리념으로, 투쟁강령으로 되었다. 남조선의 민중민족문학은 《삼민리념》을 사상리념적기초로, 투쟁구호로 삼음으로 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식민지통치를 끝장내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민주주의를 보장할데 대한 주체사상적지향을 예술적으로 더욱 뚜렷이 밝혀 내게 되었다.

김남주는 남조선민중민족문학의 이러한 사상에 술적특징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낸 우수한 시인의 한사람이다. 김남주의 시들은 단순하고 직설적인 시어구사로 주체사상을 명백히 밝혀 내고 사회정치적성격이 강하며 사회비판적기백이 예리한것으로 하여 남조선의 민중민족문학에서 뛰어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김남주의 시문학의 이러한 특성은 그의 미학적견해와 밀접히 련관되어 있었다.

나는 전문적으로 시를 쓰자고 덤비는 《직업시인》은 아니오. 출발부터가 그러했소. 나에게 있어서 창작활동은 내 사회적활동의 한 부산물의 아무것도 아니었소. 다시 말해서 내가 바라는 리상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분으로 생긴 부산물의 아무것도, 아니었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나의 시는 혁명에 종속하는것이요. 시가 먼저 있고 혁명이 있는게 아니고 혁명적실천이 먼저 있고 시는 그 자연스러운 산물인것이요. 나에게 있어서 시는 혁명의 무기일뿐이요. 적어도 내가 사는 이 사회가 계급사회인 한에서는.

그래서 혁명적싸움없이 나는 한줄의 시도 쓸수가 없었소. 쓰고 싶지도 않았소. 싸움할 상대가 없어 지면, 민족을 억압하고 민중을 착취하는 무리들이 없어 지면 나의 시도 썩여 지지 않을것이요.

이것은 잡지 《창작과 비평》 주체78(1989)년 봄호에 게재된 김남주의 《옥중편지》(1985. 10. 18)의 한 토막이다. 이 구절은 시에 대한 김남주의 견해와 관점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김남주에게 있어서 시는 《혁명의 무기》, 《현실의 변혁을 위한 무기》이며 시인은 시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회개조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전사와의 다른것이 아니었다.

김남주의 대부분의 시들은 감옥안에서 씌여 진 것이었다. 8. 15해방직후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태어난 김남주는 학생시절부터 식민지군사파썸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하였으며 비밀지하출판물제작이 발각되어 체포구금된 일도 있었다.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사회정치활동을 계속하면서 민족문화연구에 주력하던 김남주는 1970년대 말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사건에 관련되어 다시 체포되었으며 1980년대 전 기간 옥중고초를 겪다가 출옥한 직후인 1990년대 초에 불치의 병으로 사망하였다.

김남주는 잡지 《창작과 비평》 주체63(1974)년 여름호에 7편의 시를 발표한 이후 일생동안 많은 시들을 창작발표하였는데 그중 대다수는 옥중에서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것이였다. 김남주가 감옥안에서 못을 가지고 우유곽에 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써도 그의 시창작이 얼마나 간고한 투쟁과정이었는가를 짐작할수 있다.

김남주에게는 다섯권의 시집이 있는데 그중 네권은 1980년대에 출판되었다. 주체73(1984)년에 출판된 김남주의 첫 시집 《진혼가》에는 그의 초

기시들이 묶여 저 있다. 주체76(1987)년에 출판된 그의 두번째 시집 《나의 칼 나의 피》와 주체77(1988)년에 출판된 세번째 시집 《조국은 하나다》에는 시인이 《남민전》 사건으로 옥중생활을 할 때에 창작한 시들이 실려 있다. 특히 시집 《조국은 하나다》에는 그때까지 창작된 시의 대부분인 200여편의 시들이 수록되었다. 주체78(1989)년에 출판된 네번째 시집 《사랑의 무기》에는 편찬자가 선택한 김남주의 대표작인 시작품 57편 외에 그무렵에 써여진 14편의 시들이 들어 있다.

김남주의 다섯번째 시집 《사상의 거처》는 주체81(1992)년에 출판되었는데 여기에는 출옥후 시인의 생활감정이 노래되어 있어 정치적예리성과 전투적기백이 그전보다 약화된것을 볼수 있다.

김남주의 시들 특히 감옥안에서 써여진 그의 시들은 시를 사회변혁의 무기로 삼고 남조선의 민족민주운동에 헌신한 시인의 개성적면모와 그의 시문학의 사상예술적특성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김남주의 시문학의 밑바탕에 관통되어 있는 사회미학적리상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과 착취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새 사회의 건설이다. 김남주의 시에 특징적인 남조선사회제도의 모순과 불합리성에 대한 폭로비판,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군사파썸도당과 근로자들을 비인간적으로 착취하는 자본가계급에 대한 단죄규탄, 악착한 사회현실에 대한 항거정신과 변혁의지 등은 다 압박 없고 착취 없는 새 사회에 대한 리상과 연결되어 있다.

김남주의 시문학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해방과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희망찬 새 사회건설에 대한 리상은 반제민족해방, 조국통일에 대한 지향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그의 시들을 보면 남조선에서 자본가계급과 군사파썸 《정권》을 타도하고 근로인민들의 사회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매관자본을 길러내고 피뢰도당을 조종하며 비호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남조선인민들을 식민지예속에서 해방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는것이 기본적인 사상적지향으로 되어 있다.

조국통일은 김남주의 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분야의 하나를 이루고 있으며 통일주제시는 김남주의 기동으로 되고 있다. 김남주의 대표적인 시집의 제목이 《조국은 하나다》로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시문학의 이와 같은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시집 《조국은 하나다》를 세상에 내놓은 출판사에서는 편집후기에서 《조국통일의 불바람이 백두에서 한나까지 가렬하게 휘몰아 치고 있는 현하 민족사의 전환점에서 반제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의 열망을 누구보다도 정열적으로, 가장 격정적으로 노래하고 싸우는 김남주시인의 푸담하고

실다운 <열창>을 력사앞에 제공하는 기쁨 실로 벅칩니다.》라고 썼으며 최유창은 평론 《민족해방문학의 성과와 과제》[주체81(1992)년]에서 《<조국은 하나다>는 1980년대 김남주시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드러내준다. 이 시의 기본적인 정조는 생명의 불길이 있는 마지막까지 조국이 하나임을 웨치려는 시인의 열정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80년대 민족문학을 선도한 김남주시의 힘은 이와 같은 혁명적열정과 현실인식의 단순함에서 나온다.》라고 하였다.

김남주의 시문학에서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사상과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해명은 그 주제사상적기조를 이루고 있다. 김남주의 시문학에서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사상은 남조선인민들을 미제의 식민지예속에서 해방할뿐아니라 분별의 장벽을 마스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까지 나아가야 하며 조국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을 힘차게 벌리는것이 선차적이며 필수적인 문제로 나선다는것으로 밝혀 졌다.

김남주는 한 《옥중편지》에서 《동지여! 만일 반제민족해방투쟁을 노래하지 않고 피압박대중을 대변하여 그들의 입이 되어 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말하는 민중민족문학이란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하였는데 편지의 이 구절은 그가 반제민족해방투쟁을 형상화하고 민족의 운명문제를 취급하는것을 민중민족문학의 기본과제로 간주하고 있었다는것을 보여 준다.

지금 이 나라에는

보수와 진보가 있는게 아니여요

좌익과 우익이 있는게 아니여요

매국노와 애국자가 있을뿐이여요

그 중간은 없는거여요, 없는거여요 어머니

시 《어머님께》의 이 마지막구는 김남주가 남조선사회의 모순과 대립을 조국과 민족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기본척도로 하여 인식하고 시적으로 재현하고 있다는것을 밝혀 주고 있다.

김남주의 시에서 애국자와 매국노가 갈라 지는것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 식민지통치에 대하여 어떤 립장과 태도를 취하는가, 민족분별의 종식과 조국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 하는데 있다.

김남주의 시의 애국애족적성격과 그 서정적주인공의 애국자로서의 사상정신적특질은 시 《고개 들어 조국의 하늘아래》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우방》의 이름으로건

평화를 위한 《유엔군》의 이름으로건

《보호》다 무어다 《협력》이다 무어다

무어다 무어다 흰수작 개수작 같은 이름으로건

이 땅에 허리 꺾인 내 누이의 땅에  
 이방인의 군대가 들어 와 있는 한  
 들어 와 총을 메고 이 도시 저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한  
 나는 아니다 고개 들어 조국의 하늘아래  
 직립보행의 독립이 아니다

시는 이처럼 《우방》이요, 《유엔군》이요 하  
 는 허울 좋은 이름아래 《보호》나 《협력》이니  
 하는 감언리설을 늘어 놓으면서 남조선을 군사적  
 으로 강점하고 경제적으로 예측시킨 미제국주의  
 자들의 교활하고 음흉한 침략행위를 신랄히 폭로  
 비판하면서 국토가 갈라지고 외국군대가 주인행  
 세를 하는 남조선을 《독립국가》라고 떠드는 피  
 퇴도당-매국노들의 설교가 터무니 없는 기만과  
 허위라는것을 여지없이 까밝히었다.

벗이어 너와 나 치욕으로 살지 말자  
 식민지종속국 배 부른 노예로 살기를 거부하고  
 차라리 주린 창자 자유로 채우며  
 직립보행 독립의 나라로 일어 서자

칼에 얼굴이 붉히고  
 도끼에 온몸 별집투성이인 그러고도  
 삭풍에 의젓한 우리 나라 상수리나무여

시의 이 마지막부분은 식민지노예의 치욕을 가  
 시고 자주독립국가의 인민으로서 존엄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하여 그 어떤 고난과 희생도 무릅쓰고  
 반제민족해방투쟁에 한몸 바칠 서정적주인공의  
 확고한 립장과 견결한 의지를 예술적으로 확인하  
 고 있다.

시 《쓰다 만 시》와 《다 쓴 시》는 남조선에  
 서 미제침략군을 몰아 내고 식민지통치를 끝장내  
 며 갈라 진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사  
 상적지향을 뚜렷이 표현하였다.

시 《쓰다 만 시》가 간략하고 압축된 시적표현  
 으로 미제침략군의 강점이 민족분열의 근본요인  
 으로 남조선을 예측자본가, 반동관료배들, 부자들  
 의 배를 든든하게 만드는 식민지사회로 되게 한  
 기본조건으로 되고 있다는것을 밝히었다면 시  
 《다 쓴 시》는 미군을 몰아 내야 조국과 민족의  
 분열이 끝장나며 나라가 통일될 때 부자들의 배  
 를 든든하게 해준 식민지착취사회도 종말을 고하  
 게 된다는것을 함축되고 집약된 시어속에 밝히  
 내었다.

몇줄 안되는 이 시들에서는 단순명료하고 직설  
 적이며 평이한 시어와 시적표현을 통하여 주제사  
 상을 명확하게 밝혀 내는 김남주의 특기가 유감  
 없이 발휘되었으며 구성에서 대조법을 특색 있게  
 구사하고 적에 대한 폭로비판에서 신랄하고 예리  
 한 풍자적수법을 재치 있게 활용하는 그의 솜씨

도 잘 나타나고 있다.

시 《조국은 하나다》는 조국통일을 주제로 한  
 김남주의 시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단순명료한  
 시어와 시적표현을 통하여 사상감정을 직설적으  
 로 토로하는 그의 특유한 형상방법으로 통일에  
 대한 불 같은 열망과 굳센 의지를 격조높이 노래  
 하고 있다.

《조국은 하나다》  
 이것이 나의 슬로간이다  
 꿈속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생시에  
 남 모르게가 아니라 이제는 공공연하게  
 《조국은 하나다》  
 권력의 눈앞에서  
 양키점령군의 총구앞에서  
 자본가 개들의 이발앞에서  
 《조국은 하나다》  
 이것이 나의 슬로간이다

《조국은 하나다》, 이것은 서정적주인공-《나》  
 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힘껏 웨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싸우려는 신념의 구호이다. 그러  
 기에 《나》는 미제침략군의 총구도 파썸장패무리  
 들의 개이발도 두려워 함이 없이 남조선의 방방  
 곡곡 그 어디에나 발길이 미치는 모든 곳에 그  
 구호를 쓰고 또 쓸 결의에 충만되어 있으며 아무  
 리 사나운 폭력도 지울수 없게 자기의 가슴에 붉  
 은 마음의 실로 수놓으리라고 다짐하는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걸리라  
 지상에 기대를 세워 하늘에 내걸리라  
 나의 슬로간 《조국은 하나다》를  
 키가 장대 같다는 양키의 손가락끝도  
 언제고 끝내는 부자들의 편이었다는 신의 입김  
 도  
 감히 범접을 못하는 하늘높이에  
 최후의 기발처럼 내걸리라  
 자유를 사랑하고 민족의 해방을 꿈 꾸는  
 식민지 모든 인민이 우러러 볼수 있도록  
 겨레의 슬로간 《조국은 하나다》를!

시의 이 마지막부분은 미제침략자들의 마수도 지  
 주, 자본가계급의 얼림수도 감히 범접할수 없도  
 록 조국통일의 구호를 하늘높이 내뿜으로써 반제  
 민족해방투쟁의 역사적과업을 수행하는 모범을  
 보여 주려는 서정적주인공의 확고한 의지를 시적  
 으로 명확히 천명하고 있다. 서정적주인공이 힘  
 차게 웨치는 《조국은 하나다》라는 구호에는 조  
 국통일에 대한 남녘겨레들의 열렬한 념원과 드팀  
 없는 의지가 예술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시 《조국》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끝장내고  
 남녘겨레들을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벗어 나게

하며 분렬의 장벽을 마스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반제민족해방투쟁에 한몸 바칠 결의와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땅이  
남의 나라 군대의 발아래 있다면  
어머니 차라리 나는 그밑에 깔려  
밟힐수록 팔팔하게 일어 나는 보리밭이고 싶어요  
날벼락 대포알에도 그 모가지 꺾이지 않아  
남북으로 휘파람 날리는 버들피리고 싶어요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끝장내고 식민지예속에서 벗어 나 자주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싸움은 천만 사람들이 일떠서야 하는 거족적인 투쟁이며 여기서 선구자의 역할은 자못 중요하다. 그러기에 시의 서정적주인공은

우리가 지켜야 할 땅이  
흰둥이군대의 발아래 있고  
우리가 걸어야 할길이  
검둥이병사의 발아래 있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랑이  
딸라의 중압아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불려야 할 자유의 노래가  
놈들의 총검아래서 숨 쉬는 그림자라면  
어머니 참말이제 참말이제 나는  
한사람의 죽음이고 싶어요  
천사람 만사람 싸움 일으키는

라고 노래하면서 반제민족해방투쟁,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 한몸 바칠 각오를 다짐하는 것이다.

시 《싸움》에서는 결사적인 투쟁을 통하여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견결한 투지를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죽음에 값 하는 싸움 하나 있기에  
피 흘리는 싸움에 값 하는 죽음 하나 있기에  
형제여  
이 땅에서 나 벅찬 행복입니다 눈물입니다  
삼월에서 사월로 사월에서 오월로  
하나됨의 피줄로  
내달리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 나 아우성치는  
크낙한 싸움 하나 있기에  
죽음우에 죽음 하나 쌓아 올려 꽃봉오리로 살  
아 있기에  
내 가슴은 숨 가쁜 아름다움입니다 경이입니다  
이 싸움 이어 받아 한나에서 백두까지 세월의  
강이여  
어절씨구 좋아라 지화자 좋아라

삼월의 아기 풍덩풍덩 사월의 내가로 자라  
오월의 나무로 썩썩합니다 당당합니다  
하늘향해 두팔벌린 잣나무, 삼수리나무, 소나무,  
벗나무  
우리 나라 산에 들에 무궁무궁 금수강산입니다

여기서 《삼월에서 사월로 사월에서 오월로/ 하나됨의 피줄로/ 내달리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 나 아우성치는/ 크낙한 싸움 하나 있기에》라고 노래한것은 주체36(1947)년 3월 남조선각지에서 미제의 군사적강점과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요구하여 일떠선 노동자들의 총 파업으로부터 주체49(1960)년 4월 미제침략자들과 리승만피괴도당을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 새 정치와 새 생활을 요구하여 펼쳐 나신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대중적인 반미구국항쟁을 거쳐 주체69(1980)년 5월 미제의 앞잡이인 군사파쇼도당의 폭압정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여 결기한 광주인민들의 영웅적항쟁에 이르기까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이 줄기차게 발전해 온 과정을 시적으로 표현한것이다.

행복은 투쟁이라는 말도 있거니와 투쟁이 얼마나 참다운 행복으로 되는가 하는것은 무슨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수 있다.

미제와 피괴도당의 식민지파썸통치밑에 인민들이 분렬의 고통과 불행을 당하고 있는 남조선의 사회현실에서 반제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는것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것이다. 그것은 반제민족해방투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곧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인민들의 참삶을 꽃 피우며 조국의 무궁한 룡성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기때문이다.

시의 서정적주인공은 《한나에서 백두까지》이르는 《우리 나라 산에 들에 무궁무궁 금수강산》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벅찬 행복》으로 여기기에 4월인민봉기와 5월광주인민항쟁의 투쟁정신을 이어 조국통일을 위한 싸움에 한몸 바쳐 나서며 그 투쟁에서 죽는것을 더 큰 싸움을 낳는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격정에 넘쳐 위치는것이다.

시 《꿈길에서》는 꿈이야기를 통하여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투쟁을 전개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열렬한 념원과 지향을 노래한 작품이다. 꿈이야기로 된 담시형식의 이 작품은 시어구사에서 예돌지 않고 단도직입적인 직설적표현으로 사물현상의 본질을 발가내고 주제사상을 밝히는 김남주특유의 형상방법과 다른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어제 밤 꿈길에서 나는 만났네  
 통일로 가는 꿈길에서 거대한  
 거대한 바위돌을 만났네 하나는  
 코가 엄청 큰것이 양키바위 같았고  
 하나는 터져라 배가 부른것이 부자바위 같았네

이렇게 시작되는 시에서 서정적주인공- 《나》  
 는 꿈길에서 큰 바위를 만나 어찌할바를 몰라 하  
 던차에 산신령 같은 성성한 백발의 로인이 나타  
 나서 《옛 사람의 말에/ 입이 여럿이면 무쇠라도  
 녹인다고 했으니/ 나라안의 못백성들을 불러 모  
 아/ 노래 지어 부르고 팽이로 바위를 쳐라/ 그러  
 면 좋은 수가 있으리라》라고 일러 준 말을 듣고  
 이끌져풀 휘몰아 다니며 《발 매는 아낙네》, 《쟁  
 기질하는 장정》, 《대장쟁이》 등을 모두 불러  
 일으켜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바위를 치게 하였  
 더니 바위가 깨여 저 박살난 바위를 실은 양키합  
 대는 태평양을 건너 가고 조각난 바위를 실은 부  
 자상선은 현해탄을 건너 갔다는것이다.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어제 밤 꿈길에서 나는 보았네  
 동풍에 나뭇겨 춤 추는 동해바다를  
 남한강 청천강이 한데 어우러져  
 휘몰아 솟구치며 노래하고 까부는것을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 끼리끼리

어깨춤에 보리대 엮고 병신춤을 추는것을  
 남에는 한나산 백록담에 목욕재계하고  
 북에는 백두산 천지연에 목욕재계하고  
 남남북녀가 통일의 하늘아래서 맞절하는것을

이처럼 이 시는 꿈이야기를 빈 동화적인 형상  
 을 통하여 민족적향취가 풍기는 가운데 조국통일  
 에 대한 지향과 의지를 예술적으로 감명 깊게 표  
 현한것으로 하여 김남주의 작품계렬에서 이채를  
 띤다.

김남주에게는 이밖에도 조국통일에 대하여 노  
 래 한 시들이 적지 않게 있다.

조국통일을 주제로 한 김남주의 시들은 남조선  
 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남녘인민들을 식  
 민지예속에서 해방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할데 대  
 한 그 강렬한 지향과 투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련방제  
 방식으로 나라를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문  
 제들에 예술적해명을 주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남조선에서 조국통일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  
 치던 시기 독특한 시형상으로 반제민족해방의 의  
 지와 민족통일에 대한 지향을 누구보다도 열정적  
 으로 격조높이 노래한 김남주의 시는 일정한 제  
 한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상예술적성파로 하여  
 1980년대 남조선민중민족시문학의 한 봉우리를  
 이룬다.

## 주체 91(2002)년 《조선문학축전상》 당선작품

- 단편소설: 《까툴골사람》 《김일성상》 제관인 소설가 안동춘
- 운문소설: 《정일봉의 해맞이 가자》 《김일성상》 제관인 소설가 김진성
- 단편소설: 《인간의 노래》 《김일성상》 제관인 소설가 박운
- 서정시: 《나는 사랑으로 함께 간다》 시인 홍현양
- 서정시: 《젓줄기》 시인 리동후
- 서정시: 《나는 협동별사람이다》 시인 리진협
- 서정시: 《우리의 세월은 어떻게 흐르는가》 시인 전승일
- 평론: 《시인은 누구나 시를 쓰고 있다. 그러나...》 평론가 류만
- 수기: 《잊을수 없는 생일날》 공화국영웅 《조국통일상》 수상자 작가 김동기